뤼팽 대 헐록 숌즈

Arsène Lupin contre Herlock Sholmès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08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06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Arsène Lupin contre Herlock Sholmès » (1908)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Arsène Lupin contre Herlock Sholmès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6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지난해 12월 8일, 베르사유 고등학교 수학 교사인 제르부아 씨는 잡동사니 파는 노점상 더미 속에서 작은 마호가니 서랍장을 하나 발견했다. 서랍이 여럿 달린 그 작은 가구가 그의 마음에 쏙 들었다.

'수잔 생일 선물로 딱이야.'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그는 딸을 기쁘게 해주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는 가격을 흥정하고 65프랑을 지불했다.

그가 자신의 주소를 적어주려던 찰나, 우아한 차림새의 한 젊은이가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서랍장을 눈여겨보았다. 그리고 물었다.

"얼마요?"

"이미 팔렸습니다." 상인이 대답했다.

"아…… 그러니까, 이분께?"

제르부아 씨는 인사를 나누고 물건을 넘겨받게 되어 기뻤다. 같은 물건이 다른 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기쁨을 더했다. 그는 자리를 떴다.

하지만 거리를 열 걸음도 채 걸어가지 않은 순간, 젊은이가 그를 따라잡았다. 젊은이는 모자를 손에 쥔 채, 완벽한 예의를 갖추며 말했다.

"말씀드리기 민망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 서랍장을 다른 물건보다 특별히 원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특정 물리 실험을 위해 중고 저울을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서랍장에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으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집착은 아닙니다만, 확실히 원하죠."

"오래된 물건이라서 그런가요?"

"편리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랍장을, 똑같이 편리하면서도 상태는 더 좋은 다른 서랍장과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건 상태가 괜찮아요. 교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하지만……."

제르부아 씨는 성미가 급하고 성격도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제발, 더 이상 강요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남자가 그의 앞에 쑤욱 나섰다.

"선생께서 얼마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배 값을 드리겠습니다."

"세 배?"

"아니, 그만합시다." 교수는 성이 나서 소리쳤다. "내 것은 팔지 않습니다."

젊은 남자는 제르부아 씨가 결코 잊지 못할 듯한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곤 아무 말 없이 발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다.

한 시간 뒤, 그 가구가 비로플레로 가는 길에 있는 교수의 오두막집으로 옮겨졌다. 교수는 딸을 불렀다.

"수잔아, 이게 너에게 맞다면 가져가라."

수잔은 사랑스러운 소녀였다. 쾌활하고 행복한 아이였다. 그녀는 아버지 품에 안기며 그를 꼭 안았고, 마치 왕실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쁨으로 입맞춤을 했다.

그날 저녁, 하녀 오르탕스의 도움을 받아 그 서랍장을 자기 방에 들여놓은 뒤, 수잔은 서랍을 정리했다. 그녀는 서류와 편지함, 편지들, 엽서 수집품, 그리고 사촌 필립을 위해 간직했던 몇 가지 사적인 기념품들을 꼼꼼하게 정리했다.

다음 날 아침, 일곱 시 삼십 분에 제르부아 씨는 학교로 향했다. 열 시가 되자, 수잔은 평소 습관대로 학교 정문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반대편 인도에서 수잔의 우아한 모습과 아이 같은 미소를 보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네 서랍장은 어떠니?"

"정말 멋져요! 오르탕스랑 제가 놋쇠 장식을 닦았더니 마치 금처럼 반짝여요."

"그래, 마음에 들어?"

"당연하죠! 도대체 그동안 이걸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집 앞 정원을 지나갔다. 제르부아 씨가 제안했다.

"점심 전에 한번 가봐도 되겠지?"

"오, 좋은 생각이에요."

그녀가 먼저 계단을 올랐다. 하지만 방 문턱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다.

"무슨 일이에요?" 제르부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도 방 안으로 들어갔다. 서랍장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판사의 눈을 놀라게 한 것은, 범행에 쓰인 수단이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는 점이었다.

수잔이 집에 없고 하녀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번호판(표찰)을 단 배달부 한 명이 —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 — 집 앞 정원에 수레를 세우고 두 번 종을 울렸다.

하녀가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이웃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사내는 더없이 평온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눈여겨볼 점이 있다. 옷장은 물론 시계조차 손대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수잔이 서랍장 대리석 위에 올려둔 지갑이, 속의 금화까지 그대로 든 채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도둑의 목적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오히려 이 사건을 더 불가해하게 만든다. 그토록 보잘것없는 이득을 위해 어째서 그런 큰 위험을 무릅써야 했을까?

교수가 제공할 수 있는 단서는 오직 전날의 사건뿐이었다.

"그 젊은이는 거절하자마자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가 떠날 때 나를 위협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사실은 너무 모호했다. 상인을 심문했지만, 그는 두 남자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물건은 쉐브루즈에서 열린 유산 정리 경매에서 40프랑에 샀다고 했다. 제값에 팔았다고 믿었다. 더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제르부아 씨는 자신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굳게 믿었다. 서랍의 이중 바닥에 거액이 숨겨져 있었을 터였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숨겨진 장소를 알고 있던 젊은이가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쌍한 아버지, 그 돈이 있었던들 우리가 그걸로 뭘 했겠어요?" 수잔이 거듭 말했다.

"무슨 소리! 그만한 지참금이 있었다면 너는 최고의 혼처도 노릴 수 있었을 텐데."

수잔은 사촌 필립에게만 마음을 주고 있었다. 필립은 볼품없는 사내였지만. 그녀는 쓴웃음을 짓듯 한숨을 내쉬었다. 베르사유의 작은 집에서 삶은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더 이상 밝지 않았다. 후회와 실망이 집안을 어둡게 감쌌다.

두 달이 흘렀다. 그러자 뜻밖의 일이 연이어 터졌다. 행운과 재앙이 뒤섞인 충격적인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2월 1일 오후 다섯 시 반. 막 집으로 돌아온 제르부아 씨가 저녁 신문을 들고 의자에 앉았다. 안경을 쓰고 독서를 시작했다. 정치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곧장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자 한 기사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제목은 이랬다.

"언론인 협회 복권 세 번째 추첨. 23번 시리즈 514번, 100만 프랑 당첨!"

신문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눈앞의 벽이 흔들리고,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 514번, 시리즈 23. 바로 그 번호였다.

그는 우연히, 친구를 위해 사주었을 뿐이다. 운명의 은총 따위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당첨된 것이다.

그는 재빨리 수첩을 꺼냈다. 514번, 시리즈 23. 수첩의 한 페이지에 분명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티켓은?

그는 자신의 서재로 뛰어갔다. 소중한 복권을 끼워 둔 봉투 상자를 찾기 위해서였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다시 한번 몸을 비틀며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상자가 없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상자가 이미 수 주 전부터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수 주 전부터, 그는 학생들의 숙제를 채점하던 시간에도 그 상자가 더 이상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정원의 자갈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수잔! 수잔!"

수잔이 달려왔다. 그녀는 급하게 계단을 올랐다. 그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잔…… 상자…… 봉투 상자 말이야?"

"어떤 상자요?"

"루브르에서 가져온 그 상자 말이다. 어느 목요일에 가져왔던 거. 책상 끝에 놓여 있던."

"하지만 아버님, 기억나세요. 우리가 함께 넣어뒀잖아요."

"언제?"

"저녁에요. 아시다시피, 바로 그날 전날 밤에."

"어디에? 대답해라. 너 때문에 내가 숨이 막혀 죽겠다."

"어디에요? 서랍장 안에요."

"도둑맞은 그 서랍장 안에?"

"도둑맞은 그 서랍장 안에요."

그가 그 말을 작은 소리로 되풀이했다. 공포에 질린 듯했다. 그러고는 딸의 손을 쥐며, 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백만 프랑이 들어 있었단다, 내 딸아."

"아, 아버님, 왜 저한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순진하게 속삭였다.

"백만 프랑! 그건 프레스 신문의 당첨 번호가 적힌 증권이었던 거야."

재앙의 크기가 그들을 짓눌렀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침묵을 깨지 못한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마침내 수잔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버님, 그건 결국 갚아주게 될 거잖아요."

"왜? 무슨 증거로?"

"그럼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당연하지!"

"그런데 아버진 증거가 없으시잖아요?"

"아니, 하나 있다."

"그게 뭔데요?"

"그건 상자 안에 들어 있었다."

"사라진 그 상자요?"

"그래. 그러니 그 돈을 타게 되는 건 다른 자가 될 거다."

"말도 안 돼요! 아버님, 그걸 막을 수는 없나요?"

"글쎄 누가 알겠니! 그 남자는 분명 만만치 않아. 가진 수단이 엄청나거든…… 기억나지? 그 가구 사건 말이다."

그는 기운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나 발을 구르며 외쳤다.

"아니, 안 돼! 그 백만 프랑은 절대 못 줘! 줄 수 없어! 도대체 왜 그 자가 그걸 가져가야 하지? 아무리 교활해도 그자 역시 어쩌지 못해. 돈을 타러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잡아 가두는 거야! 어디 두고 보자, 이 친구야!"

"아버님, 무슨 묘안이라도 있으세요?"

"우리는 끝까지 권리를 수호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백만 프랑은 내 거야. 내가 반드시 받아낼 테니까!"

몇 분 후, 그는 이 전보를 보냈다.

'시리즈 23번 514호를 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청구에도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거의 동시에, 크레디 퐁시에에도 또 다른 전보가 도착했다.

'시리즈 23번 514호는 제 수중에 있습니다.'

아르센 뤼팽의 무수한 모험 중 하나를 기록하려 할 때마다, 나는 늘 당혹감을 느낀다. 내가 쓰려는 이 이야기들이 이미 독자들 모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국민 도둑'이라 불릴 만큼 사랑받는 뤼팽의 손길 하나하나가 얼마나 크게 보도되었는지 모른다. 그의 업적은 사방팔방으로 분석되었고, 그의 행동은 영웅담에나 어울릴 만큼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끊임없이 회자되어 왔다.

누가 이 기묘한 '금발의 여인' 이야기를 모른단 말인가. 특파원들이 굵은 글씨로 제목을 달았던 그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들. '연번 23의 514번!' '앙리 마르틴 거리 살인사건!' '푸른 다이아몬드!'

전설적인 영국 탐정 헐록 숌즈의 개입을 둘러싼 소문은 어떠했는가. 두 거장 탐정들의 대결을 알린 각 에피소드마다 세상은 얼마나 들끓었는가.

그리고 어느 날, 거리에서 신문팔이들이 '아르센 뤼팽 체포!'라고 목청껏 외치던 그날, 파리의 큰길은 얼마나 술렁였는가.

미안하다. 내가 가져온 건 새로운 소식이다. 그 수수께끼의 해답이다. 이 사건들 뒤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나는 그 그림자를 걷어낸다.

내가 다시 실은 기사는 이미 여러 번 읽은 것들이고, 다시 적은 인터뷰도 오래된 것들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들을 정리하고 분류했다. 그리고 정확한 진실에 비추어 보았다.

내 협력자는 아르센 뤼팽이다. 그가 나에게 보여준 호의는 끝이 없다. 그리고 이번 경우엔, 둘도 없는 윌슨, 숌즈의 친구이자 속내를 털어놓는 벗까지 가세했다.

그 유명한 두 편의 전보가 발표되었을 때 터져 나왔던 폭소를 기억할 것이다. 아르센 뤼팽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보증이자, 군중을 위한 즐거움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군중은 전 세계였다.

크레디 퐁시에가 즉시 조사를 벌인 결과, 시리즈 23번 514번 복권은 크레디 리오네 베르사유 지점을 통해 포병 소령 베시에게 발행되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문제는 베시 소령이 이미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사실이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죽기 얼마 전 친구에게 복권을 넘겨주어야 했다고 한다.

"그 친구가 바로 저입니다." 제르부아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소?" 크레디 퐁시에 총재가 반문했다.

"증명이라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무 명쯤은 제가 베시 소령과 꾸준히 교류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플라스 다름 광장 카페에서 자

주 만났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겁니다. 어느 날, 그가 곤란한 처지에 처했을 때 제가 그를 도와주기 위해 스무 프랑을 주고 그 복권을 다시 사들였죠."

"이 거래에 증인이 있소?"

"그렇다면 당신의 주장은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그가 이 일에 대해 내게 쓴 편지 때문입니다."

"어떤 편지?"

"그 복권과 함께 핀으로 꽂혀 있던 편지였죠."

"그 편지를 보여 주시오."

"하지만 그 편지는 훔쳐 간 서랍장 속에 있었어요."

"그 편지를 찾아오시오."

이때 아르센 뤼팽이 직접 그 편지를 공개했다. <에코 드 프랑스>에 실린 한 기사가 그 사실을 알렸다. 이 신문은 영광스럽게도 뤼팽의 공식 기관지였고, 소문에 따르면 그는 이 신문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이었다. 기사 내용은 이러했다. 뤼팽이 자신의 법률 고문인 데티낭 씨에게, 베시 소령이 그에게 직접 쓴 편지를 넘겼다는 것이다.

이 소식은 환호성으로 이어졌다. 아르센 뤼팽이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이다. 뤼팽이 정해진 규칙을 존중하며, 자신을 대

변할 변호사를 공식적으로 선임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전국 언론이 일제히 영향력 있는 급진파 의원 M. 데티낭의 집으로 몰려갔다. 그는 높은 도덕성을 지닌 동시에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인물이었다. 약간은 회의적이면서도 역설을 즐겨 하는 성향이었다.

데티낭은 아직 아르센 뤼팽을 만나 본 적이 없었다. 그 점을 매우 아까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방금 뤼팽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참이었다. 자신을 선택해 준 데 대해 큰 영광으로 여긴 그는, 의뢰인의 권리를 힘차게 옹호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새로 마련한 사건 파일을 열어 숨김없이 내밀었다. 그것은 소령이 보낸 편지였다. 그 편지는 복권의 양도를 분명히 증명하고 있었지만, 구매자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친애하는 친구여….' 편지는 그렇게만 간단히 적고 있었다.

"친애하는 친구여, 저 아르센 뤼팽입니다." 소령이 보낸 편지 곁에 동봉된 메모에 뤼팽은 이렇게 적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단이 즉시 제르부아 씨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제르부아 씨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곤 똑같이 반복할 뿐이었다.

"친애하는 친구"란 바로 나다. 아르센 뤼팽이 소령의 편지와 복권을 훔쳐갔다.

"증명해 보시지!" 기자들에게 뤼팽이 날카롭게 반박했다.

"하지만 바로 그자가 서랍장을 훔쳤잖소!" 제르부아 씨는 같은 기자들에게 외쳤다.

뤼팽은 다시 한 번 잘라 말했다. "증명해 보시지!"

514번, 시리즈 23의 소유자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이 공개적인 대결은 참으로 매력적인 광경이었다. 기자들의 드나듦이 그러했고, 가엾은 제르부아 씨의 당황과는 달리 아르센 뤼팽이 보여준 냉정함이 그러했다.

불쌍한 사람! 언론은 그의 하소연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기의 불행을 놀라울 정도로 순진하게 털어놓았다.

"이봐요, 여러분. 그 도둑이 훔쳐간 건 수잔의 혼수품이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지만 수잔을 생각하면! 천만 프랑이라니요! 십만 프랑을 열 번이나 합친 거라고요. 아, 그 서랍장 안에 보물이 들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가구를 가져갈 때 복권 한 장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복권이 당첨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말려 봐야 그는 탄식할 뿐이었다.

"그럴 리가요. 그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니,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그 비루한 가구를 들고 갈 귀찮음을 왜 겪었겠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당시 고작 이십 프랑짜리 종잇조각을 노린 것은 아니야."

"백만 프랑이잖아! 그는 그걸 알고 있었어…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어! 아, 당신은 그 강도를 아직 모르는군요! 그는 당신에게선 백만 프랑을 빼앗지 않았잖소!"

이런 대화가 오래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열두째 날, 제르부아 씨는 아르센 뤼팽으로부터 '비밀'이라는 표지가 붙은 편지를 받았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읽었다.

"선생, 구경꾼들이 우리를 놀림감 삼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진지하게 임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로서는 이미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상황은 명확하다. 나는 받을 권리가 없는 복권을 가지고 있고, 너는 가지고 있지도 않은 복권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결국 우리는 서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게다가 너는 내게 네 권리를 양도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나도 너에게 내 복권을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생각엔 단 하나의 방법뿐이다. 나누는 것이다.

너에게 오십만 프랑, 나에게 오십만 프랑. 공평하지 않은가?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이렇듯 우리 모두 속에 자리한 정의감을 만족시켜 주지 않는가?

"공정한 해결책이지만, 즉각적인 해결책이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한가로이 따져 볼 수 있는 제안이 아니라, 상황이 당신에게 따르도록 강요하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생각할 시간은 사흘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에코 드 프랑스>지의 안내 광고란에서 아르센 뤼팽(Ars. Lup.) 씨 앞으로 보내진, 제가 제안한 계약에 당신이 순순히 동의한다는 뜻을 에둘러 담은 은밀한 짧은 글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조건이 성립되면, 당신은 지체 없이 복권을 돌려받아 백만 프랑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 나중에 제가 지시할 경로로 오십만 프랑을 저에게 건네야 합니다."

«거절하시면,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도록 이미 조치를 취해 뒀소. 하지만 그런 고집을 부리면 매우 심각한 곤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으로 이십오만 프랑을 공제당하게 될 거요.

선생, 부디 저의 깊은 경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개한 제르부아 씨는 이 편지를 드러내 보이고, 복사본까지 남기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분노가 그를 온갖 어리석은 짓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없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다!» 그가 기자들 앞에서 외쳤다. «내 것을 나누라니, 절대 안 되겠소. 원하면 그 복권을 찢어 버리라고 해!»

«하지만 오십만 프랑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오. 내 권리가 문제지. 그 권리는 법정에서 입증해 보이겠소.»

"아르센 뤼팽을 공격한다? 그건 재미있겠군."

"아니, 그건 아니고 크레디퐁시르 Crédit Foncier 문제야. 그쪽에서 백만 프랑을 내줘야 해."

"복권을 맡기거나, 적어도 그 복권을 샀다는 증거를 대야 하는데."

"증거는 있어. 뤼팽이 그 서랍장을 훔쳤다고 자백했으니까."

"뤼팽의 말만 믿고 법원이 움직일까?"

"어쨌든, 나는 계속 진행할 거야."

구경꾼들은 안달이 나서 발을 동동 굴렀다. 베팅이 오갔다. 어떤 이들은 뤼팽이 제르부아 씨를 무너뜨릴 거라고 점쳤고, 또 다른 이들은 그의 위협이 공염불에 그칠 거라 믿었다. 두 적수의 힘이 너무도 불균형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한쪽은 공격을 가하는 데 거침이 없었고, 다른 한쪽은 쫓기는 짐승처럼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금요일이 되자 사람들은 『에코 드 프랑스』 신문을 서로 빼앗듯 사갔다. 작은 광고가 실리는 다섯째 페이지를 열심히 훑어본 것이다. 하지만 '아르센 뤼팽 씨(Ars. Lup.)' 앞으로 온 글귀는 단 한 줄도 없었다.

아르센 뤼팽의 지시에 제르부아 씨는 침묵으로 답했다. 이는 곧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그날 저녁, 신문을 통해 제르부아 양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우리가 '아르센 뤼팽의 쇼'라 부를 만한 이 사건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경찰이 맡은 더없이 우스꽝스러운 역할이다. 모든 일은 경찰과 무관하게 진행된다.

그는 경찰청장도, 형사들도, 경찰서장도, 그러니까 그의 계획을 가로막을 만한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쓰고, 알리고, 명령하고, 위협하고, 실행한다.

이 모든 것은 무효로 간주된다. 장애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경찰은 안간힘을 쓴다! 아르센 뤼팽이 얽힌 일이라면,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끓어오르고, 분노에 거품을 문다. 그는 바로 적이다. 그것도 자신을 조롱하고, 도발하고, 경멸하는 적.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은 아예 자신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그런 적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

하녀의 증언에 따르면, 수잔은 열 시 이십 분 전, 곧 아홉 시 사십 분에 집을 나섰다. 열 시 오 분, 고등학교에서 나온 아버지는 평소 딸이 자기를 기다리던 인도에서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 모든 일은 수잔이 집에서 고등학교까지, 혹은 적어도 고등학교 근처까지 이르는 그 이십 분 남짓한 짧은 산책 도중에 일어난 셈이다.

두 이웃은 그 소녀를 집에서 300보쯤 떨어진 곳에서 마주쳤다고 증언했다. 한 부인은 큰길을 따라 걷는 소녀를 보았다고 했다. 그 소녀의 인상착의가 그녀와 일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수색은 온갖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역 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을 심문했다. 하지만 그날 소녀 납치와 관련되어 보일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빌다브레의 식료품상 한 명이 증언했다. 파리에서 도착한 폐쇄형 자동차에 기름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이다. 운전석에는 기계공이 앉아 있었고, 차 안에는 금발의 숙녀가 있었다. 증인은 "지극히 금발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시간 뒤, 그 자동차가 베르사유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교통 체증으로 속도를 늦춰야 했고, 그 덕분에 식료품상은 차 안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 이미 본 적 있는 금발 숙녀 옆에 다른 숙녀가 앉아 있었다. 이쪽은 숄과 베일로 두꺼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수잔느 제르부아임에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납치는 한낮, 매우 번화한 도로, 그것도 도시 한복판에서 자행되었다는 얘기였다.

어떻게? 어디에서? 비명 한 번 들리지 않았고, 수상한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다.

식료품 상인은 자동차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했다. 푸조 사제 24마력 리무진, 차체는 짙은 파란색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동차 납치를 전문으로 한다는 그랑가라주의 여주인 봅발투르(Bob-Walthour) 여사에게 문의했다. 과연 금요일 아침, 그녀는 어느 금발 여인에게 푸조 리무진을 하루 동안 빌려주었는데, 그 뒤로 그 여인을 다시 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기계공은?"

"에르네스트라는 남자였습니다. 전날 훌륭한 추천서만 믿고 고용했죠."

"그가 여기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차를 몰고 돌아왔고, 그 뒤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나요?"

"물론 찾을 수 있죠. 그가 신원 보증으로 내세운 사람들을 만나면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에르네스트'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다.

이렇듯 어둠에서 벗어나려 따라간 길은 결국 또 다른 어둠으로, 또 다른 수수께끼로 이어질 뿐이었다.

제르부아 씨는 이렇게 치명적으로 시작된 싸움을 감당할 힘이 없었다. 딸이 사라진 뒤로 그는 위안을 찾지 못했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결국 그는 항복했다.

『에코 드 프랑스』지에 실려 모두의 입에 오르내린 한 작은 광고가, 그가 아무런 속셈 없이 순순히 굴복했음을 알렸다.

승리였다. 나흘 만에 전쟁은 끝났다.

이틀 뒤, 제르부아 씨는 크레디퐁시르의 안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총재 앞으로 안내된 그는 514-23번 복권을 내밀었다. 총재가 깜짝 놀랐다.

"아, 가지고 계셨군요. 돌려받으신 겁니까?"

"어디 뒀는지 몰랐던 것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르부아 씨가 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모두 헛소문이고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렇다 해도, 그래도 이를 뒷받침할 서류는 좀 있어야겠군요."

"대령의 편지로는 부족합니까?"

"물론 충분하지요."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서류들을 저희 쪽에 맡겨 주십시오. 확인하는 데 보름이 주어집니다. 저희 창구에 오셔도 될 때가 되면 곧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선생님,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이 일을 더없이 조용하게 마무리하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제르부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총재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비밀은 누가 입을 놀리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순간, 아르센 뤼팽이 514-23번 복권을 제르부아 씨에게 감히 돌려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탄에 휩싸였다.

정말 대단한 승부사였다. 그토록 중요한 으뜸패, 곧 그 귀중한 복권을 테이블 위에 던진 것이다. 물론 그는 분별없이 던진 게 아니라, 균형을 되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민 패였다.

하지만 만약 그 소녀가 달아난다면 어찌 되겠는가? 만약 그가 붙잡고 있는 인질을 도로 빼앗는 데 성공한다면?

경찰은 적의 약점을 간파하고 더욱 박차를 가했다. 아르센 뤼팽은 무장 해제당한 채, 스스로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내주고, 자신이 꾸민 술책의 톱니바퀴에 걸려들어, 백만 프랑 중 단 한 푼도 만지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잔을 찾아내야 했다. 그런데 그녀는 도무지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스스로 탈출하지도 못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좋다, 그 점은 인정하자, 아르센이 첫 판을 이겼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다. 제르부아 양이 그의 손안에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오십만 프랑을 받아야만 그녀를 넘겨줄 것이다. 문제는 그 교환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다. 교환이 성사되려면 만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제르부아 씨가 경찰에 알리고, 그렇게 해서 돈은 지키면서 딸도 되찾는 것을 무엇이 막겠는가?

교수를 인터뷰했다. 그는 몹시 낙담해 있었고 침묵을 원했으며, 끝내 속을 알 수 없는 태도를 유지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따님은요?"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센 뤼팽이 당신에게 편지를 썼죠?"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신다면요."

"그럼 맞다는 뜻이군요. 그의 지시는 무엇입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엔 데티낭 씨를 에워쌌다. 그 역시 똑같이 입이 무거웠다.

"뤼팽 씨는 제 의뢰인입니다." 그는 짐짓 근엄한 태도로 답했다. "제가 가장 철저하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겠지요."

이 모든 미스터리가 구경꾼들의 신경을 거슬렀다. 분명 어둠 속에서 무언가 획책되고 있었다. 아르센 뤼팽이 제 그물코를 펼치고 또 죄어 가는 동안, 경찰은 제르부아 씨를 밤낮으로 감시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능한 세 가지 결말, 즉 체포냐, 승리냐, 아니면 우스꽝스럽고 한심한 실패냐를 따져 보았다.

하지만 대중의 호기심은 일부만 채워질 운명이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페이지에서, 처음으로 정확한 진상이 밝혀진다.

3월 12일 화요일, 제르부아 씨는 겉보기에 평범한 봉투에 담긴 크레디퐁시르의 통지서를 받았다.

목요일 오후 1시, 그는 파리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2시가 되자 천 프랑짜리 지폐 천 장이 그의 손에 건네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한 장 한 장 넘겨 보았다. 이 돈이야말로 수잔의 몸값이 아니던가?

그때, 커다란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 선 마차 안에서 두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중 한 남자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단호

한 인상이었는데, 그 얼굴은 말단 직원 같은 옷차림과 몸가짐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바로 수석 형사 가니마르, 뤼팽의 집요한 숙적인 늙은 가니마르였다.

가니마르는 폴랑팡 반장에게 말했다.

"이제 곧이야…… 5분도 안 돼서 우리 그 친구를 다시 보게 될 거야. 준비는 다 됐지?"

"완벽합니다."

"우리는 몇 명이지?"

"여덟 명입니다. 그중 둘은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 셋 몫은 하지. 충분해. 하지만 넘치진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제르부아를 놓쳐선 안 돼. 안 그러면 끝장이야. 그는 뤼팽과 정해 둔 약속 장소에서 만나, 딸을 50만 프랑과 맞바꿔 데려올 테고, 그러면 만사 끝이지."

"그런데 왜 그 남자는 우리와 함께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훨씬 간단할 텐데요. 그가 우리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면 백만 프랑을 통째로 지킬 수 있을 테고요."

"그래, 하지만 그는 겁을 내고 있어. 다른 자를 속이려 들었다간 딸을 못 찾게 될 테니까."

"다른 자라니요?"

"그 사람 말이야."

가니마르는 이 말을, 마치 이미 그 발톱에 할퀴어 본 적 있는 초자연적 존재를 이야기하듯, 무겁고 다소 두려움이 깃든 어조로 내뱉었다.

"참 묘하군요." 폴랑팡 분대장이 제법 일리 있게 한마디 했다. "우리가 도리어 저분을 그 자신으로부터 지켜야 하다니 말입니다."

"뤼팽이 개입되면 세상이 뒤집히죠." 가니마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 분쯤 시간이 흘렀다.

"조심." 그가 주의를 주었다.

제르부아 씨가 밖으로 나갔다. 카푸신 거리 끝에서 그는 왼쪽 대로로 접어들었다. 그는 가게들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진열창을 들여다보았다.

"손님이 너무 차분하군." 가니마르가 중얼거렸다. "주머니에 백만 프랑을 품고 다니는 자는 저렇게 평온하지 않다."

"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죠. 분명히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경계합니다. 뤼팽은 뤼팽이니까요."

그때 제르부아 씨가 키오스크 쪽으로 걸어가 신문을 몇 장 고르고, 거스름돈을 받아 한 장을 펼쳤다. 그는 팔을 쭉 뻗고 작은 걸음으로 천천히 다가오며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도약하듯 뛰어, 보도 옆에 서 있던 자동차로 뛰어올랐다. 엔진은 이미 가동 중이었다. 차는 순식간에 출발해 마들레인 광장을 지나 사라졌다.

"이런 제기랄!" 가니마르가 소리쳤다. "또 그 수법이야!"

그는 곧장 달려나갔고, 마들레인 광장 주변으로 다른 형사들도 그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말제르브 대로 입구에서 그 자동차는 고장 난 채 멈춰 있었고, 제르부아 씨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빨리, 폴랑팡, 저 기계공… 에르네스트라는 놈일지도 몰라."

폴랑팡은 기계공을 맡았다. 그는 가스통이라는 이름의, 자동차 삯마차 회사(Société des fiacres automobiles) 소속 직원이었다. 불과 십 분 전, 한 신사가 그를 붙잡고 다른 신사가 올 때까지 키오스크 옆에서 '시동을 건 채' 기다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손님은 어디로 가자고 했소?" 폴랑팡이 물었다.

"주소는 없었습니다. '말제르브 대로, 메신 거리, 팁 두 배'라고만 했죠.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사이, 제르부아 씨는 단 일 분도 허비하지 않고 지나가는 첫 번째 마차에 뛰어올랐다.

"마부, 콩코르드 지하철역으로."

교수는 팔레 루아얄 광장 역에서 내려, 다른 마차로 달려가 부르스 광장으로 향했다. 다시 지하철을 타고, 빌리에 거리에서 세 번째 마차를 탔다.

"마부, 클라페롱 거리 25번지로."

클라페롱 거리 25번지는 모퉁이를 이루는 집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티뇰 대로와 떨어져 있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한 남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여기가 데티낭 씨 댁 맞습니까?"

"접니다. 제르부아 씨시죠?"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르부아 씨가 변호사의 서재로 들어섰을 때, 시계는 세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곧장 말했다.

"그가 정해 준 시간이군요. 아직 안 왔습니까?"

"아직입니다."

제르부아 씨는 자리에 앉아 이마에 맺힌 땀을 닦고는, 마치 몇 시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시계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불안하게 물었다.

"올까요?"

변호사가 답했다.

"선생님,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일을 물어보시는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이 일에 대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초조합니다. 어쨌든 그가 온다면 큰일 날 겁니다. 이 집은 지난 보름 동안 철저히 감시되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보다 더 의심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제 곁에 붙은 요원들이 제 발자취를 놓쳤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라도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제게는 탓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수가 급하게 말을 이었다.

"제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그의 명령에 따르겠다고요. 음, 저는 그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돈을 받았고, 그가 지시한 방법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딸의 불행을 막지 못한 책임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의 차례입니다. 그 역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는 같은 불안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제 딸을 데려다주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를 직접 보셨습니까?"

"저요? 아니요. 그는 그저 편지로, 두 분을 맞이하고, 세 시 전에 하인들을 모두 내보내며, 두 분이 도착한 뒤부터 그가 떠날 때까지 제 집에 아무도 들이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프랑스 에코』지에 두 줄 실어 알려 달라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아르센 뤼팽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없이 기쁘니, 무엇이든 동의합니다."

제르부아 씨는 신음했다.

"아아, 이 일이 어떻게 끝나려나?"

그는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 탁자 위에 펼치고는, 같은 장수로 두 뭉치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둘 다 입을 다물었다. 이따금 제르부아 씨는 귀를 기울였다… 누가 초인종을 누른 게 아닐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불안은 커져만 갔고, 데티낭 변호사도 거의 고통스러울 만큼 긴장했다.

한순간 변호사는 침착함을 완전히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못 올 겁니다…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가 온다면 미친 짓이죠! 그가 우리를 믿는 거야 좋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라 그를 배신할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위험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르부아 씨는 짓눌린 듯 두 손을 지폐 위에 얹은 채 더듬거렸다.

"제발 그가 오기를, 오, 하느님, 그가 오게 해 주십시오! 수잔만 되찾을 수 있다면 이 돈을 다 주겠습니다."

문이 열렸다.

"절반이면 충분합니다, 제르부아 씨."

문턱에 누군가 서 있었다. 젊고 우아하게 차려입은 사내였다. 제르부아 씨는 곧바로 그가 베르사유의 골동품 가게 근처에서 자신에게 다가왔던 바로 그 인물임을 알아보았다.

제르부아 씨는 그에게 달려들었다.

"수잔은요? 내 딸은 어디 있소?"

아르센 뤼팽은 문을 조심스레 닫고, 더없이 차분한 동작으로 장갑을 벗으면서 변호사에게 말했다.

"변호사님, 제 권리를 변호하는 일을 기꺼이 맡아 주셔서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데티낭 변호사가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않으셨는데… 문소리도 못 들었고…"

"초인종과 문이란 결코 소리가 들리지 않게 작동해야 하는 법이죠. 어쨌든 이렇게 와 있으니,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딸! 수잔! 그 애를 어떻게 한 거요?" 교수가 거듭 물었다.

"맙소사, 선생님,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뤼팽이 말했다. "자, 안심하세요. 잠시만 더 있으면 따님이 당신 품에 안길 겁니다."

그는 방 안을 거닐다가, 칭찬을 늘어놓는 대귀족 같은 어조로 말했다.

"제르부아 씨, 방금 보여 주신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그 자동차가 그 어이없는 고장만 일으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에투알에서 만났을 테고, 데티낭 씨도 이런 방문의 수고를 덜었을 텐데요… 뭐, 어쩔 수 없죠. 다 정해진 일이었으니까."

그는 두 뭉치의 지폐를 보고는 외쳤다.

"아! 완벽하군요! 백만 프랑이 여기 있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괜찮겠죠?"

"하지만," 데티낭 씨가 탁자 앞을 막아서며 반박했다. "제르부아 양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글쎄요, 그 아가씨가 꼭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아르센 뤼팽은 어중간한 신뢰밖에 못 주는 자다 이거죠. 50만 프랑은 챙기고 인질은 돌려주지 않는다고요. 아, 친애하는 변호사님, 저는 크게 오해받는 사람입니다! 운명이 저를 좀… 특수한 성격의 일들로 이끌었다고 해서, 제 진심을 의심하다니요… 이 저를! 양심과 섬세함의 화신인 저를 말입니다! 게다가 변호사님, 정 두려우시면 창문을 열고 불러 보세요. 거리에 형사가 열두 명은 족히 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까?"

아르센 뤼팽이 커튼을 들어 올렸다.

"제르부아 씨가 가니마르를 따돌렸을 리 없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기 그 친절한 친구가 있군요!"

"이럴 수가!" 교수가 외쳤다. "하지만 맹세코 저는…"

"저를 배신하지 않으셨다고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 친구들이 워낙 솜씨가 좋아서요. 보세요, 폴랑팡이 보이는군요!… 그레움도!… 디외지까지!… 죄다 제 좋은 동료들이죠, 뭐!"

데티낭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저리도 태연할까! 그는 마치 어린아이 장난을 즐기듯, 아무런 위험도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형사들의 모습보다도 이 태평함이 변호사를 더 안심시켰다. 그는 지폐가 놓인 탁자에서 물러났다.

아르센 뤼팽은 두 뭉치를 하나씩 집어 들어 각 뭉치에서 스물다섯 장씩 빼냈다. 그렇게 모은 쉰 장을 데티낭 변호사에게 내밀며 말했다.

"친애하는 변호사님, 이건 제르부아 씨 몫의 수임료와 아르센 뤼팽 몫의 수임료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죠."

"저는 당신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티낭 변호사가 대답했다.

"무슨 말씀을요? 우리가 이렇게 폐를 끼치는데!"

"그 폐를 끼치는 게 오히려 저에게는 큰 기쁨인걸요!"

"그러니까, 친애하는 변호사님, 아르센 뤼팽한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군요. 나쁜 평판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는 오만 프랑을 교수에게 내밀었다.

"선생님, 이 좋은 만남을 기념하여 이걸 받아 주십시오. 제 결혼 축하 선물로 따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르부아 씨는 지폐를 얼른 받아 들었지만, 곧 항의했다.

"내 딸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따님은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오?"

"젊은 아가씨들은 아빠 허락 없이도 곧잘 꿈을 꾸곤 하지요. 다행히 아르센 뤼팽 같은 착한 요정이 있어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그 매력적인 영혼들의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는 거랍니다."

"그 외에 다른 건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데티낭이 물었다. "저는 정말이지 왜 그 가구가 당신의 관심 대상이 되었는지 무척 궁금하군요."

"역사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제르부아 씨의 생각과는 달리 그 서랍장 안에는 복권 한 장 외에 아무런 보물도 없었지만 — 그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만 — 저는 그 서랍장에 애착이 있어 오래전부터 찾아다녔습니다.

이 서랍장은 주목나무와 마호가니로 만들어졌고, 아칸서스 잎 무늬의 기둥머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불로뉴에 살던 마리 발레프스카의 한적한 작은 집에서 발견된 것이죠. 서랍 하나에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께, 그의 가장 충실한 종 망시옹 올림'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고, 그 위에는 칼끝으로 새긴 듯한 '마리, 그대에게'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훗날 나폴레옹은 이 서랍장을 본떠 조제핀 황후를 위한 것을 다시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메종에서 사람들이 감탄하던 그 서랍장은

불완전한 모조품에 불과하고, 지금 제 수집품의 하나가 된 이것이야말로 진품이지요."

교수는 신음했다.

"아아, 그 상인 집에서 그걸 알았더라면, 당신에게 얼마나 한달음에 넘겨드렸겠소!"

아르센 뤼팽이 웃으며 말했다.

"게다가 당신은 514-23번 번호를 당신 혼자만 간직하는 쏠쏠한 이득까지 보셨겠지요."

"그렇다고 당신이 내 딸을 납치할 까닭은 없었잖소. 이 모든 일이 그 애를 얼마나 뒤흔들어 놓았겠소."

"이 모든 일이라니요?"

"이 납치 말이오……."

"하지만 선생님, 오해하고 계십니다. 따님은 납치된 게 아닙니다."

"내 딸이 납치되지 않았다고?"

"전혀요. 납치라면 폭력이 따르는 법이지요. 그런데 따님은 제 발로 인질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 발로?" 제르부아 씨가 어리둥절해 되물었다.

"거의 따님이 부탁하다시피 한 일인걸요! 세상에, 제르부아 양처럼 총명한 아가씨가, 게다가 마음 깊은 곳에 차마 말 못 할 연정을 품고 있으면서, 자기 지참금을 손에 넣기를 마다했겠습니까! 아, 장담하건대 당신의 고집을 꺾을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걸 따님에게 납득시키기란 어렵지 않았습니다."

데티낭 씨는 무척 즐거워했다. 그가 이의를 제기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당신이 그녀와 합의하는 것이었을 텐데요. 제르부아 양이 낯선 사람의 접근을 순순히 받아들였을 리가 없잖습니까."

"오,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알게 되는 영광조차 없는걸요. 제 여자 친구 한 명이 기꺼이 협상에 나서 주었지요."

"아마도 자동차에 탔던 그 금발 부인이겠군요." 데티낭이 끼어들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근처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모든 게 정해졌죠. 그 뒤로 제르부아 양과 새 친구는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둘러보며, 젊은 아가씨에게 더없이 즐겁고 유익한 방식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게다가 그건 그녀가 직접 설명해 드릴 겁니다……."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빠르게 세 번, 이어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따로.

"그녀가 왔군요." 뤼팽이 말했다. "변호사님, 괜찮으시다면……."

변호사가 서둘러 달려나갔다.

두 젊은 여자가 들어섰다. 한 사람은 제르부아 씨의 품으로 뛰어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뤼팽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키가 크고 몸매가 균형 잡혀 있었으며, 얼굴은 무척 창백했다. 눈부시게 빛나는 금발은 두 갈래의 물결치는 머리띠 모양으로 느슨하게 갈라져 있었다.

검은 옷차림에 다섯 겹으로 두른 흑옥 목걸이 외에는 아무 장신구도 없었지만, 그런데도 그녀는 세련된 우아함을 풍겼다.

아르센 뤼팽이 그녀에게 몇 마디 건넨 뒤, 제르부아 양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아가씨, 이런 갖은 고생을 시켜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도 너무 불행하지는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불행하다니요? 가엾은 아버지 일만 아니었다면 저는 오히려 무척 행복했을 거예요."

"그럼 모든 게 잘된 거야. 다시 아버지 품에 안겨. 좋은 기회야. 아주 좋은 기회지. 그 기회에 네 사촌에 대해 말해 봐."

"내 사촌이라니? 무슨 뜻이야? 이해가 안 돼."

"아니, 이해가 돼. 네 사촌 필리프 말이지. 네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편지를 받은 그 젊은이를 말이야."

수잔은 얼굴이 붉어졌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뤼팽의 조언대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갔다.

뤼팽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선행을 베풀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니. 감동적인 광경이군. 행복한 아버지, 행복한 딸. 그리고 이 행복이 바로 내 손에서 비롯되었다니, 뤼팽이로선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 사람들은 나중에 너를 축복할 거야. 네 이름은 그들의 손자들까지 전해질 거야. 오, 가족이여! 가족이여!"

그는 창가로 걸어갔다.

"가니마르 형사는 여전히 그곳에 있나? … 그 녀석은 이 아름다운 감격의 순간을 보며 즐거워할 텐데! … 하지만 아냐, 그는 더 이상 여기 없군. 아무도 없지. 그도, 다른 이들도 다. 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군. 그들이 이미 현관문 아래, 아마도 문지기 집이나 계단에까지 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제르부아 씨가 몸을 살짝 떨었다. 이제 딸을 다시 품에 안았으니, 현실감이 되돌아온 것이다. 상대의 체포는 그에게 반백만 프랑의 보상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우연히도 뤼팽이 그의 발길을 막아섰다.

"어디로 가십니까, 제르부아 씨? 그들을 막으시려는 건가요? 정말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수고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그들보다 더 당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죠."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말을 이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아는 게 뭘까요? 당신들이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제르부아 양도 여기 있다는 것 정도겠지요. 따님이 낯선 부인과 함께 도착하는 걸 봤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들은 짐작도 못 합니다. 오늘 아침 지하실부터 다락방까지 샅샅이 뒤진 집에 내가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아니, 십중팔구 그들은 내가 나오는 걸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겠지요…… 가엾은 것들! …… 혹은 그 낯선 부인이 내가 보낸 사람이고 물건을 교환하러 왔다고 짐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떠날 때 붙잡으려고 채비하고 있겠지요……."

초인종이 울렸다.

뤼팽은 거친 동작으로 제르부아 씨를 멈춰 세우고, 메마르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서 멈추십시오, 선생님. 따님을 생각하셔서 분별 있게 행동하십시오, 안 그러면…… 그리고 데티낭 변호사님, 당신은 제게 약속하셨습니다."

제르부아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 버렸다. 변호사도 꼼짝하지 않았다.

뤼팽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모자를 집어 들었다. 먼지가 약간 묻어 있어, 소매 끝으로 털어 냈다.

"친애하는 변호사님, 혹시라도 제가 필요하시거든…… 그리고 수잔 양,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필리프 씨에게도 제 우정을 전해 주십시오."

그는 주머니에서 묵직한 금딱지 이중 케이스 회중시계를 꺼냈다.

"제르부아 씨, 지금 세 시 사십이 분입니다. 세 시 사십육 분이 되면 이 응접실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세 시 사십육 분보다 단 일 분도 일찍은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하지만 저들이 강제로 들어올 텐데요." 데티낭 씨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선생님은 법을 잊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가니마르는 결코 프랑스 시민의 집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느긋하게 브리지 한 판 칠 시간도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세 분 모두 조금 동요하신 듯하니, 더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군요……."

그는 시계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응접실 문을 연 뒤, 금발 부인에게 말했다.

"준비되셨습니까, 친애하는 친구?"

그는 그녀가 먼저 나가도록 비켜서고, 제르부아 양에게 마지막으로 더없이 정중한 인사를 건넨 다음,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다.

그러자 현관에서 그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다.

"안녕하신가, 가니마르, 잘 지내나, 친구? 가니마르 부인께 내 안부 좀 전해 주게…… 조만간 점심이나 얻어먹으러 가겠네…… 잘 있게, 가니마르."

또 한 번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갑작스럽고 거칠게. 이어 연거푸 울리는 소리와, 층계참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목소리.

"세 시 사십오 분." 제르부아 씨가 더듬더듬 중얼거렸다.

몇 초 뒤, 그는 단호하게 현관으로 나섰다. 뤼팽과 금발 부인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아빠! …… 안 돼요! …… 기다리세요!" 수잔이 외쳤다.

"기다리라고? 너 미쳤구나…… 저런 악당한테 무슨 봐주기를…… 그리고 오십만 프랑은?……"

그가 문을 열었다.

가니마르가 달려들었다.

"그 부인은…… 어디 있소! 그리고 뤼팽은?"

"여기 있었어요…… 지금도 여기 있어요."

가니마르가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잡았다…… 집은 포위됐어."

데티낭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뒷계단은요?"

"뒷계단은 안마당으로 통하는데, 출구는 정문 하나뿐이고, 거기는 열 명이 지키고 있소."

"하지만 그는 큰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어. 그러니 그 문으로 나가지도 않을 거야."

"그럼 대체 어디로?" 가니마르가 반문했다. "하늘을 날아갔다고?"

그가 커튼을 걷어냈다. 주방으로 이어지는 긴 복도가 드러났다. 가니마르가 달려가 확인해 보니, 부엌 계단 문은 이중으로 잠겨 있었다.

창가에서 그는 순경 한 명을 불렀다.

"아무도 없나?"

"없습니다."

"그럼!" 가니마르가 외쳤다. "그들은 지금 이 아파트 안에 있어! 방 중 한 곳에 숨어 있는 거야! 도망친 것은 절대 불가능해. 아, 아르센 뤼팽, 네가 나를 가지고 놀았겠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갚아주마."

저녁 일곱 시, 안보국 국장 뒤두아는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아 의아한 마음을 안고 클라페롱 거리로 향했다. 그는 건물을 지키는 경관들을

심문한 뒤, 데티낭 씨의 집으로 올라갔다. 데티낭 씨는 그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 다리가 카펫 위에서 허우적거릴 뿐, 그 다리가 붙어 있는 몸통은 굴뚝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있었다.

"이봐요! 이봐요!"

먹먹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봐요! 이봐요……"

뒤두아는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야, 가니마르.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굴뚝 청소부라도 되는 건가?"

가니마르 형사는 굴뚝 깊은 곳에서 기어 나왔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옷에는 검댕이 잔뜩 묻어 있었으며, 두 눈은 열기로 번득였다. 그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다.

"내가 찾고 있는 거야." 그가 투덜거렸다.

"아르센 뤼팽…… 아르센 뤼팽과 그 여자 말이야."

"뭐,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놈들이 굴뚝 배관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니마르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상관의 소매에 숯처럼 새까만 손가락 다섯 개를 갖다 댔다. 그는 낮고 격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어디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그놈들은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살과 뼈를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존재들은 연기가 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래도 사라지기는 했지."

"어디로? 어디로? 집은 포위됐어! 지붕에는 순경들이 서 있고."

"옆집은?"

"연결통로는 없습니다."

"다른 층의 아파트는?"

"저는 모든 세입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 누구도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 알고 계신 겁니까?"

"모두요. 관리인이 그들의 신원을 보증합니다. 더구나 안전을 위해 각 아파트마다 한 명씩 사람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반드시 잡아야 하고,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둘 다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안심하십시오, 국장님. 오늘 밤이 아니라면 내일 잡겠습니다……. 여기서 묵으면서라도 잡아내겠습니다! 여기서 묵겠습니다!"

사실 그는 그날 밤 그곳에서 잤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사흘 밤낮이 지나도록, 그는 미처 잡히지 않는 뤼팽과 그의 동무도 찾아내지 못했다. 더군다나 작은 추측 하나를 세울 만한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첫인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도망간 흔적이 하나도 없다면, 그들은 여전히 여기에 있는 거야!"

속으로는 덜 확신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절대로 아니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동화 속 악귀처럼 홀연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는 낙담하지 않고 수색과 조사를 계속했다. 어쩌면 이들이 집안의 어느 한구석에 숨겨져 있을지도, 돌벽 속에 스며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서였다.

제2장

3월 27일 밤.

앙리 마르탱 대로 134번지.

6개월 전, 형이 물려준 작은 저택 안이었다.

노장군이자 남작인 오트레크 남작은 깊은 안락의자에 몸을 맡기고 잠들어 있었다. 그는 제2제국 시절 베를린 주재 대사를 지낸 인물이었다.

옆에서는 말벗인 안투아네트 양이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오귀스트 수녀는 침대를 데우고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다.

“안투아네트 아가씨, 제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갈게요.”

“네, 오귀스트 수녀님.”

"그리고 잊지 마세요. 주방장이 휴가를 갔고, 이 저택에는 아가씨와 하인만 남아 있다는 사실을요."

"남작님 일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약속대로 옆방에서 잠을 자고, 문도 열어둔 채로 둘 테니까요."

수녀가 자리를 떴다. 잠시 후, 하인 샤를이 명령을 받기 위해 들어왔다. 남작은 이미 깨어 있었다. 그는 직접 대답했다.

"샤를, 지시는 언제나 똑같아. 네 방의 전기 벨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첫 벨 소리가 울리면 곧장 내려가 의사에게 달려가."

"장군께서는 늘 걱정이 많으십니다."

"몸이 좋질 않아…… 영 좋질 않군. 자, 안투아네트 양, 우리 독서는 어디까지 했지?"

"남작께서 침대에 안 들어가시나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주 늦게 자고, 더구나 나한테는 누군가 필요 없어."

스무 분 뒤, 노인은 다시 잠들었고 안투아네트는 발끝으로 살며시 발걸음을 옮겨 자리를 떴다.

그때 샤를은 평소처럼 1층의 모든 덧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마당으로 나가는 문에 빗장을 걸었고, 현관에서는 양쪽 문 사이에 안전 사슬을 걸어 고정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워 잠들었다.

약 한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그는 벌떡 일어났다. 종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다. 그 소리는 길게, 그리고 차분하게 끊이지 않고 7초에서 8초가량 계속되었다.

'좋아,' 샤를은 정신을 차리며 생각했다. '남작님의 또 다른 변덕이군.'

그는 옷을 서둘러 입은 뒤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다. 문 앞에 서서 습관처럼 노크를 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라, 불이 꺼졌네. 도대체 왜 불을 껐을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아가씨?"

대답은 없었다.

"거기 계세요, 아가씨? 무슨 일입니까? 남작님이 편찮으신가요?"

주변은 고요하기만 했다. 그 침묵은 점점 무거워져 그를 압박했다. 그는 두 걸음 앞으로 나섰다. 발이 의자에 부딪혔다. 손으로 만져 보니 의자가 넘어져 있었다.

그가 주위를 더듬어 보니 바닥에는 다른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작은 원탁, 병풍. 불안해진 그는 벽 쪽으로 돌아갔다. 손으로 더듬으며 전기 스위치를 찾았다. 손끝이 스위치를 건드리자, 그는 그것을 돌렸다.

방 한가운데, 책상과 거울장 사이에 그의 주인 오트레크 남작의 시체가 누워 있었다.

"이럴 수가!…… 정말인가?" 그가 더듬거렸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꼼짝도 못 한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응시했다. 의자가 넘어져 있고, 거대한 수정 촛대가 천 조각으로 부서져 있으며, 벽난로 대리석 위에 시계가 쓰러져 있다. 모두 처참하고 야수적인 싸움을 방증하는 흔적들이었다.

시체 근처에는 강철 스타일렛 칼자루가 빛나고 있었다. 칼날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다. 매트리스 옆으로는 붉은 얼룩이 번진 손수건이 늘어져 있었다.

샤를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시신이 마지막 힘을 짜내며 몸을 팽팽하게 당기더니, 다시 오그라들었다. 두세 번 경련을 일으키고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몸을 숙여 살펴봤다. 목의 작은 상처에서 피가 솟구쳐 카펫 위에 검은 얼룩을 만들었다. 얼굴에는 미친 듯이 무서워하던 기색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누군가 그를 죽였어, 누군가 그를 죽였어." 그가 더듬거렸다.

그는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율했다. 말벗 아가씨가 옆방에서 자고 있지 않았던가? 남작을 죽인 살인자가 그녀까지 죽이지는 않았을까?

그가 문을 밀고 들어섰다. 방은 비어 있었다. 안투아네트가 납치되었거나, 아니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떠난 것이라고 그는 결론지었다.

남작의 방으로 돌아온 그는 시선을 책상 위로 옮겼다. 책상은 억지로 열린 흔적이 없었다.

더욱이 테이블 위를 보니, 남작이 매일 밤 놓아두던 열쇠 더미와 지갑 곁에 루이 금화가 한 줌 놓여 있었다. 샤를은 지갑을 집어 들고 주머니를 뒤적였다. 한쪽 주머니에는 지폐가 들어 있었다. 그는 지폐를 세어 보았다. 백 프랑 지폐가 열세 장이었다.

그러자 그는 참지 못했다. 본능적으로, 기계적으로, 손동작에 그의 의식조차 개입하지 못한 채, 그는 지폐 열세 장을 집어 옷 안주머니에 숨겼다.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가 빗장을 풀고, 사슬을 벗긴 뒤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정원으로 도망쳤다.

샤를은 정직한 사람이었다. 정문 철문을 미처 닫기도 전에, 탁 트인 바깥바람을 맞고 빗물에 얼굴이 씻기자 그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방금 저지른 행위가 있는 그대로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순간적인 혐오감에 사로잡혔다.

마차가 지나갔다. 그는 마부를 불러 세웠다.

"이보게, 경찰서로 곧장 가서 서장을 데려와 주게. 어서 말을 몰게! 사람이 죽었네."

마부가 말에게 채찍질을 했다. 하지만 샤를이 다시 들어가려 했을 때는 그럴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이 직접 대문을 잠가버렸는데, 대문은 밖에서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호텔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초인종을 눌러봤자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라 뮈에트 쪽으로 대로변에 잘 다듬고 가꾼 푸른 관목이 활기찬 울타리를 이루고 있는 이 정원들을 따라 거닐었다. 그리고 한 시간쯤 기다린 끝에야 그는 마침내 경찰서장에게 범죄의 세세한 정황을 설명하고 지폐 열세 장을 건넬 수 있었다.

그 사이, 사람들이 열쇠공을 불렀고, 그는 애를 많이 써서 겨우 정원의 대문과 현관 문을 열어냈다. 경찰서장이 올라가서는 곧바로, 한눈에 상황을 파악하고 하인에게 말했다.

"어이쿠! 방이 엉망진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돌아섰다. 샤를은 문턱에 발이 묶인 듯, 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모든 가구가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두 창문 사이에는 작은 원탁이 서 있었고, 의자들은 똑바로 세워졌으며, 벽난로 위에는 시계가 놓여 있었다. 촛대의 파편들도 사라졌다.

그는 놀람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간신히 말을 이었다.

"시체…… 남작님이……"

"그런데," 경찰서장이 외쳤다. "피해자는 어디에 있소?"

그는 침대로 다가가 커다란 천을 걷어냈다. 그 아래에는 베를린 주재 프랑스 전 대사였던 오트레크 남작 장군이 누워 있었다. 장군 외투가 그의 시신을 덮고 있었고, 거기에는 훈장이 달려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다. 눈은 감겨 있었다.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누군가 왔습니다."

"어디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없는 동안 누군가 들어왔어요. 보세요, 저기 바닥에 아주 가느다란 강철 단검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책상 위에는 피 묻은 손수건이……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조리 치워 버렸어요. 모든 걸 제자리에 정리해 놓았죠."

"그런데 도대체 누가?"

"살인자 말입니다!"

"우리는 문이 모두 잠겨 있는 걸 확인했소."

"그가 호텔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도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도 안에 있을 거요."

하인은 생각에 잠긴 듯 천천히 말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울타리 근처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남작 곁에서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누구였소?"

"앙투아네트 양입니다. 말동무죠."

"그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 생각엔, 그 여자의 침대가 흐트러진 흔적조차 없으니, 오귀스트 수녀님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녀도 나갔을 겁니다. 절반쯤은 놀랄 일도 아니죠. 그 여자는 예쁘고…… 젊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나갔다는 거죠?"

"문으로요."

"빗장을 지르고 사슬도 걸어 놓았잖소!"

"그건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그 무렵엔 그녀가 이미 호텔을 떠났을 테니까요."

"그럼 살인은 그녀가 떠난 뒤에 일어났다는 거요?"

"당연하죠."

수사대는 다락방부터 지하실까지 집안을 위아래로 샅샅이 뒤졌지만, 범인은 이미 달아난 뒤였다. 어떻게? 어느 순간에? 사건 현장으로 되돌아가 자신에게 불리할 만한 모든 것을 없애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자는 범인 본인이었을까, 아니면 공범이었을까? 바로 이런 것들이 사법당국에 제기된 의문이었다.

일곱 시에 법의관이 도착했다. 여덟 시에는 치안국장이 왔다. 이어서 공화국 검사와 예심판사가 차례로 도착했다. 호텔 안은 또 경관들, 형사들, 기자들, 오트레크 남작의 조카와 그 밖의 가족들로 북적였다.

수색이 이루어졌고, 샤를의 기억을 바탕으로 시신의 위치를 살폈으며, 오귀스트 수녀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를 심문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기껏해야 오귀스트 수녀가 앙투아네트 브레아의 실종을 의아해하는 정도였다. 그녀는 열이틀 전 훌륭한 추천서를 믿고 그 처녀를 고용했던 터라, 맡겨진 환자를 버려두고 한밤중에 혼자 나돌아다녔으리라고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판사가 덧붙였다.

"더구나 그런 경우라면, 그녀는 이미 돌아와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과 같은 지점으로 되돌아오는군요. 그녀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제 생각엔," 샤를이 말했다. "살인자가 그녀를 납치한 겁니다."

이 추측은 그럴듯했고 일부 정황과도 일치했다.

치안국장이 말했다.

"납치? 글쎄,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는 아니군."

"있을 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목소리가 말했다. "사실과도, 조사 결과와도, 한마디로 명백한 사실 그 자체와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말입니다."

목소리는 거칠고 어조는 퉁명스러웠다.

가니마르임을 알아챘을 때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게다가 그런 다소 거침없는 화법을 너그러이 봐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뿐이었다.

"아니, 당신이군요, 가니마르?"

뒤두이 씨가 외쳤다.

"거기 있는 줄 몰랐소."

"두 시간이나 기다렸소."

"당신은 514번, 23번 시리즈의 티켓이 아닌 사건, 클라페용 거리 사건, 금발의 여자와 아르센 뤼팽의 일에 관심을 두는군요?"

"에이, 에이." 노형사가 비웃듯 말했다. "뤼팽이 우리 현재 사건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소. 하지만 당분간은 복권 티켓 이야기는 접어두고, 무슨 일인지 말해 보시오."

가니마르는 세상에 이름을 남길 만한 대범한 형사가 아니다. 그의 수사 방식이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지도, 그의 이름이 사법 연감에 기록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에게는 뤼팽이나 레코, 그리고 셔록 홈즈를 빛나게 했던 천재적인 영감 같은 것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평범함을 지녔다. 예리한 관찰력, 통찰력, 끈기, 심지어 직관까지도 갖추고 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절대적인 독립성이다. 아르센 뤼팽이 그에게 미치는 묘한 매혹이 있을지언정, 그 외의 어떤 것도 그를 흔들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쨌든 이 일에서 그의 역할은 빛나지 않았던 적이 없으며, 그의 협력은 판사가 높이 살 만한 것이었다.

"먼저, 샤를 씨, 한 가지만 분명히 해 주시겠소?" 그가 말을 시작했다. "처음에 당신이 뒤섞이거나 넘어져 있던 채로 본 물건들이, 두 번째로 돌아왔을 때 정확히 제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군요. 그 물건들을 제자리에 다시 둘 수 있었던 사람은 물건 하나하나의 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이 말은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가니마르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더 묻겠소, 샤를 씨. 당신은 초인종 소리에 깨어났소. 당신 생각엔 누가 당신을 부른 것 같소?"

"물론 남작님이시죠."

"좋소. 하지만 언제 울렸을까요?"

"싸움 이후, 죽어가던 순간에."

"그건 불가능해요. 당신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의식이 없었고, 호출 버튼에서 네 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그럼, 싸우는 도중에 초인종을 울렸다는 말씀이군요."

"말도 안 됩니다. 초인종은 규칙적으로 울렸다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소. 그를 습격한 자가 그렇게 느긋하게 초인종을 울릴 틈을 주었겠습니까?"

"그럼, 공격받기 직전에 울렸다는 뜻이군요."

"역시 불가능합니다. 초인종 신호가 울린 순간부터 당신이 방에 들어선 순간까지 길어야 3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당신이 말했잖소. 그러니 남작이 그전에 울렸다면, 싸움과 살해, 마지막 숨, 그리고 도주까지 그 짧은 3분 안에 모두 벌어졌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심판사가 말했다. "누군가 초인종을 울린 건 분명하오. 남작이 아니라면 누구란 말이오?"

"살인자입니다."

"무슨 목적에서?"

"그가 무엇을 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초인종을 울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초인종이 하인 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음이 증명됩니다. 그런 세부 사항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집안 사람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추측의 범위는 좁혀졌다. 가니마르는 빠르고 명확하며 논리적인 짧은 문장들로 쟁점을 정확한 지점으로 옮겨 놓았다. 노형사의 생각이 또렷이 드러나자, 예심판사가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였다.

"간단히 말해, 당신은 앙투아네트 브레아를 의심하는군요."

"저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고발하는 겁니다."

"공범으로 고발한다는 거요?"

"오트레크 남작 장군을 살해한 혐의로 고발합니다."

"무슨 소리요! 무슨 증거로?……"

"피해자의 오른손에, 그것도 손톱 끝이 파고든 살 속에서 제가 발견한 이 머리카락 한 줌입니다."

그가 그 머리카락을 들어 보였다. 눈부신 금발로, 금실처럼 환하게 빛났다.

샤를이 중얼거렸다.

"앙투아네트 양의 머리카락이 맞습니다. 틀릴 리가 없어요."

그가 다시 덧붙였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 칼…… 두 번째에는 보이지 않던 그 칼…… 역시 그녀의 것이었을 겁니다. 책장을 자를 때 쓰던 거였거든요."

침묵이 길고 무겁게 이어졌다. 마치 그 범죄가 여자의 손으로 저질러졌다는 사실에 더 큰 공포를 띠는 듯했다.

예심판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최소한 더 확실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는, 남작이 안투아네트 브레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치자. 하지만 여전히 설명해야 할 점이 있다. 그

녀가 범행 후 어떤 경로로 빠져나왔는지, 샤를 씨가 떠난 뒤 다시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경찰서장이 도착하기 전 또다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말이다. 가니마르 씨, 이에 대한 견해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럼?"

가니마르 형사는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결국 그는 뚜렷한 고뇌를 드러내며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사건이 514-23번 수표 사건에서와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즉, '사라지는 능력'이라 부를 수 있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안투아네트 브레에가 이 저택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방식은, 아르센 뤼팽이 드티낭 씨 댁에 침입해 금발의 여인과 함께 탈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두 가지 우연이 너무 기묘해서, 저도 모르게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투아네트 브레가 수녀 안주에게 고용된 지 딱 열이틀째입니다. 바로 '금발의 여인'이 제 손아귀에서 빠져나간 다음 날이었죠. 둘째로, 금발의 여인의 머리카락 색깔이 정확히 이 머리카락과 같습니다. 강렬한 빛깔에 금속광이 돌고, 금빛 반짝임이 섞여 있죠."

"즉, 안투아네트 브레가……"

"바로 그 금발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뤼팽이 두 사건을 모두 꾸몄다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믿습니다."

한바탕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형사국장이 재미있다는 듯 웃는 것이었다.

"뤼팽! 또 뤼팽이군! 뤼팽이 모든 곳에 숨어 있어. 뤼팽이 어디에나 있지!"

"그가 있는 곳에 있을 뿐입니다." 가니마르가 불쾌한 듯 단호하게 말했다.

"물건이 어디에 있을 만한 이유라도 있어야 하는 법이지." 뒤두아 씨가 말했다. "그런데 이 경우엔 그 이유가 도무지 명확하지 않아. 책상은 부서진 데가 없고, 지갑도 사라지지 않았어. 오히려 책상 위엔 금화가 남아 있단 말이야."

"맞아요." 가니마르 형사가 외쳤다. "하지만 그 유명한 다이아몬드 말입니다."

"어떤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프랑스 왕관의 일부였던 그 유명한 보석요. 드 A 공작이 레오니드 L에게 선물했고, 레오니드 L이 죽자 오트레크 남작이 자신이 열렬히 사랑했던 뛰어난 여배우를 기리기 위해 다시

사들인 보석이죠. 저 같은 늙은 파리 토박이에게 그런 추억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블루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모든 게 설명되지." 예심판사가 말했다. "하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남작님 손가락에요." 샤를이 대답했다. "블루 다이아몬드는 남작님의 왼손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손은 직접 확인했습니다." 가니마르가 시신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반지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손바닥 쪽을 보세요." 하인이 다시 말했다.

가니마르는 굳게 쥐고 있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펼쳤다. 반지의 알이 안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그 알 한가운데에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젠장." 가니마르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군."

"그럼 이 가엾은 뤼팽을 용의자로 의심하는 것도 포기하시겠지요?" 뒤두아 씨가 비웃듯 말했다.

가니마르는 잠시 뜸을 들이며 생각에 잠기더니, 단정 짓듯 받아쳤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아르센 뤼팽을 의심하는 법이지."

이것이 그 기묘한 살인 사건 다음 날, 사법부가 처음 내린 결론이었다. 하지만 그 결론은 모호했고 일관성이 없었으며, 그 뒤의 수사 과정에서도 명확한 실마리나 확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안투아네트 브레의 출몰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았다. 금발 여인의 행적도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바론 도트렉을 죽이고도 프랑스 왕실의 전설적인 보석을 손가락에서 훔치지 않은, 그 황금빛 머리의 신비한 여인이 정체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가 불러일으킨 호기심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살인을 넘어 거대한 음모로 부각시켰고, 그것은 여론을 한층 더 격앙시켰다.

오트레크 남작의 상속인들은 이런 홍보 덕분에 큰 이득을 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앙리 마르틴 대로에 있는 저택 바로 그곳에서, 드루오 경매장에서 팔릴 가구와 소품들을 전시하는 행사를 열었다.

전시된 가구들은 현대적이지만 미적 감각이 떨어졌고, 소품들 역시 예술적 가치가 없었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 석류석색 벨벳 받침대 위에는 한 가지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유리 덮개로 보호되고 두 명의 경관이 지키고 있던 그곳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있었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보석이었다. 거대했고, 순도 또한 비교할 데 없었다. 맑은 물이 하늘을 비추듯, 흰 린넨 사이로 엿보이는 듯한 그 알 수 없는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동시에 공포에 떨며 시체가 있던 방을 바라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카펫이 걷힌 마루 바닥,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불가능한 벽들을 응시했다. 범인이 그 두꺼운 벽을 뚫고 사라졌으니까.

사람들은 벽난로 대리석이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거울의 장식이 회전식 숨겨진 장치를 감추고 있지 않은지 일일이 확인했다. 그리고는 숨겨진 구멍이나 터널의 입구, 하수구나 카타콤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상상하며 두려워했다.

블루 다이아몬드의 경매는 드루오 경매장에서 열렸다. 사람들은 숨이 턱 막힐 듯 몰려들었고, 경매의 열기는 광기에 이를 만큼 고조되었다.

이 자리에는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만 모이는 파리의 명사들이 모두 모였다. 진짜 살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신이 살 수 있는 척 보이고 싶은 자들도 있었다. 증권가 사람들, 예술가들, 각계각층의 부인들, 그리고 두 명의 장관, 한 명의 이탈리아 테너, 망명 중인 한 왕이 있었다. 왕은 자신의 신용을 굳히기 위해, 사치스럽게도 당당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십만 프랑까지 값을 올렸다.

십만 프랑! 그는 그 정도는 부담 없이 부를 수 있었다. 이탈리아 테너는 십오만 프랑을, 코메디 프랑세즈의 단원은 십칠만 오천 프랑을 불렀다.

하지만 이십만 프랑에 이르자, 입찰에 참여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다. 이십오만 프랑까지 올랐을 때는 겨우 두 사람만 남았다. 바로 유명한 금융가이자 금광의 왕이라 불린 헤르슈만,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보석 수집으로 이름 높은 갑부 미국인 크로존 백작부인이었다.

"이십육만… 이십칠만… 이십칠만 오천… 이십팔만…" 경매를 주관하는 위원이 두 경쟁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값을 불러 나갔다. "이십팔만 프랑, 부인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삼십만 프랑." 헤르슈만이 낮게 중얼거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크로존 백작부인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서 있었다. 미소 띤 얼굴이었지만, 창백한 기색이 마음의 동요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앞 의자의 등받이에 기대어 섰다.

사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참석자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대결의 결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결과는 금융가에게 유리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변덕은 5억 프랑이 넘는 막대한 재산이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입을 열었다.

"삼십만 오천 프랑."

또다시 침묵이 감돌았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광산의 왕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필연적인 추가 입찰을 기대하면서. 그 입찰은 분명히, 강력하고도 거칠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헤르슈만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오른손은 종이 한 장을 꼭 쥐고 있었고, 왼손은 찢긴 봉투 조각들을 쥐고 있었다.

"삼십만 오천 프랑, 다시 묻습니다. 한 번? 두 번? 아직 시간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한 번? 두 번?"

헤르슈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망치가 떨어졌다.

"사십만!" 헤르슈만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망치 소리가 그를 몽롱함에서 깨운 듯했다.

이미 늦었다. 낙찰은 되돌릴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는 더 일찍 말하지 않았을까?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일이냐고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정신이 딴 데 가 있었나 봐요."

"그럴 수가 있나요?"

"네, 맞아요. 누군가 제게 건넨 편지였죠."

"그 편지 하나가…"

"제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순간적으로요."

가니마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반지 경매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곁에 있던 직원 한 명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이 헤르슈만 씨에게 편지를 건넨 사람 맞죠?"

"누구한테서 받은 거냐고요?"

"어떤 부인한테서요."

"그 부인은 어디 있나요?"

"어디 있냐고요?… 저기요, 선생님, 저 멀리… 두꺼운 베일을 쓴 저 부인이요."

"지금 떠나는 저 사람?"

"네."

가니마르는 문 쪽으로 돌진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는 그 부인을 발견하고 뒤쫓아 달렸다. 하지만 입구 근처에서 몰려든 군중이 그를 막아섰다. 밖으로 나가자, 그는 더 이상 그 부인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헤르슈만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한 뒤, 그 편지에 대해 물었다. 헤르슈만은 편지를 건넸다. 연필로 급하게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 필체는 금융가가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블루 다이아몬드는 불운을 부른다. 오트레크 남작을 기억하라."

블루 다이아몬드의 수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미 오트레크 남작 살해 사건과 드루오 경매장에서의 소동으로 이름을 알린 이 보석은, 여섯 달 뒤 마침내 큰 명성을 얻게 된다. 이듬해 여름, 크로존 백작부인은 애써 손에 넣었던 그 귀중한 보석을 도둑맞았다.

이 흥미진진한 사건을 요약해 보자. 감동적이고 극적인 전개는 우리 모두를 열광시켰다. 그리고 이제야 나는 이 사건에 약간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었다.

8월 10일 저녁, 크로존 부부의 손님들은 솜 만을 내려다보는 그 웅장한 성의 살롱에 모여 있었다. 음악회가 열렸다. 백작 부인은 피아노 앞에 앉으며 악기 옆 작은 탁자 위에 자신의 보석들을 올려놓았는데, 그 중에는 오트렉 남작의 반지도 있었다.

한 시간이 지나자 백작이 물러났고, 그의 사촌인 당셀 형제도, 크로존 백작 부인의 친한 친구인 레알 부인도 함께 자리를 떴다.

이제 백작 부인 곁에는 오스트리아 영사 블라이헨 씨와 그의 부인만 남았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백작 부인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큰 램프 하나를 껐다. 동시에 블라이헨 씨도 피아노 옆의 램프 두 개를 끄고 있었다.

순간 어둠이 찾아왔고,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감돌았다. 그러자 영사가 촛불 하나를 켰고, 세 사람은 각자 숙소로 돌아갔다.

방에 돌아온 백작 부인은 문득 자신의 보석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시녀를 불러 보석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시녀가 돌아와 벽난로 위에 보석을 내려놓았지만, 부인은 그것들을 살펴보지 않았다.

다음 날, 크로존 백작 부인은 반지 하나가 사라졌음을 확인했다. 바로 푸른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였다.

그녀는 남편에게 알렸다. 두 사람의 결론은 즉각적이었다. 시녀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범인은 블라이헨 씨밖에 있을 수 없었다.

백작은 아미앵의 중앙경찰서장에게 알렸다. 서장은 즉시 수사를 개시했고, 오스트리아 영사가 반지를 팔거나 부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가장 철저한 감시망을 펼쳤다.

밤낮으로 요원들이 성을 에워쌌다.

두 주가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블라이헨 씨가 출발을 예고하자, 바로 그날 그를 고발하는 진정이 접수되었다. 경찰서장이 공식적으로 개입해 짐 수색을 지시했다. 영사가 한시도 열쇠를 손에

서 놓지 않던 작은 가방 안에서 비누 가루가 든 병이 나왔고, 그 병 속에 반지가 들어 있었다!

블라이헨 부인은 기절했다. 남편은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택한 방어 논리를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그는 반지가 그곳에 있게 된 경위를 크로존 백작의 복수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백작은 난폭하고 아내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 부인과 긴 대화를 나눴고, 이혼을 강하게 권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백작이 반지를 훔쳐 복수했고, 제가 떠날 때 화장도구 가방에 몰래 넣어둔 것입니다."

백작과 백작 부인은 단호하게 고발을 굽히지 않았다. 그들이 내놓은 설명과 영사의 해명은 둘 다 가능하고 둘 다 그럴듯했다. 대중은 그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사실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저울의 어느 한쪽도 기울지 않았다. 한 달간 이어진 수다와 추측, 조사도 단 하나의 확실한 단서조차 가져오지 못했다.

소음에 지친 크로존 부부는, 자신들의 고발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엉킨 실타래를 풀어줄 만한 파리 수사국 요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파견된 인물이 가니마르였다.

나흘 동안 늙은 수석 경위는 여기저기 캐묻고 수다를 떨고 정원을 거닐었다. 하녀와 운전기사, 정원사들, 인근 우체국 직원들과 길게 이야기를 나눴고, 블라이헨 부부와 당셀 사촌들, 그리고 레알 부인이 묵었던 처소를 둘러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자신을 맞아준 주인 부부에게 작별 인사조차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들은 이런 전보를 받았다.

'내일 금요일 저녁 5시에 보아시당글라스 거리의 일본식 찻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니마르.'

정확히 오후 5시, 금요일이었다. 그들의 자동차가 보아시당글라스 거리 9번지 앞에 멈춰 섰다.

보도에서 그들을 기다리던 늙은 경감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말없이 그들을 일본식 찻집 2층으로 데려갔다.

한 방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고, 가니마르가 그들을 소개했다.

"게르부아 씨입니다. 베르사유 고등학교 교수죠. 기억나시죠? 아르센 뤼팽이 이분에게서 50만 프랑을 훔쳐갔습니다."

"레옹스 도트렉 씨입니다. 오트렉 남작의 조카이자 전 재산 상속인이고요."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 몇 분 뒤 다섯 번째 인물이 들어왔다. 사법경찰청장이었다.

두두아 씨는 꽤 언짢은 표정이었다. 그는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가니마르? 경찰청에서 당신이 전화로 남긴 전갈을 받았소. 중요한 일이오?"

"아주 심각합니다, 청장님."

"한 시간도 채 안 되어, 제가 도왔던 최근 사건들이 여기서 결말을 맺을 겁니다. 청장님께서 꼭 와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출입문 근처에서 본 드루지와 폴랑방도 꼭 있어야 했고?"

"네, 청장님."

"무슨 일인가? 체포라도 하려는 건가? 무슨 연출이 이리 거창한가! 자, 가니마르, 들어보세."

가니마르는 잠시 망설이다가, 듣는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려는 기색이 역력하게 입을 열었다.

"우선, 블라이헨 씨는 반지 도난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오! 오!" 두두아 씨가 말했다. "그건 단순한 주장일 뿐이오… 게다가 아주 중대한 주장이고."

그러자 백작이 물었다.

"당신의 노력이 고작 그… 발견에 그치는 거요?"

"아니요, 백작님. 도난 사건 이틀 뒤, 자동차 여행에 나선 손님 세 분이 우연히 크레시 마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그 유명한 전적지를 둘러보러 간 사이, 나머지 한 분은 급히 우체국으로 가서 규정대로 끈으로 묶고 봉인한 작은 상자 하나를 부쳤습니다. 그러면서 100프랑 상당이라고 신고했지요."

크로존 백작이 반박했다.

"그건 전혀 이상할 게 없소."

"그렇다면 이 점은 좀 덜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분이 진짜 이름 대신 '루소'라는 이름으로 상자를 부쳤고, 수취인인 파리 거주 벨루 씨가 그 상자, 곧 반지를 받은 바로 그날 저녁에 이사를 가버렸다는 점 말입니다."

"혹시 당셀 쪽 제 사촌 중 한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거요?" 백작이 물었다.

"그분들과는 상관없소."

"그럼, 레알 부인 말인가?"

"네."

부인이 놀란 기색으로 외쳤다.

"당신이 내 친구인 레알 부인을 의심한다는 말씀입니까?"

"단순한 질문일 뿐입니다, 마담." 가니마르가 대답했다. "레알 부인이 블루 다이아몬드 경매에 참석했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끼리는 따로 행동했어요. 함께 있지 않았죠."

"그녀가 당신에게 반지를 사라고 권했습니까?"

부인이 기억을 더듬었다.

"네… 맞아요… 아마도 처음부터 그 반지 이야기를 꺼낸 것도 그녀였을 거예요."

"답변 기록하겠습니다, 마담. 레알 부인이 먼저 그 반지에 대해 말하고 구매를 권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절대…

"잠깐만요, 잠깐만요. 레알 부인은 그저 가끔 만나는 지인일 뿐, 신문에 실린 것처럼 가까운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부인이 그녀를 안 것도 지난겨울부터고요. 그런데 제가 장담컨대, 그녀가 자기 자신과 과거, 인간관계에 대해 한 말은

모조리 거짓입니다. 블랑슈 드 레알이라는 여자는 부인을 만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라뇨?" 가니마르가 되물었다.

"네, 이 모든 이야기가 참 기이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건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설령 레알 부인이 반지를 가져갔다 한들, 그것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지만, 어째서 그걸 블라이헨 씨의 치약 가루 속에 숨겼겠소? 도대체 말이 안 되오! 파란 다이아몬드를 애써 훔쳤다면 제 손에 간직하는 법이오.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겠소?"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레알 부인이 대답할 겁니다."

"그럼 그 여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이오?"

"그분은 존재하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죠.

삼 일 전, 제가 매일 읽던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트루빌의 외국인 명단 맨 위에 '보아리바주 호텔: 드 레알 씨 일동'이라는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당연히 그날 밤 저는 트루빌로 향했고, 보아리바주 호텔 지배인을 찾아갔습니다.

외모 묘사와 제가 수집한 몇몇 단서를 종합해 볼 때, 그 드 레알 여사가 제가 찾고 있던 분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호텔을 떠난 뒤였습니다. 대신 파리 소재 주소를 남겼죠. 콜리제 거리 3번지였습니다.

그저께 저는 그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드 레알 씨는 없더군요. 대신 레알 부인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층에 거주하며, 다이아몬드 중개업자로서 일하고 있었죠. 그녀는 종종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어제 저는 그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명을 사용해서 레알 부인에게, 고가의 보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개해 드릴 수 있다는 제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거래를 위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오후 5시 30분에요."

"그게 확실한가…?"

"크로존 성의 그 레알 부인이 맞느냐고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한데… 들어보세요… 폴랑방의 신호입니다…."

휘파람 소리가 한 번 울리자, 가니마르가 벌떡 일어났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크로존 백작 부부, 옆방으로 가 주십시오. 오트렉 씨도, 게르부아 씨도요. 문은 열어 두겠습니다. 첫 신호가 들리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부디 남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오면 어쩌지?" 두두아 씨가 물었다.

"오지 않습니다. 이 가게는 새로 생긴 곳이고, 주인이 제 친구라 누구도 위로 들이지 않을 겁니다… 금발 부인만 빼고요."

"금발 부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바로 금발의 여인 자신입니다, 상사님. 아르센 뤼팽의 공범이자 친구, 그 신비로운 금발의 여인을요. 저는 그녀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제가 여기 계신 당신 앞에서, 그녀에게 피해를 본 모든 이들의 증언을 모아 그녀를 단단히 묶어두려 합니다."

그는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저기 다가옵니다… 들어갑니다… 이제 도망칠 방법은 없습니다. 폴랑팡과 뒤지가 문을 지키고 있죠… 금발의 여인은 우리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상사님!"

거의 동시에 한 여인이 문턱에 멈춰 섰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 얼굴은 매우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강렬한 금빛이었다.

그런 충격을 받은 가니마르는 말문이 막혔다. 입에서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이다! 아르센 뤼팽을 이긴 승리라니! 그야말로 복수였다.

그런데 그 승리가 너무도 쉽게 이루어진 탓에, 가니마르는 의아해졌다. 뤼팽이 자주 저지르던 기적 같은 일로 인해, 금발의 여자가 다시금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들었던 것이다.

여자는 그 침묵에 놀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한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저 여자가 도망갈 거야! 사라져 버릴 거야!' 가니마르는 놀라 생각했다.

갑자기 그는 그녀와 문 사이에 몸을 끼워 넣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려 했다.

"아니요, 아니요. 왜 나가려 하세요?"

"하지만 도대체, 선생님, 당신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발 저를…"

"나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담. 오히려 남으셔야 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소용없습니다. 절대 나가실 수 없습니다."

그녀는 온통 하얗게 질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니마르가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금발 여자를 손아귀에 넣은 것이다. 그는 자신을 단단히 추스른 뒤, 또렷이 말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친구를 소개해 드립니다. 보석, 특히 다이아몬드를 사고 싶어 하더군요. 제가 약속했던 그 보석, 구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분명히 있습니다… 잘 떠올려 보세요… 아는 분이 색이 든 다이아몬드를 건네주기로 했었죠… '파란 다이아몬드 같은 것 말입니다' 하고 제가 웃으며 말하자, 당신은 이렇게 답했고요. '바로 그거예요, 어쩌면 원하시는 걸 구해 드릴 수 있겠네요.' 기억나시죠?"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손가방이 떨어졌다.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주워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손가락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자," 가니마르가 말했다. "보아하니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군요, 레알 부인. 제가 먼저 본을 보이죠. 제가 가진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치더니 머리카락 한 가닥을 내밀었다.

"우선 여기, 앙투아네트 브레아의 머리카락 몇 가닥입니다. 남작이 뽑은 것으로, 죽은 사람의 손에서 발견되어 수습된 것이죠. 제르부아 씨를 만났는데, 그분이 금발 여인의 머리카락 색깔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당신 머리카락과 같은 색이더군요… 완전히 똑같은 색입니다."

레알 부인은 멍한 표정으로, 마치 그의 말뜻을 정말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자, 이제 — 라벨도 없고 속도 비었지만 — 아직 향이 충분히 배어 있는 빈 향수병 두 개를 보시죠. 오늘 아침 제르부아 씨가 이 향수병에서 두 주 동안 함께 여행했던 그 금발 여인의 향수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향수병 중 하나는 크로종 성에서 레알 부인이 묵던 방에서, 다른 하나는 보아리브아주 호텔에서 당신이 묵던 방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금발 여인이라니… 크로종 성이라니…"

형사는 대답하지 않고 책상 위에 종이 네 장을 늘어놓았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이 네 장의 종이에는 앙투아네트 브레아의 필체 견본, 그리고 파란 다이아몬드 거래 당시 에르슈만 남작에게 편지를 쓴 여인의 필체, 크로종에 머물 때 레알 부인의 필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당신, 마담의 필체가 있습니다. 트루빌의 보아리브아주 호텔 문지기에게 당신 이름과 주소를 적어 준 것이 바로 당신이니까요. 자, 네 필체를 비교해 보십시오. 모두 똑같습니다."

"하지만 당신 미쳤군요, 선생님! 미쳤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립니까?"

"이건, 마담," 가니마르가 크게 몸짓하며 외쳤다. "아르센 뤼팽의 친구이자 공범인 '금발의 여인'이 다름 아닌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옆 거실 문을 밀고 들어가 제르부아 씨에게 달려들더니, 그의 어깨를 떠밀어 레알 부인 앞으로 끌고 갔다.

"제르부아 씨, 당신의 딸을 납치한 사람, 그리고 데티낭 씨 댁에서 목격한 그 인물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말에 방 안이 요동쳤다. 모든 사람이 그 충격에 휩싸였다. 가니마르 형사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잘 생각해 본 결과입니다……. 그 부인은 금발의 여인처럼 머리가 곱고, 얼굴도 창백하지만, 외모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오해는 있을 수 없어요……. 오트렉 씨, 당신이 본 안투아네트 브레와가 맞습니까?"

"내 삼촌 댁에서 안투아네트 브레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부인은 레알 부인도 아닙니다." 크로종 백작이 단언했다.

이것은 결정타였다. 가니마르 형사는 어안이 벙벙해져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만 피했다. 그가 짜놓은 모든 계산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계획은 온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두두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마담. 유감스러운 혼선이 있었으니 잊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신의 동요… 이곳에 오신 뒤로 보이신 기이한 태도입니다."

"어머, 선생님, 무서웠거든요. 제 가방 안에는 십만 프랑이 넘는 보석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당신 친구분의 태도가 도무지 안심할 만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자꾸 자리를 비우신 것은요?…"

"그게 제 직업상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두두아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는 부하를 돌아보며 말했다.

"가니마르, 자네는 너무 경솔하게 정보를 수집했네. 게다가 방금 마담에게 보인 태도도 더없이 서툴렀어. 내 사무실로 와서 해명하게."

면담은 끝났고, 보안국장이 막 떠나려던 참에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레알 부인이 형사에게 다가와 말했다.

"성함이 가니마르 씨라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안 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 편지는 당신 것이겠군요.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겉봉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레알 부인 댁 전교, 쥐스탱 가니마르 귀하.' 저는 그 이름으로 당신을 알지 못해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 알 수 없는 발신인은 분명 우리 약속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이상한 직감에 사로잡힌 쥐스탱 가니마르는 편지를 낚아채 없애 버릴 뻔했다. 하지만 상사 앞이라 감히 그러지 못하고 봉투를 뜯었다. 편지에는 그가 간신히 알아들을 만한 낮은 목소리로 읽어 내려간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옛날 옛적, 금발의 여인 한 명과 뤼팽, 그리고 가니마르가 살았습니다. 나쁜 가니마르는 그 예쁜 금발 여인에게 해를 끼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착한 뤼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착한 뤼팽은 금발의 여인이 크로손 백작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주선했습니다. 그를 위해 여인은 '르알 씨'라는 가명을 쓰게 했습니다. 이 이름은 머리카락이 금빛이고 얼굴이 창백한, 정직한 상인 부인의 이름과 거의 같았습니다.

뤼팽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나쁜 가니마르가 금발 여인을 쫓고 있다면, 그를 정직한 상인 부인의 흔적으로 오도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이것은 현명한 방비였고, 제대로 먹혔습니다.

가니마르가 일하는 신문으로 보낸 작은 메모, 보아리브아주 호텔에서 진짜 금발 여인이 고의로 남긴 향수 병, 그리고 호텔 등록부에 진짜 여인이 적어둔 '르알 씨'의 이름과 주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술수가 된 것입니다.

어때, 가니마르?

너의 영리함을 믿고 이 일을 자세히 들려주려 했다. 너라면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웃어 넘길 테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꽤 재미있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 일에 미치도록 즐거움을 느꼈다.

"그러니 고맙네, 친구. 그리고 그 훌륭한 두두아 씨에게도 안부 전해주게."

"하지만 저자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가니마르가 신음했다. 웃을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알고 있다니. 내가 국장님더러 와 달라고 청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첫 번째 향수병을 발견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는 발을 동동 구르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더없이 비극적인 절망에 사로잡혔다.

두두아 씨는 그가 가여웠다.

"자, 가니마르, 너무 상심 말게. 다음번엔 더 잘해 보세."

그러고는 보안국장이 레알 부인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십 분이 흘렀다. 가니마르 형사는 뤼팽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한쪽 구석에서는 크로종 부부와 오트렉 씨, 제르부아 씨가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마침내 백작이 형사 쪽으로 다가와 말했다.

"이 모든 일로 결국, 선생, 우리는 전과 조금도 나아진 게 없군요."

"천만에요. 제 수사로 금발 여인이 이 사건들의 틀림없는 주인공이며, 뤼팽이 그녀를 조종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엄청난 진전이죠."

"그런데 아무 쓸모가 없군요. 어쩌면 문제는 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금발 여인은 파란 다이아몬드를 훔치려고 사람을 죽였는데, 정작 훔치지는 않았어요. — 훔쳤다 해도, 그건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처분해 버리기 위해서고요."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누군가는 어쩌면 할 수 있을지도…"

"무슨 말씀이신가요?"

백작은 망설였다. 하지만 백작부가 나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다음으로, 오직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뤼팽과 맞서서 그를 굴복시킬 수 있을 거예요. 가니마르 형사, 우리가 헐록 숌즈의 도움을 청해도 괜찮을까요?"

그는 당황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일들이 제게는 너무 짜증납니다. 저는 명확한 진실을 보고 싶어요. 제르부아 씨와 드오트렉 씨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영국 탐정의 도움을 받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마담." 가니마르 형사가 말했다. 그 솔직함에는 어느 정도 칭찬할 만한 데가 있었다. "늙은 가니마르로는 아르센 뤼팽과 맞서 싸우기 어렵습니다. 헐록 숌즈라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를 무척 존경하니까요. 하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말씀인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헐록 숌즈와 아르센 뤼팽의 대결은 이미 결판이 난 싸움이라고 봅니다. 영국인이 질 겁니다."

"어쨌든, 그가 당신의 도움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마담. 제 협조는 조건 없이 보장됩니다."

"그의 주소를 아십니까?"

"네, 파커 스트리트 219번지입니다."

그날 저녁, 크로존 부부는 블라이헨 영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그리고 헐록 숌즈 앞으로 보내는 공동 서한이 작성되었다.

제3장

"이쪽 분들은 무엇을 원하시오?"

"당신 마음대로요." 뤼팽이 대답했다. 음식 같은 사소한 일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퉁명스러운 어조였다. "다만 고기나 술은 빼고."

종업원은 비웃는 듯이 돌아섰다.

나는 외쳤다.

"또 채식주의자라니요?"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죠." 뤼팽이 단언했다.

"취향 때문이오? 신념 때문이오? 아니면 습관 때문이오?"

"건강 때문이오."

"그리고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은 없소?"

"오, 있죠. 사교계에 나갈 때는요.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북역 근처, 아르센 뤼팽이 나를 불러낸 작은 식당 구석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는 이따금 아침에 전보로 파리 어딘가에서 만나자고 나를 부른다.

그는 늘 그 자리에 나타나면 끝없는 활기로 가득 차 있다. 삶의 기쁨에 차 있고, 소탈하며, 사람 좋고 천진한 모습이다. 그리고 늘 뜻밖의 일화나 추억, 내가 알지 못했던 모험담을 들려준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더 들떠 보였다. 그는 유난한 활기로 웃고 떠들었고, 그 특유의, 쓴맛 없이 가볍고 자연스러운 섬세한 아이러니를 던졌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은 즐거웠고, 나는 그 흐뭇함을 감추지 못하고 그에게 털어놓았다.

"맞아요! 제가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날은 모든 것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제 안에 무한한 보물 같은 생명이 넘쳐서 결코 다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수를 세지 않고 삽니다."

"아마도 너무 많이."

"내 보물은 무한하단 말이야! 나는 나를 마음껏 쓰고 소진할 수 있어. 내 힘과 젊음을 사방에 날려버려도 상관없지. 그건 더 강하고 더 젊은 힘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일이니까."

"게다가 정말이지, 내 인생은 너무도 아름다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무엇이든 될 수 있겠지. 연설가든, 공장 사장이든, 정치인이든 말이야."

"하지만 나는 맹세코,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떠오른 적이 없어. 나는 아르센 뤼팽이고, 앞으로도 아르센 뤼팽으로 남을 거야. 그리고 역사 속에서 내 운명에 견줄 만한, 이보다 더 충만하고 더 강렬한 운명을 아무리 찾아봐도 헛수고였지."

"나폴레옹! 그래, 어쩌면…… 하지만 그것도 제정 말기, 프랑스 전역(戰役) 동안, 유럽이 그를 짓누르고 매 전투마다 이것이 자신이 치르는 마지막 전투가 아닐까 자문하던 그 시절의 나폴레옹이라면 모를까."

그는 진지한 걸까, 농담을 하는 걸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달아올랐고, 그는 말을 이었다.

"모든 게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위험'이죠. 끊이지 않는 위험의 기운 말입니다. 숨 쉬는 공기처럼 위험을 들이마시며, 주변에서 그것이 어떻게 몰아치고 포효하며 엿보고 다가오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 한가운데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끝장입니다.

그런 느낌만큼 짜릿한 건 없습니다. 자동차 경주에서 운전자가 느끼는 그 느낌처럼요. 하지만 경주는 한나절이면 끝납니다. 제 경주는 평생을 갑니다."

"대단한 격정이군요!" 내가 외쳤다. "그러면서 당신은 특별히 흥분할 만한 이유가 따로 없다고 나를 믿게 하려는 거군요!"

그가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당신은 통찰력 있는 심리학자군요. 사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는 시원한 물을 한 잔 가득 따라 마시고는 나에게 말했다.

"오늘 자 <르 탕>을 읽었소?"

"글쎄요, 아니요."

"헐록 숌즈가 오늘 오후 라망슈 해협을 건너 여섯 시쯤 도착했을 겁니다."

"이런! 왜죠?"

"크로존 부부와 오트렉의 조카, 제르부아가 그에게 마련해 준 짧은 여행이죠. 그들은 북역에서 만나 거기서 가니마르와 합류했습니다. 지금쯤 여섯 명이 다 함께 의논하고 있을 겁니다."

나는 그에게 막대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지만, 뤼팽이 먼저 꺼내기 전까지는 그의 사생활에 관한 행적을 묻는 용기를 내지 않는다. 이는 내가 지키는 예의이며,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다.

게다가 그 시점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푸른 다이아몬드' 사건과 관련해 그의 이름이 오르내린 적도 없었다. 나는 참았다. 그러자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르 탕>은 그 훌륭한 가니마르의 인터뷰도 함께 실었더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제 친구라는 어떤 금발 여인이 오트렉 남작을 살해하고 크로존 부인에게서 그 유명한 반지를 빼돌리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는 제가 이 악행들의 배후라고 몰아세우고 있죠."

가벼운 전율이 나를 훑고 지나갔다. 정말일까? 도둑질이라는 습관과 그의 삶의 방식, 그리고 사건들의 논리 그 자체가 이 사람을 끝내 범죄로까지 몰고 갔다고 믿어야 하는 걸까?

나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너무도 평온해 보였다. 눈빛은 정직하기 그지없었다.

그의 손을 자세히 살폈다. 손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다. 정말 누구도 해치지 않을, 예술가의 손 같았다.

'가니마르가 망상증에 걸린 거야.' 내가 중얼거렸다.

그가 반박했다.

"아니, 아니. 가니마르는 날카로워. 때로는 영리하기도 해."

"영리하다고?"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 이 인터뷰는 일종의 명수입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영국 라이벌이 도착한다고 알리며 저를 경계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숌즈의 작업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그가 사건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정확한 지점을 명시함으로써, 헐록 숌즈가 오직 자신의 발견에만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이는 정당한 전술입니다."

"어쨌든, 이제 당신은 두 명의 강력한 적수를 맞닥뜨리게 되었군요. 정말 대단한 상대들입니다."

"아, 한 명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요?"

"숌즈? 음, 이 상대는 만만치 않군.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나를 열광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첫째, 자존심 문제야. 나를 이기려면 그 유명한 영국인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들 보니까. 둘째, 생각해 봐. 나 같은 승부사가 헐록 숌즈와 벌이는 결투에서 느낄 기쁨을 말이야. 마지막으로, 나는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 양반을 잘 알거든. 그는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

"그는 강해."

"매우 강해. 형사로서 그와 같은 사람은 일찍이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봐. 다만 나에게는 그보다 유리한 점이 하나 있지. 그는 공격하고 나는 방어한다는 점이야. 내 역할이 더 수월하지. 게다가……"

그가 어렴풋이 미소 지으며 말을 맺었다.

"게다가 나는 그가 싸우는 방식을 알지만, 그는 내 방식을 모른다. 나는 그를 고민에 빠뜨릴 비장의 한 수 몇 가지를 숨겨 두었지……"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툭, 툭 두드리며 기쁜 듯 짧은 말들을 내뱉었다.

"아르센 뤼팽 대 헐록 숌즈…… 프랑스 대 영국…… 드디어 트라팔가르의 원수를 갚게 되는군! 아, 불쌍한 놈…… 그는 내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 게다가 미리 대비한 뤼팽이라니……"

그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기침이 터져 나오자 얼굴을 식탁보로 감쌌다. 무언가 잘못 삼킨 사람처럼.

"빵 부스러기라도 걸렸나요? 물을 좀 마셔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는 숨 막힌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뭐가 문제죠?"

"공기가 필요해."

"창문을 열어줄까요?"

"아니요, 나가야 해요. 빨리 외투와 모자를 주세요. 급하게 가야 합니다."

"어? 도대체 무슨 뜻이죠?"

"지금 들어온 두 분 중, 키가 큰 그분 말입니다. 나가실 때 제 왼쪽으로 걸으세요. 그래야 그분이 제 모습을 보지 못할 테니까요."

"당신 뒤에 앉는 그분요?"

"그분 맞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 밖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란 말이죠?"

"헐록 숌즈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요가 부끄럽기라도 한 듯 안간힘을 쓰며 마음을 다잡더니, 냅킨을 내려놓고 물을 한 잔 들이켰다. 그리고 완전히 평정을 되찾은 채 미소 지으며 나에게 말했다.

"재미있죠? 저는 보통 쉽게 동요하지 않는데, 이 뜻밖의 만남이라니……"

"변신으로 정체를 숨기는데, 누가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겠어요? 제가 당신을 다시 만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사람과 마주한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저 사람은 저를 알아볼 겁니다." 아르센 뤼팽이 말했다. "저 사람은 저를 단 한 번만 보았지만, 그는 저를 평생 따라다닐 눈으로 보았어요. 변신할 수 있는 겉모습이 아니라, 저라는 존재 자체를 꿰뚫어 본 거죠. 그리고……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뭐라 할까, 기묘한 인연이랄까…… 그 작은 식당이요."

"그럼요." 내가 말했다. "나갈까요?"

"아니요…… 아니요."

"무엇을 하실 건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요, 그럴 생각이에요." 그가 말을 이었다. "게다가 그를 심문해서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내면 제게 이로울 테고요. 아! 저기, 그의 시선이 제 목덜미며 어깨에 머무는 것 같아요…… 뭔가 찾는 듯…… 기억해내려는 듯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의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어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는 상황의 필요라기보다 타고난 즉흥적 기질의 변덕에 이끌린 듯,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홱 몸을 돌리더니 기쁜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런 우연이! 정말 너무나 운이 좋군요. 제 친구를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두 순간 영국인은 당황한 기색이었으나, 곧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당장이라도 아르센 뤼팽에게 달려들 태세였다. 뤼팽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잘못된 판단이시군요. 더구나 그 짓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영국인이 안절부절못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구원이라도 기다리는 눈치였다.

"그것도 아니에요." 뤼팽이 말했다. "게다가 당신이 저를 체포할 권리가 정말 있는지 확신하십니까? 자, 우아하게 행동하세요."

이때 '우아하게 행동한다'는 건 그리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영국인은 아마도 이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듯했다. 그는 반쯤 몸을 일으키며 차갑게 소개했다.

"제 친구이자 협력자인 윌슨 씨입니다. — 아르센 뤼팽 씨."

윌슨의 경악은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그의 눈은 동그래졌고 입은 쩍 벌어져, 윤기 나고 팽팽하게 당긴 사과처럼 빛나는 얼굴을 두 줄기 선으로 갈라놓았다. 그 얼굴 둘레에는 빗자루 같은 머리카락과 짧은 수염이 풀잎처럼 빽빽하고 힘차게 자라 있었다.

"윌슨,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들 앞에서 당혹감을 너무 못 감추는군요." 헐록 숌즈가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윌슨은 더듬거렸다.

"왜 그를 잡지 않으십니까?"

"윌슨, 그 신사가 문과 저 사이에, 그것도 문에서 단 두 발짝 떨어진 곳에 서 있다는 걸 못 봤습니까? 제가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할 틈도 없이 그는 벌써 밖으로 나가 있을 겁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뤼팽이 말했다.

그는 테이블을 빙 돌더니, 영국인이 문과 자기 사이에 오도록 자리에 앉았다. 이는 곧 자신을 영국인의 처분에 맡기는 셈이었다.

윌슨은 숌즈를 힐끗 보았다. 이 대담한 한 수를 감탄해도 되는지 확인하려는 눈치였다. 하지만 숌즈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여기!"

종업원이 달려왔다. 숌즈가 명령했다.

"소다와 맥주, 위스키를 가져다 줘."

평화가 체결된 셈이었다. 다음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말이다. 곧이어 네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헐록 숌즈는 평범한 남자였다. 나이는 오십 전후.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며 평생을 보낸 성실한 중산층 남자와 닮았다.

런던의 정직한 시민과 다를 바 없었다. 붉은빛이 도는 수염, 면도한 턱, 다소 둔중한 인상까지 모두 평범했다.

다름이라면 하나뿐이었다. 눈빛이었다. 그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고, 예리하며, 깊게 파고드는 듯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헐록 숌즈다. 직관과 관찰력, 선견지명과 기지로 무장한 일종의 괴상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세상은 마치 상상력이 낳은 가장 놀라운 두 형사 유형을 골라 섞어, 그보다 더 기묘하고 비현실적인 존재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할 정도다. 에드거 앨런 포의 더핀, 그리고 가보리오의 르코크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그의 활약상을 들으면, 사람들은 궁금해진다. 이 헐록 숌즈라는 인물은 사실 전설 속의 인물인가? 아니면 코난 도일 같은 위대한 소설가의 머릿속에서 살아 숨 쉬는 영웅으로 태어난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아르센 뤼팽이 그의 체류 기간에 대해 묻자, 그는 곧장 본론으로 대화를 돌렸다.

"제 체류 기간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뤼팽 씨."

"아하!" 상대가 웃으며 외쳤다. "만약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오늘 밤 당장 배를 타고 돌아가시라 청했을 텐데요."

"오늘 밤은 좀 빠르지만, 여드레나 열흘 뒤면……"

"그렇게 서두르시는군요?"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영국중국은행 절도 사건, 에클레스턴 부인 납치 사건 말입니다. 뤼팽 씨,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넉넉하죠, 블루 다이아몬드의 이중 사건에만 한정한다면요. 게다가 그 정도 시간은, 이 이중 사건의 해결로 당신이 제게 위험할 만큼 유리한 패를 쥐게 될 경우를 대비해 제가 미리 손을 써 두는 데 꼭 필요한 기간이기도 하고요."

"글쎄요." 영국인이 말했다. "저는 바로 그 유리한 패를 8일에서 10일 안에 확실히 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열하루째에는 저를 체포하시겠군요, 어쩌면?"

"열흘째, 그게 마지막 기한입니다."

뤼팽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에 잠겼다. "어렵겠는데요…… 정말 어려워요……"

"어렵죠, 맞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확실하죠."

"완전히 확실합니다." 윌슨이 말했다. 마치 자신이, 동료를 그 예고된 결과로 이끌어 갈 일련의 긴 작업들을 또렷이 그려 보고 있다는 듯이.

헐록 숌즈가 미소 지었다.

"윌슨은 이 일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가 직접 증언해 줄 겁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물론 모든 카드를 손에 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몇 달 전에 벌어진 일인 만큼, 제가 평소 수사에서 의존하던 단서나 증거는 빠져 있거든요."

"흙 자국이나 담배 재 같은 것들 말이오." 윌슨이 중요한 듯이 말했다.

"하지만 가니마르 씨의 놀라운 분석 결과도 있고, 관련 기사와 관찰 기록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사건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도 조금은 생겼습니다."

"분석이나 가설을 통해 얻은 몇 가지 통찰이죠." 윌슨이 교훈적인 어조로 덧붙였다.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뤼팽이 숌즈에게 말을 걸 때 쓰던 공손한 어조로 물었다. "지금까지 정리하신 전반적인 견해를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이지 흥미진진한 광경이었다. 두 남자가 팔꿈치를 책상에 올리고 마주 앉아, 마치 풀기 힘든 난제를 해결하거나 논쟁거리에 합의를 보려는 듯 진지하고 차분하게 토론하는 모습이라니. 게다가 그것은 한층 고상한 아이러니이기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호사가이자 예술가로서 그것을 깊이 음미하고 있었다. 한편 윌슨은 흐뭇함에 도취되어 있었다.

헐록은 천천히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고 불을 붙인 뒤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언뜻 보이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정말이지 훨씬 덜합니다." 윌슨이 충실한 메아리처럼 맞장구쳤다.

"제가 말한 건 사건입니다. 제게는 단 하나의 사건뿐이니까요. 오트렉 남작의 죽음, 반지의 이야기,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제23번 시리즈 514호의 미스터리. 이 모든 것은 '금발의 여인'이라는 수수께끼의 다양한 면모에 불과합니다.

제 생각엔, 이 세 가지 에피소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 가지 수법이 어떻게 하나로 통하는지를 밝히는 것뿐입니다. 판단이 다소 피상적인 가니마르는 이 일관성을 '사라지는 능력', 즉 보이지 않으면서도 오가며 드나드는 힘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기적 같은 개입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요?"

"내 생각엔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숌즈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미리 정해둔 무대로 사건을 끌고 가려는 의도 말입니다. 그건 지금까지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명백하고도 뚜렷한 계획이었죠. 이건 당신으로선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하나의 필연,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소?"

"물론이지요. 예를 들어, 제르부아 씨와의 분쟁이 시작되자마자 당신은 데티낭 씨의 아파트를 선택했죠. 그곳은 당신이 정한 무대이자, 모두가 모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장소였습니다. 당신에게는 그곳보다 안전한 곳이 없었고, 그래서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금발의 여인과 제르부아 씨에게 그곳에서 만나자고 약속할 정도였으니까요."

"교수의 딸이죠." 윌슨이 보탰다.

"이제 파란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오트렉 남작이 그 보석을 가지고 있는 동안, 당신은 그것을 손에 넣으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남작이 형의 저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섯 달 뒤, 앙투아네트 브레아가 개입해 첫 번째 시도가 이루어졌죠.

다이아몬드는 당신의 손을 빠져나갔고, 드루오 경매장에서 큰 소동 끝에 경매가 열립니다. 그 경매가 과연 자유로울까요? 가장 부유한 수집가가 보석을 손에 넣으리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은행가 헤르슈만이 막 낙찰을 받으려던 순간, 한 부인이 그에게 협박장을 건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인에게 미리 영향을 받아 준비된 크로존 백작부인이 다이아몬드를 사들이죠.

그 보석이 곧장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막간이 생기죠. 하지만 백작부인이 자기 성에 자리를 잡습니다. 바로 당신이 기다리던 순간이죠. 반지가 사라집니다."

"그럼 다시 등장할 곳은?"

뤼팽이 물었다.

"영사 블리셴의 치약 가루 속이야. 이상한 일이지만."

"말도 안 돼!"

헐록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내가 그런 멍청한 소리를 믿겠냐고. 바보들은 속을지 몰라도, 늙은 여우인 내가 당하겠냐."

"그게 무슨 뜻이죠?"

"그 뜻이……."

숌즈는 잠시 멈추었다. 효과를 노리는 듯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치약 가루에서 발견된 푸른 다이아몬드는 가짜입니다. 진짜는 당신이 가지고 있죠."

아르센 뤼팽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아주 평범한 어조로 영국인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무서운 분이군요."

"무서운 사람이죠, 맞습니다."

윌슨이 감탄하며 입을 벌렸다.

"맞아요." 뤼팽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모든 것이 제 모습을 찾았죠. 이 사건에 매달린 예심판사도, 전문 기자도, 진실의 방향을 이만큼 깊이 파고든 이는 없었습니다. 직관과 논리가 기적처럼 맞아떨어졌죠."

"흥." 영국인이 그런 감식가의 찬사에 우쭐해하며 대꾸했다. "그저 생각하기만 하면 됐을 뿐이죠."

"생각할 줄 알기만 하면 됐죠.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너무도 드뭅니다! 하지만 이제 추측의 범위는 좁혀졌고, 불필요한 잡초도 모두 걷혔으니…"

"자, 이제 제가 풀어야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어째서 그 세 사건이 모두 클라페용 거리 25번지, 앙리 마틴 대로 134번지, 그리고 크로존 성의 담장 안에서 결말을 맺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죠. 사건의 핵심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허튼소리이자 아이들 수수께끼에 불과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뤼팽 씨, 열흘 뒤면 제 일이 끝난다고 거듭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열흘 뒤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체포되겠군요."

"제가 체포되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겹치고, 어이없을 만큼 불운한 우연들이 연달아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우연이 막지 못하는 일도, 한 인간의 의지와 집념이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뤼팽 씨."

"다른 한 인간의 의지와 집념이 그 계획 앞에 이길 수 없는 장애물을 세우지 않는다면 말이죠, 숌즈 씨."

"이길 수 없는 장애물이란 없습니다, 뤼팽 씨."

그들이 주고받은 눈빛은 깊고 진지했다. 어느 쪽에도 도발은 없었고, 다만 차분하면서도 대담했다. 그것은 칼을 맞대는 두 검의 부딪침이었다. 맑고 거침없는 울림이었다.

"좋아!" 뤼팽이 외쳤다. "드디어 임자가 나타났군! 상대라고는 하나, 좀처럼 보기 드문 인물이지. 게다가 그게 바로 헐록 숌즈라니! 이거 재미있겠어."

"두렵지 않습니까?" 윌슨이 물었다.

"거의 그렇습니다, 윌슨 씨. 그 증거로," 뤼팽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저는 어서 피신 준비를 서둘러야겠군요. 안 그러면 은신처에서 붙잡힐 테니까요."

그가 다시 물었다.

"그럼 열흘로 정하죠, 숌즈 씨?"

"열흘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니, 수요일에서 일주일 뒤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그럼 저는 감옥에 갇히겠군요?"

"의심의 여지 없이요."

"저런! 모처럼 평온한 삶을 즐기던 참인데. 골치 아픈 일도 없고, 사업도 그런대로 잘 돌아가고, 경찰 따위는 신경 쓸 일 없고, 온 세상이 나를 아껴준다는 흐뭇한 기분까지… 이 모든 걸 다 바꿔야 한다니! 뭐, 동전엔 양면이 있는 법이지. 좋은 날씨 뒤엔 비가 오고… 이제 웃을 일이 아니군요. 안녕히!"

"서두르십시오." 윌슨이 간곡히 권했다. 그자가 숌즈를 눈에 띄게 존경하는 기색이어서 마음이 쓰였던 것이다. "1분도 허비하지 마십시오."

"1분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윌슨 씨. 다만 이 만남이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당신처럼 귀중한 협력자를 둔 선생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말씀드릴 시간만 주시면 됩니다."

두 사람은 결투장에서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다. 원한은 없으나 운명이 가차 없이 싸우게 만드는 두 적수처럼. 그러고는 뤼팽이 내 팔을 붙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어떻게 생각하나, 친구? 이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은 자네가 준비 중인 내 회고록에 좋은 소재가 될 걸세."

그는 식당 문을 닫고 몇 걸음 더 가더니 멈춰 섰다.

"담배 피우나?"

"아니요. 당신도 안 피우시는 것 같은데요."

"나도 안 피우네."

그는 양초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불을 끄려고 그 성냥을 여러 번 흔들었다. 하지만 곧 담배를 내던지더니 뛰어서 차도를 건너,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어둠 속에서 막 나타난 두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맞은편 인도에서 두 사람과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눈 뒤 내게로 돌아왔다.

"미안하네. 그 빌어먹을 숌즈가 날 꽤나 애먹이겠어. 하지만 맹세컨대, 그자는 아직 뤼팽과의 승부를 끝내지 못했네… 아! 그 친구,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잘 가게. 그 어수룩한 윌슨 말이 맞아. 나는 한순간도 허비할 틈이 없어."

그는 재빨리 자리를 떴다. 이렇게 해서 그 기묘한 밤의 한 대목, 적어도 내가 끼어 있던 부분은 끝이 났다. 그 뒤로 이어진 몇 시간 동안 다른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그 만찬에 함께한 다른 손님들의 이야기 덕분에 나는 그 일들을 세세히 재구성할 수 있었다.

뤼팽이 나와 헤어지던 바로 그 순간, 헐록 숌즈도 시계를 꺼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8시 40분이군. 9시에 역에서 백작 부부를 만나야 해."

"갑시다!" 윌슨이 위스키를 연거푸 두 잔 들이켜며 외쳤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다.

"윌슨, 고개 돌리지 마… 누군가 우리를 미행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미행당하든 말든 개의치 않는 척하자고… 그건 그렇고 윌슨, 자네 생각을 말해 보게. 뤼팽은 어째서 그 식당에 와 있었을까?"

윌슨은 망설이지 않았다.

"먹으러 왔겠죠."

"윌슨, 함께 일하면 일할수록 자네가 꾸준히 발전하는 게 보이는군. 정말이지 자네 점점 놀라워지고 있어."

어둠 속에서 윌슨은 기쁨에 얼굴을 붉혔다. 숌즈가 말을 이었다.

"먹으러 왔다, 좋아. 그리고 다음으로는, 십중팔구 가니마르가 인터뷰에서 떠벌린 대로 내가 정말 크로존으로 가는지 확인하려는 속셈이었겠지. 그러니 나는 그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떠난다. 하지만 그보다 한발 앞서 시간을 벌어야 하니, 사실은 떠나지 않는다."

"자네는, 친구, 저 길로 빠져나가 마차를 잡게. 한 대, 두 대, 세 대 갈아타게. 나중에 다시 와서 우리가 짐 보관소에 맡겨 둔 가방들을 찾고, 전속력으로 엘리제 팔라스 호텔까지 가는 거야."

"엘리제 팔라스 호텔에서는요?"

"방을 하나 잡아 드러눕게. 푹 자면서 내 지시를 기다리면 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윌슨은 자부심에 가득 차 자리를 떴다. 헐록 숌즈는 자기 표를 챙겨, 크로존 백작 부부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아미앵행 급행열차로 향했다. 그는 가볍게 인사만 건넨 채 두 번째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복도에 선 채로 느긋하게 담배를 피웠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십 분쯤 지나 그는 백작부인 곁에 다가앉아 말했다.

"부인, 그 반지를 지니고 계십니까?"

"잠시 빌려 주시겠습니까?"

그는 반지를 받아 들고 찬찬히 살펴보았다.

"역시 제 생각대로군요. 재생 다이아몬드입니다."

"재생 다이아몬드라고요?"

"다이아몬드 가루를 엄청난 고온으로 녹인 다음, 다시 하나의 보석으로 굳혀 만드는 새로운 공법이죠."

"그럴 리가요! 제 다이아몬드는 진짜예요."

"부인 것은 진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제 것은 어디에 있죠?"

"아르센 뤼팽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건요?"

"이건 부인 것과 바꿔치기되어, 부인이 그것을 되찾은 블리셴 씨의 약병 속에 넣어진 겁니다."

"그럼 이게 가짜라는 말인가요?"

"완전히 가짜입니다."

말문이 막히고 마음이 뒤흔들린 백작부인은 입을 다물었고,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보석을 이리저리 돌려 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더듬더듬 말했다.

"이럴 수가! 그런데 어째서 그냥 훔쳐 가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대체 어떻게 가져간 거죠?"

"바로 그 점을 제가 밝혀내려는 겁니다."

"크로존 성에서요?"

"아닙니다. 저는 크레유에서 내려 파리로 돌아갈 겁니다. 아르센 뤼팽과 제가 승부를 벌일 곳은 바로 거기니까요. 어느 쪽에서 두든 수의 효력은 같습니다만, 뤼팽이 저를 여행 중이라고 믿게 두는 편이 낫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부인? 중요한 건 부인의 다이아몬드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안심하십시오. 방금 제가 한 약속은 그보다 훨씬 더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헐록 숌즈의 이름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를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기차가 속도를 줄였다. 숌즈는 가짜 다이아몬드를 주머니에 넣은 뒤 차문을 열었다. 백작이 소리쳐 말했다.

"하지만 반대쪽 선로로 내리시는군요!"

"그래야 뤼팽이 저를 감시하더라도 제 자취를 놓치게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역무원이 부질없이 항의했다. 영국인은 역장실로 향했다. 오십 분 뒤, 그는 기차에 뛰어올랐고, 그 기차는 자정이 조금 못 되어 그를 파리로 데려다주었다. 그는 역을 뛰어 가로질러 식당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문으로 나와, 곧장 삯마차 안으로 뛰어들었다.

"클라페롱 거리로 가 주게."

미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확신을 얻자, 그는 거리 초입에서 차를 멈추게 하고 드티낭 씨의 집과 양옆의 두 채 건물을 꼼꼼히 살폈다. 일정한 보폭으로 어떤 거리들을 재며 수첩에 메모와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마부, 앙리 마르틴 대로로."

앙리 마르틴 대로와 라 퐁프 거리가 만나는 모퉁이에서 그는 삯을 치러 마차를 보내고, 인도를 따라 134번지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오트렉 남작의 옛 저택과 그 양옆에 붙은 두 채의 수익용 건물 앞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했다. 각 건물의 정면 너비를 재고, 정면 앞에 있는 작은 정원들의 깊이를 가늠했다.

거리에는 네 줄로 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서 가스등이 짙은 어둠과 부질없이 싸우는 듯 보였다. 거리는 인적 없이 매우 어두웠다. 그중 한 등불이 희미한 빛을 저택의 일부에 드리웠고, 숌즈는 철문에 매달린 '임대' 간판과, 작은 잔디밭을 둘러싼 손질 안 된 두 갈래 길,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집의 크고 텅 빈 창문들을 보았다.

'정말이군.' 숌즈가 혼자 중얼거렸다. '남작이 죽은 뒤로는 세입자가 없었지… 아, 안으로 들어가 처음으로 둘러볼 수만 있다면.'

이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자마자, 그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싶어졌다. 하지만 어떻게? 울타리가 너무 높아 오를 방법이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전등과 늘 지니고 다니던 열쇠를 꺼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울타리 중 한쪽 문이 살짝 벌어져 있는 것이다. 그는 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조심하며 정원으로 들어섰다.

그가 세 발짝도 채 나아가지 않았을 때,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2층 창가에서 빛이 스쳤다.

빛은 다른 두 창문으로도 옮겨 갔다. 그는 방 벽면에 비친 실루엣 하나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은 볼 수 없었다. 2층에서 내려온 빛은 1층으로 이동해, 오랫동안 방들을 떠돌았다.

"도대체 누가 새벽 한 시에, 오트렉 남작이 살해된 집을 돌아다니고 있는 걸까?" 헐록은 엄청난 흥미에 사로잡혀 혼자 자문했다.

그 답을 알 길은 하나뿐이었다. 직접 그 집에 들어가 보는 것.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현관 계단으로 가려고 가스등이 드리운 빛줄기를 가로지르는 순간, 그 남자가 그를 알아챈 게 틀림없었다. 불빛이 갑자기 꺼졌고, 헐록 숌즈는 다시는 그 빛을 보지 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현관 계단으로 통하는 문을 밀었다. 그 문 역시 열려 있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그는 어둠 속으로 과감히 발을 들였다. 난간 손잡이를 더듬어 잡고 한 층을 올라갔다. 그러나 여전히 똑같은 고요, 똑같은 어둠뿐이었다.

층계참에 다다른 그는 한 방으로 들어가, 밤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때 그는 밖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다. 아마도 다른 계단으로 내려와 다른 문으로 빠져나갔을 그 남자는, 두 정원을 가르는 담장을 따라 늘어선 관목들을 끼고 왼쪽으로 슬그머니 달아나고 있었다.

"젠장," 숌즈가 외쳤다. "놈이 달아나겠어!"

그는 한 층을 뛰어 내려가 현관 계단을 넘었다. 적의 퇴로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더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관목이 뒤엉킨

틈에서 완전히 가만있지는 않은, 더 어두운 덩어리 하나를 알아보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영국인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왜 달아나려 하지 않았을까? 마음만 먹으면 그토록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자기의 은밀한 작업을 방해한 그 침입자를 이번에는 거꾸로 감시하려고 거기 남아 있는 것일까?

'아무튼, 뤼팽은 아니야. 뤼팽이라면 더 교묘했을 거야. 그의 일당 중 한 명이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헐록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엿보던 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적도 더는 움직이지 않았고, 영국인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성미가 아니었다. 그는 권총의 실린더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칼집에서 단도를 빼 든 뒤, 적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그를 더없이 무서운 존재로 만드는 그 차가운 담대함과 위험에 대한 경멸을 품은 채.

날카롭게 딸깍하는 소리. 그 남자가 권총의 공이를 당기고 있었다. 헐록은 순간 덤불 속으로 몸을 던졌다. 상대는 뒤를 돌아볼 새도 없었다. 영국인이 이미 그 위를 덮친 것이다.

치열하고 절박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헐록은 상대가 칼을 빼내려 안간힘을 쓰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머지않은 승리에 대한 생

각과, 첫 순간부터 이 아르센 뤼팽의 공범을 붙잡겠다는 미칠 듯한 열망에 사로잡힌 숌즈는, 자신 안에서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상대를 쓰러뜨려 온몸의 무게로 짓눌렀다. 불쌍한 남자의 목을 매의 발톱처럼 손가락으로 움켜쥐어 꼼짝 못 하게 한 채, 자유로운 손으로 손전등을 더듬어 찾아 버튼을 눌렀고, 그 빛을 사로잡은 자의 얼굴에 비추었다.

"윌슨!" 그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헐록 숌즈!"

목이 메어 나오는, 깊은 구덩이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 옆에 서서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정신이 아득해져서 머릿속이 하얘진 채였다.

어느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지나갔다. 약간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숌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다섯 손가락은 윌슨의 목을 꽉 쥐고 있었고, 윌슨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져 갔다.

그리고 갑자기 헐록이 분노에 사로잡혀 친구를 놓아주더니, 대신 그의 어깨를 잡고 난폭하게 흔들었다.

"당신은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대답해 봐요… 뭐라고요…? 제가 당신에게 수풀 속에 숨어서 저를 엿보라 했나요?"

"당신을 엿본다고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윌슨이 간신히 말했다.

"그럼 대체 뭐요? 여기서 뭐 하러 있단 말인가요? 당신은 자야 할 텐데."

"저는 자고 있었어요."

"잤어야지!"

"잤습니다."

"깨어나지 말았어야지!"

"당신 편지가……"

"내 편지?"

"네, 어떤 심부름꾼이 당신 이름으로 호텔까지 가져다준 거요."

"내가 보냈다고? 자네 미쳤나?"

"맹세코 사실입니다."

"그 편지 어디 있나?"

친구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손전등 불빛 아래, 그는 경악하며 그것을 읽었다.

"윌슨, 침대에서 일어나 앙리 마르틴 대로로 달려가게. 집은 비어 있네. 들어가서 살펴보고 아주 정확한 도면을 그린 다음, 다시 잠자리에 들게. — 헐록 숌즈."

"방들을 재고 있는데," 윌슨이 말했다. "정원에서 그림자 하나를 봤지요. 그 순간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그림자를 붙잡으려 했군요. 발상은 훌륭했습니다. 다만 말이지요," 숌즈는 동료를 일으켜 세워 데리고 나오며 말했다. "윌슨, 다음번에 내 편지를 받거든 먼저 그 필적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게."

"그렇다면," 윌슨이 진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며 말했다. "그 편지는 당신이 쓴 것이 아닌가요?"

"그래, 안타깝게도."

"그럼 누가 쓴 거죠?"

"아르센 뤼팽이지."

"대체 무슨 목적으로 쓴 걸까요?"

"아, 그건 나도 모르네. 바로 그 점이 나를 불안하게 하지. 도대체 왜 그가 수고스럽게 자네를 끌어냈을까? 나에 관한 일이라면 이해가 가지

만, 이번엔 오직 자네에 관한 일이거든. 무슨 이익이 있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저는 어서 호텔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네, 윌슨.”

앞서 가던 윌슨이 철제 대문에 다다랐다. 그는 손바닥으로 철봉 하나를 잡더니 힘껏 당겼다.

“이거, 잠겼나?”

“아니, 그렇지 않아. 문짝을 그냥 붙여 뒀을 뿐인데.”

헐록이 다시 고리를 당겨 보았다. 그러고는 자물쇠 쪽으로 달려들었다.

“젠장! 열쇠로 잠갔어!”

그는 온 힘을 다해 문을 흔들었다. 하지만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그는 절망적으로 팔을 내렸다.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 바로 그놈이야! 내가 크레유에서 내릴 거라 예상하고, 혹시 내가 바로 그날 저녁부터 조사를 시작할 경우에 대비해 여기에 그럴듯한 작은 덫을 쳐 둔 거야. 게다가 친절하게도 함께 갇힐 동행까지 보내 줬지. 이 모두가 내게 하루를 허비하게 하려는 것이고, 아마도 내 일에나 신경 쓰는 편이 훨씬 낫다는 걸 일깨워 주려는 속셈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포로라는 뜻이군."

"바로 그 말이야. 헐록 숌즈와 윌슨은 아르센 뤼팽의 포로다. 모험이 근사하게 시작되는군… 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의 어깨에 한 손이 내려앉았다. 윌슨의 손이었다.

"저 위를… 저 위를 봐… 불빛이야…"

과연, 1층 창문 하나에 불이 켜져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계단으로 달려, 동시에 밝게 빛나는 방 입구에 다다랐다.

방 한가운데에는 촛불 한 토막이 타고 있었다. 그 옆에는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는 병목, 닭다리, 그리고 반으로 잘린 빵이 모습을 드러냈다.

숌즈는 큰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훌륭하군. 우리에게 저녁까지 차려 주다니. 마법의 궁전이야. 그야말로 환상적이지! 자, 윌슨, 그 장례식 같은 표정 짓지 마. 이건 정말 우스운 일이야."

"정말 우습다고 확신하십니까?" 윌슨이 음울하게 신음했다.

"내가 확신하냐고!" 숌즈가 외쳤다. 자연스럽다기엔 지나치게 떠들썩한 쾌활함이었다. "그러니까, 난 이보다 더 우스운 걸 본 적이 없다는 말이야. 아주 훌륭한 희극이지… 이 아르센 뤼팽이란 자는 얼마나 대단한 풍자의 대가인지!… 사람을 농락하면서도, 어찌나 우아하게 하는지!… 전 세계의 금을 다 준대도 이 향연의 내 자리를 내주진 않을 거야… 윌슨, 내 오랜 친구, 자네는 나를 슬프게 하는군.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걸까? 자네에게는 불운을 견디게 해 주는 그런 고결한 품성이 없는 걸까? 대체 뭐가 불만인가? 지금 이 순간, 자네 목에는 내 단도가 박혀 있을 수도 있었어… 아니면 내 목에 자네 단도가 박혀 있었거나… 바로 그게 자네가 노리던 것 아닌가, 못된 친구."

숌즈는 유머와 비아냥을 한껏 동원해, 풀이 죽은 가엾은 윌슨을 다시 기운 차리게 했고, 닭다리 하나와 와인 한 잔을 억지로 먹였다.

하지만 촛불이 다 타 꺼지고, 두 사람이 잠을 자려고 마룻바닥에 드러누워 벽을 베개 삼아야 하자, 상황의 고달프고 우스꽝스러운 면이 비로소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잠자리는 서글펐다.

아침이 되어 윌슨이 눈을 떴다. 온몸은 쑤시고 추위에 얼어붙어 있었다. 가벼운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헐록 숌즈가 무릎을 꿇고 몸을 반으로 접은 채, 돋보기로 먼지 알갱이를 들여다보며 거의 지워진 하얀 분필 자국들을 살펴내고 있었다. 그 자국들은 숫자를 이루고 있었고, 숌즈는 그 숫자를 수첩에 적어 넣고 있었다.

윌슨이 그의 곁을 따랐다. 이 작업은 그에게 유난히 흥미로웠던 것이다.

숌즈는 방을 하나하나 살폈고, 다른 두 방에서도 똑같은 분필 표시를 확인했다.

그는 또한 떡갈나무 패널에 그려진 두 개의 원, 징두리널에 그어진 화살표 하나, 그리고 계단 네 단에 적힌 숫자 네 개도 함께 기록했다.

한 시간쯤 지나자 윌슨이 그에게 말했다.

"숫자는 정확한 거죠?"

"정확한지는 나도 모르겠소." 헐록이 답했다. 이런 발견들 덕분에 그는 다시 기분이 좋아진 터였다. "어쨌든 무언가를 의미하는 건 분명하오."

"아주 분명한 의미죠." 윌슨이 말했다. "마룻장의 개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소. 그리고 두 개의 원은, 직접 두드려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 패널들이 빈 소리를 낸다는 표시요. 화살표는 음식 운반용 승강기가 올라가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헐록 숌즈가 그를 바라보았다. 경이로움에 잠긴 눈빛이었다.

"이런, 이보게 친구. 대체 그 모든 걸 어떻게 안 거요? 당신의 통찰력에 내가 다 부끄러울 지경이오."

"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윌슨이 기쁨에 들떠 말했다. "그 표시들은 어젯밤 제가 그린 거예요. 당신의 지시에 따라서요. 아니, 더 정확히는 뤼팽의 지시에 따라서죠. 당신이 제게 보낸 그 편지가 사실은 그자의 것이니까요."

아마 이 순간 윌슨은, 수풀에서 숌즈와 몸싸움을 벌였을 때보다 더 끔찍한 위험에 처해 있었을 것이다. 숌즈는 그를 목 졸라 죽이고 싶은 사나운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는 가까스로 자신을 억누르며, 미소를 지으려다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는 이렇게 말했다.

"훌륭하군. 정말 훌륭해. 이 정도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당신의 놀라운 분석력과 관찰력이 다른 부분에도 미쳤나? 그 결과도 듣고 싶군."

"아니, 거기까지야."

"아쉽군. 시작이 좋았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럼 이제 떠날 수밖에."

"떠난다고? 어떻게?"

"정직한 사람들이 떠날 때 쓰는 일반적인 방법, 즉 정문을 통해서야."

"문이 잠겨 있어."

"열면 되지."

"저 가로수를 거니는 경찰 두 명을 불러주시오."

"왜?"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군. 당신이 헐록 숌즈고, 내가 윌슨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우리가 아르센 뤼팽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소?"

"어쩔 수 없소, 친구. 배가 아플 정도로 웃을 노릇이네." 헐록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집에서 살 수는 없지."

"그렇다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겠소?"

"잠깐. 식료품 바구니를 가져다 준 남자는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정원을 지나지 않았소. 다른 출구가 있다는 뜻이지. 그 출구를 찾아내면 경찰에 의지할 필요도 없을 거야."

"논리가 완벽하군. 하지만 하나 망각했소. 그 출구를 파리의 경찰이 여섯 달째 샅샅이 뒤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이 잠든 사이, 내가 이 저택을 위아래로 다 뒤졌소. 아, 나의 친애하는 윌슨. 아르센 뤼팽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냥감일세. 그는 흔적 하나 남기지 않는 자니까…"

열한 시가 되자 헐록 숌즈와 윌슨은 풀려났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끌려갔는데, 그곳의 경찰서장은 그들을 호되게 심문한 뒤 몹시 짜증스러울 만큼 정중한 척하며 풀어 주었다.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유감입니다, 두 분. 프랑스의 환대에 나쁜 인상을 받으셨겠군요. 세상에, 얼마나 끔찍한 밤을 보내셨을지! 아, 그 뤼팽이란 자는 정말 배려라곤 없군요."

자동차가 그들을 엘리제 팰리스 호텔까지 데려다주었다. 프런트에서 윌슨이 자기 방 열쇠를 달라고 했다.

잠시 찾아보던 직원이 몹시 놀란 얼굴로 대답했다. "하지만 손님, 이 방은 이미 비우셨는데요."

"내가? 어떻게요?"

"오늘 아침에 보내신 편지로요. 손님 친구분이 저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어떤 친구요?"

"손님께서 편지를 맡기신 그분이… 보세요, 손님 명함도 편지에 함께 끼워져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윌슨이 그것을 받아 들었다. 분명 자기 명함이었고, 편지의 글씨도 틀림없이 자기 필체였다.

"맙소사." 그가 중얼거렸다. "또 한 번 고약한 장난을 당했군."

그러고는 불안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럼 짐은요?"

"손님 친구분이 가져가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내주셨다고요?"

"물론입니다. 손님 명함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었으니까요."

"그렇군… 그래."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느릿느릿, 정처 없이 샹젤리제 거리를 걸었다. 고운 가을 햇살이 대로를 비추었다. 공기는 부드럽고 가벼웠다.

롱푸앵에 이르자 헐록은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윌슨이 외쳤다.

"이해가 안 가요, 숌즈. 어쩌면 그렇게 태연하죠! 사람들이 당신을 우롱하고,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당신을 가지고 노는데도… 당신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군요!"

숌즈가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말했다.

"윌슨, 나는 당신 명함을 생각하고 있소."

"그래서요?"

"그러니까 말이오, 이 사내는 우리와 맞붙을 가능성을 미리 내다보고 당신과 내 필체 견본을 손에 넣어 두었고, 게다가 당신 명함 한 장까지 지갑 속에 준비해 두고 있었소. 이게 얼마나 치밀한 대비이고, 통찰력 있는 의지이며, 철저한 방법과 조직력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았소?"

"그 말씀은…?"

"그러니까 말이오, 윌슨, 저토록 무시무시하게 무장하고 놀라우리만치 빈틈없이 준비한 적과 싸워—그것도 그를 이기려면—바로…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요. 그나마도, 보다시피, 윌슨," 그가 웃으며 덧붙였다. "단번에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오."

여섯 시, <프랑스의 메아리(에코 드 프랑스)>지 석간에는 다음과 같은 짧은 기사가 실렸다.

"오늘 아침, 16구 경찰서장 테나르 씨가, 아르센 뤼팽의 손에 고(故) 오트렉 남작의 저택에 갇혀 '아주 멋진' 하룻밤을 보낸 헐록 숌즈 씨와 윌슨 씨를 풀어 주었다.

"게다가 여행 가방까지 빼앗긴 두 사람은 아르센 뤼팽을 고소했다."

"이번에는 그들에게 작은 교훈을 주는 데 그친 아르센 뤼팽은, 더 무거운 조치를 취하도록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아 달라고 그들에게 간청한다."

"흥, 시시하군!" 헐록 숌즈가 신문을 구기며 말했다. "애들 장난이야! 내가 뤼팽에게 하는 유일한 지적이 바로 그거지… 지나치게 유치하다는 것. 구경꾼들은 그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어… 이 사내에게는 가브로슈 같은 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헐록, 여전히 그렇게 태연한가?"

"여전히 태연하지." 숌즈가 대답했다. 그 목소리에는 더없이 끔찍한 분노가 으르렁대고 있었다. "화를 내 봐야 무슨 소용인가? 내가 끝내 마지막 말을 하게 되리란 걸 이토록 확신하는데."

제4장

인물의 성품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더라도, 숌즈처럼 불운이 별다른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가장 대담한 자조차 다시 한번 운명의 싸움에 뛰어들기 전에 힘을 모으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다.

"오늘은 쉬겠습니다."

"저는요?"

"윌슨, 당신은 우리 옷장을 채우기 위해 옷과 속옷을 사 오십시오. 그 사이 저는 쉴 겁니다."

"쉴 동안은 제가 지킵니다, 숌즈."

윌슨은 이 두 마디를 전초 기지에 배치된 병사, 즉 가장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자의 태도로 말했다. 그의 가슴은 팽팽해졌고 근육이 굳어졌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이 거처로 정한 작은 호텔 방 안을 두루 살폈다.

"윌슨, 방심하지 말게.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우리가 상대할 적에게 더 잘 맞는 작전 계획을 세우겠네. 이보게, 윌슨, 우리는 뤼팽을 잘못 봤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가능하다면 그 이전 단계부터라도요. 하지만 시간이 있을까요?"

"아흐레야, 오랜 친구! 그것도 닷새는 너무 많지."

영국인은 오후 내내 담배를 피우고 잠을 잤다. 그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작전을 시작했다.

"윌슨, 이제 준비됐네. 슬슬 움직이세."

"갑시다!" 윌슨이 전의에 불타 외쳤다. "저도 다리가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겠는걸요."

숌즈는 세 번이나 길게 면담했다.

첫 번째는 데티낭 변호사였다. 그는 아파트의 사소한 부분까지 샅샅이 조사했다. 두 번째는 수잔느 제르부였다. 숌즈는 그녀에게 오라고 전보를 치고, 금발 여자에 대해 물었다. 마지막은 오귀스트 수녀였다. 오귀스트 수녀는 오트렉 남작이 살해당한 뒤부터 비지탕딘 수녀원에 은거해 있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윌슨은 밖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물었다.

"만족스러우십니까?"

"아주 만족스럽네."

"확신했었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가세."

그들은 많이 걸었다. 앙리 마르틴 대로에 있는 저택 양옆의 두 건물을 돌아본 뒤, 클라페롱 거리까지 갔다. 숌즈는 25번지 건물의 정면을 살피며 계속 말했다.

"이 집들 사이에는 비밀 통로가 분명히 존재해. 하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때까지 윌슨은 자신의 천재적인 협력자가 전능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 순간, 처음으로 그 믿음에 균열이 생겼다. 왜 숌즈는 말만 무성하게 하고 정작 행동은 하지 않는 걸까?

"왜냐고?" 숌즈가 윌슨의 속마음을 꿰뚫는 듯 외쳤다. "이 악마 같은 뤼팽과 맞서면, 우리는 공허 속에서, 운에 맡겨 일해야 하거든. 명확한 사실들로부터 진실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의 뇌리에서 진실을 꺼내야 해. 그리고 나서 그 진실이 사건들과 잘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거지."

"비밀 통로는요?"

"게다가 어쨌든요. 내가 그 통로들을 안다고 해서, 뤼팽이 변호사 집에 들어가는 데 쓴 통로를 안다고 해서, 혹은 오트렉 남작 살해 후 금발 여인이 빠져나간 통로를 안다고 해서, 내가 뭘 더 얻는다는 말입니까? 그게 뤼팽을 공격할 무기가 되어주나요?"

"일단 공격해 봅시다!" 윌슨이 외쳤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무언가가 그들의 발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모래가 반쯤 채워진 자루였다. 만약 맞았다면 큰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었다.

숍즈가 고개를 들었다. 바로 위쪽, 5층 발코니에 매달린 비계 위에서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다.

"다행이네요." 숍즈가 외쳤다. "한 걸음만 더 갔으면, 저 서툰 놈들 중 하나가 떨어뜨린 자루를 머리에 맞았을 테니까. 정말 누가 일부러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는 말을 멈췄다. 그러더니 집으로 달려 올라갔다. 단숨에 5층을 뛰어올랐다. 초인종을 눌렀다. 하인이 깜짝 놀라는 가운데 아파트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발코니로 나갔다.

사람은 없었다.

"거기 있던 인부들은요?" 그가 하인에게 물었다.

"방금 떠났습니다."

"어디로?"

"뒷계단으로 내려갔죠."

숌즈는 몸을 굽혀 내려다보았다. 두 남자가 집에서 나오고 있었다. 손에는 자전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전거에 올라타고 사라졌다.

"저들이 저 비계에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저들요? 오늘 아침부터입니다. 새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숌즈는 윌슨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은 우울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음울한 침묵 속에서 끝났다.

다음 날도 계획은 똑같았다. 그들은 앙리 마르틴 대로에 있는 같은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는 세 채의 건물 앞을 응시하며 길게 기다렸다.

윌슨은 전혀 재미를 느끼지 못해 큰 실망을 안고 있었다.

"숌즈,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뤼팽이 이 집들에서 나오기를요?"

"아니면 금발 여인이 나타나기를요?"

"그래서요?"

"그렇다면 저는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요. 그것이 제 출발점이 될 테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런 경우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겠죠. 화약에 불을 붙일 불꽃이 말입니다."

이 아침의 단조로움을 깨뜨린 사건이 하나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은 다소 불쾌한 방식이었다.

대로의 두 차도 사이에 난 승마로를 따라가던 한 신사의 말이 옆으로 비켜서며, 그들이 앉아 있던 벤치에 부딪혔다. 말의 엉덩이가 숌즈의 어깨를 스친 것이다.

"에이, 에이!" 숌즈가 비웃듯 말했다. "조금만 더했어도 어깨가 으스러졌겠군."

그 신사는 말을 어쩌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다. 영국인은 권총을 꺼내 조준했다. 하지만 윌슨이 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다.

"미쳤어요, 헐록! 아니… 이런…! 저 신사를 죽일 셈이에요!"

"이거 놓게, 윌슨. 놓으라니까."

그 사이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러는 동안 신사는 말을 제압하고는 박차를 가해 달아났다.

"이제 쏘세요!" 윌슨이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기수가 어느 정도 떨어진 뒤였다.

"미친놈 같으니라니, 네 눈이 멀었나? 그건 아르센 뤼팽의 공범이었어!"

숌즈가 분노에 몸이 떨렸다. 위축된 윌슨이 말더듬듯 말했다.

"뭐라고요? 그 신사라고요…?"

"뤼팽의 공범이지. 우리 머리 위로 자루를 던진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믿을 수 있나요?"

"믿든 안 믿든, 거기엔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있었어."

"그 신사를 죽여서요?"

"그 신사의 말을 쓰러뜨리는 거였지. 네가 간섭하지 않았다면, 나는 뤼팽의 공범 중 한 명을 붙잡았을 거야. 네 어리석음을 이해하겠나?"

오후는 지루하게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건네지 않았다.

오후 다섯 시, 그들은 클라페롱 거리에서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집들과 거리를 두며 걷는 것은 물론이었다.

그때 세 명의 젊은 노동자가 그들을 마주쳤다. 그들은 팔을 끼고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서로 손을 놓지 않은 채 길을 막았다.

숌즈는 이미 기분이 엉망이었다. 그는 그들을 막아섰다.

순간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다. 숌즈는 복서처럼 자세를 잡았다. 한 방의 주먹을 가슴에, 또 한 방을 얼굴에 날렸다.

그는 세 명 중 두 명을 순식간에 무력화했다. 나머지 한 명도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았다. 세 사람은 그대로 자리를 떴다.

"아, 좋다!" 숌즈가 외쳤다. "기분이 확 풀리는군. 신경이 너무 긴장되어 있었어. 아주 훌륭한 운동이야."

하지만 그는 윌슨이 벽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는 말했다.

"뭐야? 무슨 일이지, 친구? 얼굴이 하얗게 질렸군."

오랜 친구가 축 늘어져 있는 팔을 내보이며 더듬거렸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팔이 너무 아파요."

"팔이 아프다고? 심한 건가?"

"네… 네… 오른쪽 팔이에요."

그는 아무리 애를 써도 팔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헐록이 팔을 살폈다. 먼저 살며시 만진 뒤, 점점 세게 누르며 말했다.

"통증의 정도를 정확히 가늠해 봐야겠군."

그런데 통증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헐록은 몹시 불안해졌다. 그는 근처 약국으로 들어갔다. 그 옆에서 윌슨은 기절할 뻔했다.

약사와 조수들은 서둘러 움직였다. 팔이 부러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외과 의사, 수술,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다. 기다리는 동안 환자의 옷을 벗겼고, 환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좋아… 좋아… 완벽하군." 팔을 붙잡고 있던 숌즈가 말했다. "조금만 참으시죠, 동지. 다섯, 여섯 주만 지나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놈들은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겠소. 이 악당들 말이오… 특히 그놈을요. 이번에도 그 망할 뤼팽이 저지른 짓일 테니까요. 아, 내가 맹세하오. 만약 내가 다시…"

그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팔을 놓아버리자 윌슨은 극심한 통증에 펄쩍 뛰며 다시 의식을 잃고 말았다. 숌즈는 이마를 치며 또박또박 말했다.

"윌슨, 내가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혹시나 해서 말인데……"

그는 움직이지도 않았다. 눈빛만 고정한 채, 작은 문장 조각들을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모든 게 설명되겠어. 우리는 자기 옆에 있는 걸 찾으려다 너무 멀리만 찾아다니곤 하지. 아, 참 나!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건데. 아, 내 착한 윌슨, 이제 너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게 될 거야!"

그는 오랜 친구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거리로 뛰어나가 25번지까지 달렸다.

문 위쪽, 오른쪽 돌벽에는 '건축가 데탕주, 1875년'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23번지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의 일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저쪽, 앙리 마르틴 대로에서는 무엇을 읽게 될까?

한 대의 마차가 지나갔다.

"마부, 앙리 마르틴 대로 134번지로, 전속력으로 달려 주게."

그는 마차 위에 서서 말을 재촉하고, 마부에게 팁을 건넸다. "더 빨리! 더 빨리!"

퐁프 거리 모퉁이를 돌아설 때, 그의 불안은 얼마나 컸던가! 그가 얼핏 본 것이 조금이라도 진실이었을까?

저택 돌벽 한쪽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건축가 데탕주, 1874년.'

이웃 건물들 벽에도 같은 글자가 있었다. '건축가 데탕주, 1874년……'

이 벅찬 감정의 여파로 그는 몇 분간 마차 바닥에 주저앉아, 기쁨에 온몸을 떨었다. 드디어 어둠 한가운데에서 작은 불빛이 가물거렸다. 천 갈래 길이 얽힌 거대하고 어두운 숲속에서, 그는 마침내 적이 지나간 자취의 첫 번째 표시를 발견한 것이다.

우편국에서 그는 크로손 성으로 전화를 연결해 달라고 했다. 성주 부인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부인께서 맞으신가요?"

"숌즈 씨, 맞죠? 아무 일 없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 잠깐만요. 여보세요, 단 한 마디만요."

"네, 듣고 있습니다."

"크로손 성은 언제 지어졌나요?"

"삼십 년 전 불타버렸다가 다시 지었어요."

"누가, 그리고 언제 말인가요?"

"현관 계단 위에 새겨진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건축가 뤼시앙 데스탕, 1877년.'"

"감사합니다, 부인. 안녕히 계십시오."

그는 중얼거리며 다시 길을 나섰다.

"데스탕…… 뤼시앙 데스탕…… 이 이름, 어딘가 낯이 익은데."

그는 독서실을 발견하고는 현대 인물사전 한 권을 찾아 들었다. 그리고는 '뤼시앙 데스탕'에 대한 항목을 베껴 적었다.

"1840년생. 로마 그랑프리 수상자. 레지옹 도뇌르 훈장 수훈자. 건축 관련 저술가로 널리 인정받은 작품들을 남긴 인물 등등."

그런 뒤 그는 약국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건강 관리소로 갔다. 그곳에 윌슨이 옮겨져 있었다.

고통의 침대 위에 누운 윌슨은 팔을 고정대에 묶인 채 고열로 떨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승리다! 승리다!"

숌즈가 외쳤다. "나는 실의 끝을 잡았다."

"어떤 실 말이야?"

"나를 목적지로 이끌어 줄 실이지. 나는 이제 단단한 땅을 딛고 걸을 거야. 발자국도, 단서도 있을 테니까."

"담배 재 같은 건가요?"

윌슨이 물었다. 상황의 긴장감이 그를 깨워 주고 있었다.

"그 밖에도 더 많은 게 있소! 생각해 보시오, 윌슨. 금발의 여인이 벌인 여러 사건을 서로 잇는 그 신비로운 고리를 내가 풀어냈소. 뤼팽은 왜 그 세 사건이 끝난 세 저택을 골랐을까?"

"그래서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세 저택이 모두 같은 건축가가 지은 것이기 때문이오, 윌슨. '그거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 아니냐'고 말하겠지? 물론이오. 그래서 아무도 그걸 떠올리지 못한 거요."

"아무도요. 오직 당신만 빼고."

"그래, 나만 빼고. 이제 나는 그 건축가가 비슷한 도면을 짜 맞춰, 겉보기엔 기적 같지만 실제로는 간단하고 쉬운 세 가지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걸 알아냈소."

"정말 대단하시군요!"

"그리고 때마침이었소, 옛 동무. 나도 슬슬 인내심이 바닥나던 참이었거든…… 오늘로 벌써 나흘째니까."

"열흘 중에 말이죠."

"오, 이제부터는……"

그는 평소와 달리 들떠서 즐거운 듯 한자리에 가만있지 못했다.

"참, 그런데 말이오. 아까 거리에서 그놈들이 당신 팔만큼이나 쉽게 내 팔도 부러뜨릴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오, 윌슨?"

윌슨은 그 끔찍한 상상에 몸을 떨 뿐이었다. 그러자 숌즈가 다시 말했다.

"이 일을 교훈으로 삼읍시다! 보시오, 윌슨, 우리의 큰 잘못은 뤼팽과 정면으로 맞붙은 것이었소. 그래도 절반의 손해로 그친 셈이오. 그가 당신만 다치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 대가가 부러진 팔 하나라니." 윌슨이 신음하듯 말했다.

"양쪽 다 부러질 수도 있었지. 하지만 더는 허세 부리지 마. 대낮에 감시받으면 나는 진다. 어둠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적의 힘이 어떻든 내가 유리하다."

"가니마르가 도와줄 수도 있겠군요."

"절대 안 돼! '아르센 뤼팽이 여기 있다, 그의 은신처는 여기고, 이렇게 하면 그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가 알려준 두 주소 중 하나로 직접 가니마르를 찾아갈 거야. 페르골레즈 거리에 있는 그의 집, 아니면 샤틀레 광장의 스위스 선술집으로. 그전까지는 나 혼자 움직인다."

그는 침대로 다가가 윌슨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물론 아픈 쪽 어깨였다. 그리고 깊은 애정을 담아 그에게 말했다.

"몸조심하세요, 내 오랜 벗. 이제 당신의 임무는 아르센 뤼팽의 부하 두세 명을 붙잡아두는 겁니다. 그들이 제 흔적을 찾아 헤매며, 제가 당신의 안부를 확인하러 오기를 헛되이 기다리게 하는 거죠. 신뢰를 맡긴 임무입니다."

"신뢰를 맡긴 임무라니, 감사합니다." 윌슨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성을 다해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당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군요?"

"왜 돌아와야 하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는 별다른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물 좀 주실 수 없을까요?"

"물?"

"네, 목이 말라 죽겠어요. 열까지 있고……"

"당연하지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병을 두세 개 만지작거리다가 담배 한 봉지를 발견했다. 파이프에 불을 붙인 그는, 마치 친구의 간절한 부탁은 듣지도 못한 듯 그 자리를 떴다. 노년의 친구는 손이 닿지 않는 물 한 잔을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데스탕 씨!"

하인은 호텔 정문을 열어준 그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말제르브 광장과 몽샤냉 거리가 만나는 모퉁이에 우뚝 선 그 장엄한 저택이었다. 회색 머리에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작은 체격의 사내로, 청결 상태가 의심스러운 검은 롱코트는 자연이 유난히 볼품없게 빚어 놓은 기

형적인 몸에 맞춰져 있었다. 하인은 그에 걸맞은 경멸 섞인 어조로 대답했다.

"데스탕 씨가 여기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죠. 명함은 가지고 계신가요?"

손님은 명함을 건네지 않았다. 대신 소개장을 지니고 있었다. 하인은 그 편지를 데스탕 씨에게 가져갔다. 데스탕 씨는 새로 온 이 사람을 자신에게로 부르라고 명했다.

그는 호텔 날개편에 자리한, 둥글게 뻗은 거대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벽면은 온통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건축가라고 소개된 남자가 물었다.

"당신이 스틱만 씨죠?"

"네, 맞습니다."

"내 비서가 아파서 오지 못한다고 했다. 대신 당신이 오셔서, 내가 지시한 대로 그가 시작한 일반 서지 목록 작업을 이어가라고 했다. 특히 독일어 책 목록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거다. 이런 작업에 익숙한가?"

"네,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스틱만 씨가 독일식 억양으로 힘주어 대답했다.

이런 상황이라 협상은 금방 타결됐다. 데스탕 씨는 지체 없이 새 비서와 함께 일에 착수했다.

헐록 숌즈는 이미 현장에 들어와 있었다.

뤼팽의 감시를 피하고, 뤼시앙 데스탕이 딸 클로틸드와 함께 사는 저택에 침투하기 위해, 이 유명한 탐정은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했다. 그는 수많은 계책을 동원했고, 갖가지 이름으로 위장해 수많은 인물들의 호감과 비밀을 얻어내야 했다. 한마디로 사십팔 시간 동안 가장 복잡다단한 삶을 살아야 했다.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정도였다. 데스탕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쉬고 싶어했고, 사업에서 물러나 자신이 모은 건축 관련 책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먼지 쌓인 낡은 책들을 바라보고 만지는 것 말고는 어떤 즐거움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의 딸 클로틸드는 특이한 사람으로 통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늘 집 안에 틀어박혀 지냈지만, 저택의 다른 구역에 머물렀다. 그녀는 결코 외출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그는 데스탕 씨가 불러 주는 책 제목들을 장부에 적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모든 건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야. 하지만 한 발짝은 나아간 거지.

이 흥미진진한 수수께끼들 중 하나만큼은 내가 반드시 해답을 찾아내고 말 거야. 데스탕 씨가 아르센 뤼팽의 동업자인가? 여전히 그를 만나고 있는가?

세 채의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서류가 있는가?

그 서류들이 똑같이 장치가 된 다른 건물들의 주소까지 알려 주지 않을까? 뤼팽이 자신과 자기 패거리를 위해 따로 빼돌려 둔 건물들 말이야."

데스탕 씨가 아르센 뤼팽의 공범이라니!

이 존경받는 분은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은 위인이다. 그런데 그가 도둑과 함께 일했다는 가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게다가 설령 그가 뤼팽과 결탁했다 해도, 어떻게 30년 전에 아직 젖먹이였던 뤼팽의 탈옥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상관없었다. 영국인은 끝까지 집요했다.

그는 놀라운 직감과 자신만의 독특한 본능으로, 자기 주변을 맴도는 수수께끼를 감지하고 있었다.

호텔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는 그 기운을 느껴 왔다. 정확히 무엇인지 말로 짚어 낼 수는 없었지만, 그 사소한 단서들이 그에게 인상을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그는 아직 별다른 단서도 찾지 못했다.

오후 두 시가 되어서야 그는 클로틸드 데스탕을 처음 보았다. 그녀는 서재에 책을 찾으러 온 참이었다.

서른 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갈색 머리에, 행동이 느리고 조용했다. 표정에는 자기 세계에 깊이 잠겨 사는 사람 특유의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데스탕 씨와 몇 마디 나누고는, 숌즈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물러갔다.

오후는 지루하게 흘러갔다. 다섯 시가 되자 데스탕 씨가 나가겠다고 말했다. 숌즈는 홀로 남았다. 그는 둥근 방 중간쯤 높이에 매달린 원형 회랑에 서 있었다.

하늘빛이 서서히 흐려졌다. 숌즈도 떠날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우지끈, 나무 꺾이는 듯한 소리가 났다. 동시에 그는 방 안에 누군가 있다는 걸 느꼈다.

긴 시간이 한참 흘렀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오한이 쭉 끼쳤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바로 옆 발코니에서였다.

믿을 수 있는 일일까? 그 보이지 않는 인물은 언제부터 그와 함께 있었던 걸까? 또 어디서 나타난 걸까?

그 남자는 계단을 내려가 큰 참나무 옷장 쪽으로 향했다.

갤러리 난간에서 드리운 천 뒤에 숨어 무릎을 꿇고 있던 숌즈가 주시했다. 남장은 서랍 속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다. 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그때 문이 열리며 데스탕 씨가 급히 들어섰다. 이어지는 사람에게 말했다.

"그래도 정말 나가실 생각 없으세요, 아버지? …그럼 제가 켤게요… 잠깐만요… 움직이지 마세요…"

남자는 옷장 문을 밀어내고 넓은 창문 틈새로 숨어들었다. 커튼을 자신 쪽으로 당겨 몸을 가렸다.

데스탕 부인은 그를 보지 못했을까? 그의 숨소리도 듣지 못했을까?

그녀는 아주 차분하게 전등 스위치를 돌렸다. 그리고 아버지를 안으로 들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가져온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비서도 이제 없군요?" 잠시 후 그녀가 물었다.

"아니… 보시다시피."

"그래도 여전히 만족스럽습니까?" 그녀는 진짜 비서의 병과 스틱만이 그를 대신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 다시 물었다.

"물론이지… 물론이라고."

데스탕 부인의 고개가 좌우로 흔들렸다. 그는 잠이 들어버렸다.

잠시 시간이 흘렀다. 소녀는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다 창문 커튼 중 하나가 치워졌다. 남자가 벽을 따라 살며시 기어갔다. 문 쪽으로 향하는 동작이었다. 그는 데상즈 씨 뒤를 지나 클로틸드와 정면이 되었다. 숌즈는 그를 또렷이 볼 수 있었다.

아르센 뤼팽이었다.

영국인은 기쁨에 전율했다. 그의 계산은 정확했다. 그는 신비한 사건의 핵심에까지 파고들었고, 뤼팽은 예상대로 그곳에 나타나 있었다.

클로틸드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 남자의 사소한 동작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굳어 있었다.

뤼팽은 이미 문가에 다다랐다. 손잡이를 잡으려 팔을 뻗으려던 찰나, 그의 옷자락에 스치며 테이블에서 어떤 물체가 떨어졌다.

데스탕 신사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아르센 뤼팽은 이미 그 앞에 서 있었다. 모자를 들고 미소 짓는 채로.

"막심 베르몽!" 데스탕 신사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내 사랑하는 막심! 무슨 좋은 바람이 불어왔소?"

"당신을 뵙고 싶어서였습니다. 데스탕 부인도 함께요."

"여행에서 돌아오신 거요?"

"어제요. 그리고 내일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하실 생각은 없소?"

"아니요. 저는 식당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그럼 내일? 클로틸드, 내일 꼭 오라고 설득하게."

"아, 참 좋은 막심……. 요즈음 생각나던 차였소."

"정말요?"

"네, 옛날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이 서랍에서 우리 마지막 장부를 찾아냈소."

"어떤 장부요?"

"앙리 마르틴 거리 쪽 건물이요."

"세상에, 그런 구석진 서류까지 간직해 두다니! 무슨 소용이 있겠소!"

세 사람은 로통드에 이어진 넓은 창문으로 통하는 작은 서재로 자리를 옮겼다.

'저 사람은 뤼팽인가?'

숌즈는 문득 의심에 사로잡혔다.

분명히 그는 맞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또 다른 사람이었다. arsène 뤼팽과 외모의 일부는 닮았지만, 뚜렷한 개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의 얼굴 특징, 눈빛, 머리카락 색까지 모두 달랐다.

흰 크라바트를 매고, 부드러운 셔츠를 입은 그는 활기차게 말을 건넸다. 셔츠는 그의 가슴을 꼭 감싸고 있었다. 그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데스탕 씨는 배꼽을 잡을 듯이 웃었다. 클로틸드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 하나하나가 아르센 뤼팽이 노리고 있는 상이었다. 그는 그 미소를 얻어내자 기뻐했다. 그는 재치와 낙천성을 더했다. 그리고 그 기쁘고 맑은 목소리에 이끌려, 클로틸드의 얼굴은 생기를 띠었다. 차가워 보였던 그 표정은 서서히 사라졌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군." 숌즈가 생각했다. "하지만 클로틸드 데스탕과 막심 베르몽 사이에 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막심 베르몽이 바로 아르센 뤼팽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알고 있을까?"

일곱 시까지 그는 긴장한 채 귀를 기울이며, 들리는 말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제야 그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 쪽에서는 보이지 않을 만한 구석길을 따라 방을 가로질렀다.

밖으로 나온 숌즈는 주변을 살폈다. 정차한 자동차도, 마차도 없었다. 그는 절뚝거리며 말레르베르 대로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곧바로 옆 골목으로 들어선 그는 팔에 걸고 있던 코트를 어깨에 걸쳤다. 모자를 구겨서 쓰고는 등을 쭉 펴고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변장한 그는 다시 호텔 드탕스 앞 광장으로 돌아갔다. 그는 호텔 정문을 주시하며 기다렸다.

아르센 뤼팽은 거의 동시에 밖으로 나왔다. 그는 콘스탄틴 거리와 런던 거리를 지나 파리 중심가로 향했다. 백 보쯤 뒤에서 헐록이 그를 따라가고 있었다.

영국인에게는 정말로 달콤한 순간이었다. 그는 갓 발견한 발자취를 맡은 훌륭한 사냥개처럼 공기를 집요하게 들이마셨다. 상대를 쫓는다는 사실이 그에게 더없이 달콤하게 느껴졌다. 더 이상 그가 감시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아르센 뤼팽을 쫓는 것이었다. 그는 마치 끊을 수 없는 끈으로 묶인 듯이, 시선의 끝자락에서 뤼팽을 붙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산책객들 사이를 지나가는, 자신만의 사냥감을 발견하며 한껏 흥분했다.

하지만 곧 기묘한 현상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뤼팽과 자신 사이의 간격에 다른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특히 왼쪽 인도에서는 모자를 쓴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오른쪽 인도에서는 모자를 쓰고 입에 담배를 문 두 사람이 그를 따라가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뤼팽이 담배 가게로 들어갔을 때, 네 명의 남자가 멈춰 섰다. 숌즈는 더 놀랐다. 그들이 뤼팽과 동시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더욱 더 놀랐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모두 샤펠당탕 거리를 따라갔다.

"저주받았어," 숌즈가 생각했다. "정말 그를 미행하고 있구나!"

다른 이들이 아르센 뤼팽의 발자취를 좇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영광이 아니라—even 그 영광 따위야 뤼팽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그가 혼자서 마주한 가장 무서운 적을 단숨에 제압하는 그 거대한 쾌감, 그 뜨거운 쾌락을 다른 이들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를 격분시켰다.

하지만 오해일 리 없었다. 그 남자들은 분명히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신의 걸음걸이를 다른 사람의 발걸음에 맞추면서도, 지나치게 자연스럽고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니마르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걸까?" 숌즈가 중얼거렸다. "내가 장난치고 있는 걸까?"

그는 네 사람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의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대로에 가까워질수록 인파가 더 빽빽해졌다. 그는 뤼팽을 잃을까 봐 두려워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뤼팽은 들뢰 거리 모퉁이에 있는 헝가리 레스토랑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숌즈는 거리 반대편 벤치에 앉아 있는 그대로 뤼팽이 꽃이 장식된 호화롭게 차려진 테이블에 앉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테이블에는 이미 정장을 입은 세 명의 신사와 매우 우아한 두 명의 부인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뤼팽을 보고 친절한 인사로 맞이했다.

헐록은 네 사람을 눈으로 찾았다. 그리고 곧 발견했다. 그들은 근처 카페의 집시 오케스트라를 듣고 있는 군중 속에 흩어져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아르센 뤼팽의 동향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둘러싼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 중 한 명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레드ᄀᆡ고트와 상모를 쓴 한 신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 신사는 시가를 내보였고, 숌즈는 그들이 담배에 불을 붙이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수다를 떨고 있다고 느꼈다.

마침내 그 신사는 현관 계단을 올라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뤼팽을 발견한 그는 다가가 잠시 대화를 나눈 뒤, 근처 테이블 중 하나를 선택했다. 숌즈는 그 신사가 바로 앙리 마르틴 대로에서 본 기수임을 확인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아르센 뤼팽은 감시당하지도 않았거니와, 이 남자들은 그의 일당이었다! 이 남자들이 그의 안전을 지켰다. 그들은 그의 경호원들이었고, 위성들이었으며, 세심한 호위대였다. 주군이 위험에 처한 곳이면 어디든 동조자들이 있어 그를 일러주거나, 그를 지키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네 명의 남자들이 동조자였다! 레딩코트를 입은 그 신사도 동조자였다.

한 떨림이 영국인을 휩쓸었다. 도대체 그는 이 접근 불가능한 존재를 어떻게 잡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지도자를 둔 이 같은 결사는 어떤 무한한 힘을 지닌 것인가.

그는 노트에서 한 장을 찢어내어 연필로 몇 줄을 적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봉투에 넣어 열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에게 건넸다. 소년은 벤치에 누워 있었다.

"얘야, 차 한 대 잡아 이 편지를 쵸테플 광장에 있는 스위스 여관 여관장에게 전해라. 서둘러."

그는 아이에게 5프랑 동전을 건넸다. 아이는 사라졌다.

반시간이 흘렀다. 인파는 더 불어났고, 숌즈는 드물게 뤼팽의 부하들만 겨우 식별할 수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를 스치며 귓가에 속삭였다.

"자, 어떻게 됐소, 숌즈 씨?"

"당신이지, 가니마르 씨?"

"네, 여관에서 당신의 편지를 받았소. 무슨 일인가?"

"그가 여기 있다."

"무슨 말씀이오?"

"저기, 식당 끝자리요…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 보시오. 보이시오?"

"그가 옆 여자한테 샴페인을 따르고 있군."

"아니, 그건 그가 아니야."

"그가 맞소."

"전 확신합니다… 아, 하지만… 사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 이 간사한 놈, 여전히 제 모습 그대로네요." 가니마르가 순진한 투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른 자들은? 공범들인가요?"

"아니요. 그의 옆에 앉은 여자는 클라이브든 부인이고, 다른 한 명은 클리스 공작부인, 맞은편에는 런던 주재 스페인 대사가 있죠."

가니마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헐록이 그를 막아섰다.

"무모하군요. 당신은 혼자입니다."

"그도 혼자예요."

"아닙니다. 큰길에는 경비를 서는 부하들이 있죠. 게다가 이 레스토랑 안에는 또 다른 '그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르센 뤼팽의 멱살을 잡고 그의 이름을 외치면, 식당 안의 모든 사람, 웨이터들까지 제 편이 될 겁니다."

"전 경찰관 몇 명이 더 좋겠네요."

"그랬다간 아르센 뤼팽의 친구들이 눈치를 챌 겁니다… 아니, 보십시오, 숌즈 씨,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숌즈는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직감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시도하며 이 절호의 기회를 활용하는 편이 나았다. 그는 가니마르에게 단 한 가지만 당부했다.

"최대한 늦게까지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숌즈 자신은 신문 가판대 뒤로 슬그머니 몸을 숨겼다. 저쪽에서 옆자리 여인에게 몸을 기울인 채 미소 짓고 있는 아르센 뤼팽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가니마르 형사는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오직 앞만 보고 걷는 사람처럼 거리를 건넜다. 하지만 반대편 보도에 발을 디디자마자 급히 방향을 틀더니 단숨에 현관 계단을 뛰어올랐다.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울렸다.

가니마르는 문턱을 갑자기 가로막은 주임 웨이터와 부딪혔다. 웨이터는 그를 거칠게 밀어냈다. 마치 신분이 의심스러운 침입자가 식당의 호화로운 분위기를 더럽히기라도 한 듯, 그는 분노에 찬 눈초리로 가니마르를 쫓아냈다.

가니마르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때, 프록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밖으로 나왔다. 그는 가니마르 편을 들었다. 주임 웨이터와 그 남자는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다. 둘 다 가니마르에게 매달려 있었다. 한쪽은 그를 붙잡고, 다른 한쪽은 밀어냈다.

가니마르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결국 계단 아래까지 밀려나고 말았다.

순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소리에 이끌린 경찰관 두 명이 군중을 헤치고 나가려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저항에 발이 묶였다. 어깨에 짓눌리고 등에 막혀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마법처럼 길이 뚫렸다.

주임 웨이터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끝없이 사과했다. 프록코트를 입은 신사는 형사를 지키려던 시도를 접었고, 군중은 옆으로 물러났다. 경찰관들이 지나가고, 가니마르 형사는 여섯 명이 앉아 있던 식탁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자리는 다섯 개뿐이었다.

형사는 주변을 두루 살폈다. 나갈 수 있는 곳은 문뿐이었다.

"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누구요?" 형사가 어리둥절해하는 다섯 명에게 소리쳤다. "여러분은 여섯 명이셨죠. 여섯 번째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데스트로 씨요?"

"아니, 아르센 뤼팽이요?"

한 종업원이 다가온다.

"그 신사가 방금 중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니마르가 서두른다. 중간층은 개별 손님을 위한 방들로 이루어져 있고, 큰길 쪽으로 난 특별한 출구가 있다.

"이제 가서 잡아 보시오." 가니마르가 신음하듯 내뱉었다. "벌써 멀리 갔는걸!"

… 하지만 그는 그리 멀리 가지 않았다. 불과 이백 미터쯤 떨어진 곳, 마들렌에서 바스티유로 가는 합승마차 안이었다. 마차는 세 마리 말이 천천히 종종걸음을 치며 느릿느릿 굴러가고 있었다. 오페라 광장을 지나 카퓌신 대로로 향하고 있었다.

마차 뒤쪽 승강대에는 중산모를 쓴 키 큰 두 남자가 수군거렸다. 그 위, 계단 꼭대기 이층 좌석에는 늙고 자그마한 사내가 졸고 있었다. 헐록 숌즈였다.

머리를 꾸벅꾸벅 흔들며, 차의 흔들림에 몸을 맡긴 영국인은 혼자 중얼거렸다.

"내 착한 윌슨이 지금 나를 본다면, 제 동료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 하지만 어쨌든 말이다. 호각 소리가 울리는 순간, 이미 패배한 게임임을 알 수 있었지. 이제 남은 건 식당 주변을 감시하는 일뿐이었어. 하지만 정말이지, 이 악마 같은 남자와 함께라면 삶은 결코 지루하지 않군!"

종착역에 다다르자, 헐록 숌즈는 몸을 내밀어 아르센 뤼팽이 자신의 호위들을 지나쳐 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에투알로."

"에투알이라, 좋아. 거기서 만나자는 거군. 나도 가지. 저자는 저 자동차 삯마차로 달아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차를 타고 두 동료를 따라가자."

두 동행자는 걸어서 에투알 광장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샤를랭 거리 40번지, 좁은 골목에 자리한 한 집 앞에 다다라 초인종을 울렸다.

이 골목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골목이 꺾이는 모퉁이, 그림자가 드리운 오목한 곳에 숌즈는 몸을 숨겼다.

1층 창문 중 하나가 열렸다. 둥근 모자를 쓴 한 남자가 덧문을 닫았다. 덧문 위쪽의 채광창에 불이 들어왔다.

십 분쯤 지나자 한 신사가 그 문 앞에 다다라 초인종을 울렸다. 이어 곧바로 다른 사내가 나타났다. 그리고 마침내 자동차 삯마차가 멈춰 섰다. 숌즈는 마차에서 두 사람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아르센 뤼팽과, 망토를 두르고 두꺼운 베일로 얼굴을 가린 한 여인이었다.

'틀림없이 금발의 여인이군.' 숌즈는 마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는 잠시 시간이 흐르도록 기다렸다가, 집으로 다가가 창틀을 기어올랐다. 발끝으로 서서 채광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르센 뤼팽은 벽난로에 기대어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를 둘러싸고 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숌즈는 그들 사이에서 프록코트를 입은 남자를 알아봤고, 식당의 주임 웨이터로 보이는 사람도 알아본 듯했다. 금발의 여인은 등을 돌린 채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회의를 하는군.' 숌즈는 생각했다. '오늘 밤의 사건들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 거야. 의논할 필요를 느끼는 모양이지. 아, 이들을 한꺼번에, 단번에 붙잡을 수 있다면!'

공범이 움직이자, 그는 곧장 땅으로 뛰어내려 그림자 속으로 파고들었다. 프록코트를 입은 그 신사와 주임 웨이터가 집에서 나왔다.

곧 2층에 불이 켜졌다. 누군가 창문의 덧문을 닫았다. 그러자 위층도 아래층도 어둠에 잠겼다.

'그녀와 그는 1층에 남아 있군. 두 공범은 2층에 사는 모양이야.'

헐록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르센 뤼팽이 달아나지 않을까 걱정되어, 밤의 상당 부분을 꼼짝 않고 기다렸다.

새벽 네 시, 거리 끝에서 경찰관 두 명이 보이자 그는 그들에게 달려갔다. 상황을 설명하고 집 감시를 그들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는 페르골레즈 거리에 있는 가니마르의 집으로 가, 그를 깨우게 했다.

"내가 아직 그를 잡고 있어."

"아르센 뤼팽?"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다시 침대에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어쨌든 경찰서로 가시죠."

그들은 메닐 거리까지 갔고, 그곳에서 다시 디콩트르 경감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고는 부하 여섯 명 남짓을 데리고 샤를랭 거리로 돌아왔다.

"새로운 단서는 없나요?" 숌즈가 보초를 서던 두 경찰에게 물었다.

"없습니다."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경감은 준비를 마치고 초인종을 울린 뒤 관리인 여자의 방으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침입에 놀란 노파는 몸을 떨며, 1층에는 세입자가 없다고 대답했다.

"뭐, 세입자가 없다고?" 가니마르가 외쳤다.

"아니에요. 2층에 사는 레루 씨네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방에서 온 친척들을 위해 아래층에 가구를 들여 꾸며 두셨거든요."

"남자와 여자 두 분?"

"어젯밤 그들과 함께 온 이들은 누구인가?"

"아마도… 저는 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열쇠가 있죠… 그분들은 열쇠를 달라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열쇠로 경감은 현관 맞은편에 있는 문을 열었다. 1층에는 방이 두 개뿐이었는데, 둘 다 비어 있었다.

"말도 안 돼!" 숌즈가 외쳤다. "그 여자와 그 남자를 분명히 제 눈으로 봤습니다."

경감은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저도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여기에 없습니다."

"2층으로 올라갑시다. 분명 거기 있을 겁니다."

"2층에는 르루라는 신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계단을 올라갔다. 경감이 초인종을 울렸다. 두 번째로 울리자, 다름 아닌 그 호위 중 한 명이 셔츠 차림으로 화가 난 표정으로 나타났다.

"이봐, 뭐야? 왜 이리 시끄러워… 사람들 자게 좀 놔둬…"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다. 어안이 벙벙해진 것이다.

"맙소사… 정말, 이게 꿈은 아니겠지? 디콩트르 씨라니! 게다가 가니마르 씨도 함께? 대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거대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가니마르는 허리가 반으로 접힐 만큼 웃음을 터뜨렸고, 얼굴이 시뻘겋게 충혈되었다.

"자네였군, 르루…" 그가 더듬더듬 말했다. "오, 정말 우습군… 르루가, 아르센 뤼팽의 공범이라니… 아, 웃다가 죽겠어… 그래, 자네 형제 르루는 볼 수 있나?"

"에드몽, 거기 있니? 가니마르 씨가 우리를 찾아오셨다…"

또 다른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가니마르의 즐거움은 한층 더해졌다.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람! 상상도 못 했군. 자, 친구들, 자네들 아주 큰일 났어… 누가 이런 일을 짐작이나 했겠나! 다행히 이 노련한 가니마르가 지켜보고 있었지. 게다가 그를 도와줄 친구들까지 있고 말이야… 멀리서 달려와 준 친구들 말일세!"

그가 몸을 돌려 숌즈에게 소개했다. "빅토르 르루입니다. 보안국 형사로, 철의 여단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형사지요. 그리고 에드몽 르루, 인체측정과 수석 서기입니다."

제5장

헐록 숌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항의할까? 이 두 남자를 고발할까?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시간을 허비할 생각도 없었다. 증거가 없다면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전체적으로 긴장한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승리의 미소를 띤 가니마르 형사 앞에서 자신의 분노와 실망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는 사회의 든든한 기둥인 르루 형제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뒤, 자리를 떴다.

현관으로 나가는 길, 그는 지하실 입구를 알리는 낮은 쪽 문 쪽으로 발길을 돌려 작은 돌멩이를 주워 들었다. 붉은 빛을 띤 그 돌은 석류석이었다.

밖으로 나온 그는 뒤를 돌아보며 집 번호 40번 근처에 새겨진 글자를 읽었다. “루시앙 데스탕, 건축가, 1877년”.

번호 42번에도 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역시 두 개의 출구였군.’

그가 속으로 생각했다.

‘40호와 42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니.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오늘 밤은 두 형사와 함께 있어야 했는데.’

그는 두 형사에게 물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 문으로 나간 사람이 두 명 있었죠?”

그가 가리킨 곳은 이웃집 문이었다.

“네, 한 분과 한 부인이 나갔습니다.”

그는 수석 형사의 팔을 잡더니 그를 끌어당겼다.

“가니마르 형사, 너무 많이 웃으셨으니 제가 드린 작은 번거로움쯤은 용서해 주시겠죠.”

“아니요,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농담도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는 법입니다. 이제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군요.”

“저도 동의합니다.”

"일곱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사흘 뒤에는 반드시 런던에 도착해야 합니다."

"오, 오!"

"저도 가겠습니다, 선생님.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준비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작전이라는 뜻이오?" 가니마르 형사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네, 같은 작전입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어떻게 끝날까요?"

"뤼팽의 체포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오?"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선생님."

숌즈는 인사를 하고는 가장 가까운 호텔로 가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기운을 차리고 자신감에 넘친 그는 다시 샤를랭 거리로 돌아갔다. 그는 문지기에게 루이 두 개를 쥐여주고, 르루 형제들이 떠났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그 집이 하르망주라는 신사의 소유라는 사실도 알아냈다.

촛불 하나를 든 숌즈는 그 돌을 줍던 작은 문을 통해 지하실로 내려갔다.

계단 바닥에서 그는 또 다른 돌을 하나 주워 들었다. 모양은 똑같았다.

'맞았군. 여기가 통로야.'

그가 생각했다. '자, 내 만능 열쇠가 1층 세입자에게 배정된 지하 광문을 열 수 있을까?'

'응, 잘 들어간다. 완벽해.'

그는 와인 선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오호? 여기는 먼지가 닦인 자국이군. 바닥에는 발자국도 있고.'

갑자기 가벼운 소리가 났다. 귀를 기울인 그는 재빨리 문을 밀어 닫고, 촛불을 끄며 빈 상자 더미 뒤로 숨었다.

몇 초 후, 그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철제 선반 중 하나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선반에 고정된 벽면 일부도 함께 움직였다.

그리고 등불 빛이 비쳤다. 한 팔이 나타났다.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손끝으로 먼지를 뒤적거리다가는 몇 번이나 몸을 일으켜, 왼손에 쥔 종이 상자에 무언가를 던져 넣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발자국 자국을 지웠다. 뤼팽과 금발 여자가 남긴 발자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다시 사물함 쪽으로 다가가려 했다.

그때 그가 목메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숍즈가 그에게 덤볐기 때문이다.

순간이었다. 단 한 분의 시간. 숍즈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를 제압했다. 남자는 바닥에 드러누웠고, 발목은 묶였으며, 손목은 단단히 동여매여 있었다.

영국인이 고개를 숙였다.

"말할 생각이야? 알고 있는 걸 다 털어놓을 생각이야? 얼마면 해?"

그 남자는 대답 대신, 지독한 조소가 섞인 미소를 지었다. 숍즈는 자신의 질문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포로가 된 남자의 주머니를 뒤져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건진 것은 열쇠 꾸러미 하나, 손수건 하나, 그리고 작은 종이 상자 하나뿐이었다. 그 상자는 남자가 사용하던 것이었고, 안에는 숍즈가 모은 것과 똑같은 석류석 열두 개가 들어 있었다. 고작 그런 거라니, 보물이라 할 것도 없었다.

게다가 그는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들이 구하러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모두 경찰에게 넘겨야 할까? 그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뤼팽을 상대하는 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가 망설이고 있을 때, 상자를 다시 살펴본 것이 그를 결심하게 만들었다. 상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레오나르, 보석상, 평화의 거리」

그는 그냥 그 남자를 버리기로 했다. 사물함을 밀쳐 넣고, 지하실 문을 닫은 뒤 집 밖으로 나갔다. 우체국에서 작은 푸른 편지를 써 데스탕 씨에게 보냈다. 내일 올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보석상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석류석을 건넸다.

"마님이 이 돌들 때문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사신 보석에서 떨어진 것들입니다."

숌즈의 추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상인이 이렇게 답했다.

"맞습니다… 그 부인이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곧 직접 오실 거라고요."

숌즈는 오후 다섯 시가 되어서야 보도에 자리를 잡고 섰다. 두꺼운 베일로 얼굴을 가린 한 부인이 눈에 띄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수상해 보였다. 숌즈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카운터에 석류석으로 장식된 오래된 보석을 올려놓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녀는 곧장 자리를 떠났다. 걸어서 볼일을 보고, 클리시 쪽으로 올라갔다. 영국인이 모르는 거리들을 돌아 들어갔다.

해가 저물 무렵, 그는 그 뒤를 바싹 따라붙었다. 관리인이 그를 알아채지 못한 사이, 그는 다섯 층짜리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건물은 두 동으로 나뉘어 있어 입주민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둘째 층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2분 뒤, 영국인이 기회를 노렸다. 그는 손에 쥔 열쇠 더미에서 하나씩 조심스럽게 골라가며 잠금을 풀어보았다. 네 번째 열쇠가 제 역할을 했다.

그가 둘러본 방은 비어 있었다. 빈 집처럼 텅 비어 있고, 문들은 모두 열려 있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램프 빛이 새어 나왔다. 그는 발끝으로 살며시 다가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울처럼 반사되지 않는 유리로 된 칸막이가 거실과 옆방을 나누고 있었다.

그곳에서 베일을 쓴 여인이 옷과 모자를 벗었다. 그녀는 방에 있는 유일한 의자에 그것들을 올려놓더니, 벨벳 가운을 두르고 몸을 감쌌다.

그녀는 벽난로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전기 벨 버튼을 눌렀다.

벽난로 오른쪽에 있던 벽면의 절반이 움직였다. 벽면과 같은 각도로 미끄러지며, 옆 벽 안쪽으로 쑥 들어갔다.

문이 어느 정도 벌어지자, 여인이 그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램프를 든 채 순식간에 사라졌다.

장치는 단순했다. 숌즈도 똑같이 따라 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걸었다. 그러자마자 얼굴이 부드러운 무언가에 부딪혔다. 성냥불을 켜 보니, 그는 옷과 드레스가 봉에 걸린 채 어지럽게 들어찬 작은 골방에 서 있었다. 그는 옷들을 헤치고 길을 만들어 나갔다. 그리고 벽지로, 혹은 적어도 벽지 뒷면으로 가려진 닫힌 문 앞에 멈춰 섰다. 성냥불이 다 타 사라지자, 낡고 헐거운 천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때 그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금발의 여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손이 닿을 거리였다.

그녀는 램프를 끄고 전등을 켰다. 처음으로 숌즈는 그녀의 얼굴을 선명한 빛 아래서 볼 수 있었다. 그는 놀라 몸을 떨었다.

그가 수많은 우회와 술책 끝에 마침내 찾아낸 여인은 바로 클로틸드 데스탕이었다.

클로틸드 데스탕. 오트렉 남작을 살해한 살인자이자, 푸른 다이아몬드를 훔친 도둑! 클로틸드 데스탕. 아르센 뤼팽의 신비한 친구!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금발의 여인'!

'아, 정말로 나는 바보였군.' 숌즈가 생각했다. '뤼팽의 친구가 금발이고 클로틸드가 갈색 머리라고 해서, 두 여인을 서로 연결해 생각지 못하다니! 남작을 죽이고 푸른 다이아몬드를 훔친 뒤에도 금발의 여인이 금발 그대로일 리가 없는데.'

숌즈는 방 안의 한쪽 구석이 보였다. 우아한 여성용 규방이었다. 밝은 커튼과 값비싼 소품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마호가니로 만든 긴 의자가 낮은 단 위에 놓여 있었다. 클로틸드가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잠시 후, 숌즈는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굵은 눈물이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 입술 쪽으로 미끄러지더니, 상의의 벨벳 위에 한 방울씩 떨어졌다. 그리고 그 눈물 뒤로 끝없이 이어지는 눈물들이 따라왔다. 마치 고갈되지 않는 샘물에서 솟구쳐 오르는 듯했다. 느리게 흐르는 눈물로 표현되는 그 침묵의 절망은 더없이 슬픈 광경이었다.

하지만 문이 그녀 뒤에서 열렸다. 아르센 뤼팽이 들어왔다.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다.

그가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기대게 하고, 팔로 그녀를 감쌌다. 그 포옹 속에는 깊은 애정과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부드러운 침묵이 그들을 연결했고, 눈물도 한결 잦아들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가 속삭였다.

"저는 행복해요."

"아니야. 당신이 울고 있잖아. 클로틸드, 당신의 눈물은 나를 절망하게 해요."

그럼에도 그녀는 그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에 홀렸다. 희망과 행복을 갈구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여전히 너무도 슬픈 미소였다.

그가 간청했다.

"슬퍼하지 마요, 클로틸드. 슬퍼할 권리가 없어요."

그녀는 하얗고 가늘며 유연한 손을 내보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이 손이 내 손인 한, 나는 슬플 거야, 막심."

"왜 그래?"

"이 손으로 사람을 죽였거든."

막심이 소리쳤다.

"입 다물어! 그런 생각 하지 마. 과거는 이미 죽었어.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는 창백한 그녀의 긴 손을 입으로 맞추었다. 그녀는 더 밝은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입맞춤 하나마다 끔찍한 기억이 조금씩 지워지는 것 같았다.

"나를 사랑해야 해, 막심. 그래야 해. 왜냐하면 나처럼 너를 사랑하는 여자는 없으니까.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나는 행동했고, 지금도 행

동하고 있어. 네가 내린 명령 따위가 아니야. 네가 숨기고 있던 진정한 욕망을 따라 움직인 거지."

"내 본능과 양심이 모두 반발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어. 하지만 나는 저항할 수 없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기계적으로, 네게 도움이 되고 네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내일도, 영원히 이 일을 반복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클로틸드, 왜 내 모험적인 삶에 너를 끌어들이고 말았을까? 나는 다섯 해 전 네가 사랑했던 그 막심 베르몽으로 남아 있었어야 했어. 네게 또 다른 남자, 바로 지금의 나를 알리지 말았어야 했지."

그녀는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 다른 남자를 사랑해. 후회하는 일은 없어."

"아니, 당신은 과거의 삶을, 떳떳하게 드러내 놓고 살던 그 삶을 그리워하고 있어."

"당신이 곁에 있으니 후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녀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당신의 눈이 나를 바라보면 죄도, 잘못도 사라집니다. 당신 없이 불행해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내가 한 모든 일을 혐오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당신의 사랑이 모든 것을 지워버립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당신, 저를 사랑해야 해요!"

"클로틸드, 내가 사랑해야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오직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정말 그러세요?" 그녀가 온전히 신뢰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나 자신만큼 당신을 믿어. 다만 내 삶은 격렬하고 열정적이어서, 원할 때마다 항상 당신에게 시간을 바칠 수는 없단다."

그녀는 즉시 당황했다.

"무슨 일이에요? 새로운 위험이라도 닥친 건가요? 빨리 말해 주세요."

"아직은 큰일이 아니야. 그래도…"

"그래서?"

"그 놈이 우리 뒤를 쫓고 있어."

"숌즈?"

"그래. 그가 가니마르를 헝가리 레스토랑 사건에 뛰어들게 했지. 그리고 오늘 밤, 샬그랭 거리에 형사 두 명을 배치한 것도 그 놈이야. 내게 분명한 증거가 있어. 가니마르가 오늘 아침 그 집을 수색했을 때, 숌즈가 함께 있었거든. 게다가…"

"더?"

"다른 문제도 있어. 우리 편에서 한 명이 빠졌어. 자니오 말이야."

"문지기?"

"내가 오늘 아침 샬그랭 거리로 보낸 사람이야. 내 브로치에서 떨어진 석류석들을 주워 오라고."

"틀림없어. 숌즈가 그를 함정에 빠뜨렸겠지."

"아니야. 석류석들은 라 페 거리 보석상으로 전달됐어."

"그럼 그 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오, 막심, 나 무서워."

"겁낼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그의 힘은 고립에서 나옵니다. 그를 배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극도의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클로틸드. 오래전부터 저는 거처를 바꾸어, 당신도 잘 아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은신처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숌즈의 개입이 그 일을 앞당겼을 뿐입니다. 그와 같은 남자가 단서를 쫓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그 끝까지 도달하고 만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쳐 두었습니다."

"모레, 수요일에 이사합니다. 정오면 끝납니다. 오후 두 시쯤이면 우리 거처의 마지막 흔적까지 치운 뒤에 저 자신도 그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지요. 그전까지…"

"그전까지요?"

"우리는 만나서는 안 돼. 클로틸드, 아무도 너를 봐서는 안 돼. 집 밖으로 나가지 마. 나에겐 두려울 게 없어. 하지만 너에 관한 일이라면 모든 게 두렵지."

"그 영국인이 저에게까지 닿을 리가 없어요."

"그자에겐 못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나는 경계하고 있어. 어제 네 아버지께 들킬 뻔했을 때, 나는 데스탕주 씨의 옛 장부들이 들어 있는 찬장을 뒤지러 갔던 거야. 거기에 위험이 있어. 위험은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어. 그림자 속에서 맴돌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적이 느껴져. 그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향해 그물을 치고 있는 게 느껴져. 이건 나를 한 번도 속인 적 없는 직감이야."

"그렇다면," 그녀가 말했다. "가세요, 막심. 제 눈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강해지겠어요.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막심."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는 스스로 그를 문밖으로 밀어냈다. 숌즈는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어제부터 그를 부추겨 온, 모든 것을 무릅쓰고 무언가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충동에 휩싸인 그는, 당당하게 곁방으로 들어섰다. 그 끝에는 계단이 있었다. 하지만 내려가려던 순간, 아래층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숌즈는 계단을 내려가기보다, 다른 계단으로 이어지는 둥근 복도를 따라가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 계단을 내려가자, 그는 깜짝 놀랐다. 이미 그 형태와 위치를 잘 알고 있는 가구들이 그곳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문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는 그 틈으로 큰 원형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데스탕주 씨의 서재였다.

"완벽하다! 경이롭다!" 그가 중얼거렸다. "모든 것이 이해된다. 클로틸드의 부두아르, 즉 금발 여인의 방이 이웃 집의 한 방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웃 집의 출입구는 말레르베 광장이 아닌, 인접한 거리인 몽샤냉 거리로 나 있다. 내 기억이 맞다면 말이다. 훌륭하다! 클로틸드 데스탕주가 어떻게 한 번도 외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유지하면서도 연인을 만나러 가는지 알겠다. 그리고 어제 밤, 발코니에서 아르센 뤼팽이 어떻게 내 곁에 불쑥 나타났는지도 설명된다. 이웃 방과 이 서재 사이에 또 다른 통로가 있는 게 분명하니까."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렸다.

"또 한 번 속임수를 부린 집이야. 이번에도 분명 데스탕주 건축가의 솜씨겠지. 이제 내가 여기 들른 김에 옷장 속을 뒤져 다른 속임수 집들에 대한 자료를 모을 차례야."

솜즈는 발코니로 올라가 난간에 드리운 천 뒤로 몸을 숨겼다. 그는 저녁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하인이 들어와 전등 불을 껐다. 한 시간 뒤, 영국인은 랜턴의 스프링을 작동시키며 옷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예상한 대로, 옷장 안에는 건축가의 옛 문서들이 가득했다. 파일과 견적서, 회계 장부들이었다. 뒤쪽에는 오래된 순서대로 정리된 일련의 장부들이 쭉 서 있었다.

그는 최근 몇 해의 장부를 번갈아 들춰보았다. 그러자마자 요약 페이지를 살펴봤고, 특히 'H'로 시작하는 항목에 집중했다.

드디어 그는 '아르망자트(Harmingeat)'라는 이름과 함께 숫자 '63'을 발견했다. 그는 곧장 63페이지로 넘어가 내용을 읽었다.

"아르망자트, 샬그랭 거리 49번지."

그 아래에는 그 의뢰인을 위해 건물에 난방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한 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여백에는 한 줄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

"B 씨의 사건 파일을 참조할 것."

"아, 그 파일이 바로 내가 찾는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B 씨 사건 파일을 통해 뤼팽 씨의 현재 거처를 알아낼 수 있어."

그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장부 두 번째 부분에서 그 유명한 사건 파일을 찾아냈다.

그 파일은 열다섯 장으로 되어 있었다. 한 장은 샬그랭 거리의 아르망자트 씨에게 할애된 페이지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었다. 또 다른 장에는 클라페롱 거리 25번지 소유주 바티넬 씨가 수행한 공사 내역이 상

세히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장은 앙리 마르탱 대로 134번지 오트렉 남작을 위한 것이었고, 또 다른 장은 크로존 성을 위한 것이었다. 나머지 열한 장은 파리 각지의 다른 소유주들을 위한 것이었다.

숌즈는 이 열한 명의 이름과 열한 곳의 주소를 모두 복사했다. 그리고는 원래대로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뒤, 창문을 열고 빈 광장으로 뛰어내렸다. 착지한 뒤에는 창문 덧문을 닫는 것을 잊지 않았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숌즈는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그는 그 행동을 매우 진지하게,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듯한 태도로 수행했다. 연기로 둘러싸인 채 그는 'B 씨 사건', 혹은 더 정확히 말해 '막심 베르몽 사건', 즉 아르센 뤼팽 사건의 결론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여덟 시가 되자, 그는 가니마르에게 다음과 같은 속달 우편을 보냈다.

"오늘 아침 페르고레즈 거리를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신에게, 체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인물 한 명을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과 내일 수요일 정오까지는 집에 계시고, 형사 서른 명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는 대로에서 자동차 마차 한 대를 골랐다. 운전사의 밝고 다소 멍청해 보이는 얼굴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는 마차를 타고 말제르브 광장으로 향했다. 데스탕 저택에서 50보쯤 더 떨어진 곳이었다.

"얘야, 차 문 닫아라." 그가 운전기사를 향해 말했다. "모피 옷깃도 세우고, 바람이 매서우니 차분히 기다려라. 한 시간 반 뒤에 시동을 걸고, 내가 돌아오면 바로 페르고레즈 거리로 출발해라."

저택 문턱을 넘으려던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망설였다.

뤼팽이 출발을 마무리하는 동안, 굳이 금발 여인에게 이렇게 매달리는 게 옳은 일일까? 차라리 건물 목록을 활용해 먼저 적수의 거처를 찾는 게 낫지 않았을까?

'에이, 뭐. 금발 여인을 내 포로로 잡고 나면 상황은 내 뜻대로 흘러갈 거야.'

그러면서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데스탕 씨는 이미 서재에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함께 일했다. 숌즈는 클로틸드의 방으로 올라갈 핑계를 찾고 있었다.

그때 클로틸드가 들어왔다. 그녀는 아버지와 인사를 나눈 뒤 작은 응접실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 쓰기 시작했다.

숌즈는 자기 자리에서 클로틸드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로 몸을 굽히고 있다가, 가끔씩 펜을 공중에 든 채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곤 했다.

숌즈는 잠시 기다렸다. 그러다 책 한 권을 집어 들고 데스탕 씨에게 말했다.

"마침 데스탕 씨께서 손에 넣는 대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신 책이 여기 있군요."

그는 작은 응접실로 들어가, 아버지가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클로틸드 앞에 섰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저는 스틱먼이라고 합니다. 데스탕 씨의 새 비서지요."

"아, 그렇군요."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비서를 바꾸셨나 보군요."

"네, 미스. 잠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앉으세요, 선생님. 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몇 마디를 덧붙여 서명하고 봉투에 밀봉했다. 그다음 서류들을 치우고 전화기의 버튼을 눌렀다. 재단사와 연결되자, 여행용 코트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 코트는 그녀가 급히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숌즈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이제 말씀하세요, 선생님. 하지만 우리 대화는 아버지 앞에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미스.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 주십시오. 데스탕 씨가 우리를 듣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더 좋다는 말씀입니까?"

"미스, 당신에게 말입니다."

"아버지가 듣지 못하실 대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화만큼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일어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는 여전히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부 세부 사항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바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건들의 전체적인 정확성입니다."

"수사적인 말은 그만하세요. 사실만 말씀해 주십시오."

갑작스럽게 끼어든 그녀의 말에, 그는 이 젊은 여성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지요. 다섯 해 전, 당신의 아버님은 막심 베르몽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업가라고도, 건축가라고도 소개했습니다. 정확히는 단정하기 어렵군요. 어쨌든 데스탕 씨는 이 젊은이를 무척 아끼게 되셨고,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사업을 직접 돌볼 수 없게 되자, 옛 고객들에게서 맡은 몇몇 의뢰를 베르몽 씨에게 넘기셨습니다. 그 일들이 베르몽 씨의 능력과 잘 맞아 보였기 때문이지요."

헐록이 말을 멈췄다. 그가 보기에 젊은 여인의 얼굴빛이 한층 더 창백해진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더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선생님. 더구나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미스. 막심 베르몽이라는 사람의 본명은, 당신도 나만큼 잘 알고 계시듯, 아르센 뤼팽입니다."

그녀는 폭소를 터뜨렸다.

"말도 안 돼! 아르센 뤼팽이라고요? 막심 베르몽이 아르센 뤼팽이라니?"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미스. 그리고 당신이 제 말을 넌지시 알아듣기를 한사코 마다하시니, 한마디 덧붙이지요. 아르센 뤼팽은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서 한 여자를 찾아냈습니다. 친구라기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맹목적이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공범을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거나, 적어도 흔들림이 너무도 적어서 숌즈는 그 대단한 자제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가 선언하듯 말했다.

"선생님, 저는 당신 행동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더는 한마디도 보태지 마시고 여기서 나가 주십시오."

숌즈는 그녀만큼이나 태연하게 대답했다.

"제가 무한정 곁에 머물며 폐를 끼칠 생각은 결코 없었습니다. 다만, 이 저택에서 혼자 나가지는 않기로 마음먹었을 뿐입니다."

"그럼 누가 당신과 동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선생님?"

"당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스. 우리는 함께 이 저택을 나설 것이고, 당신은 항의 한마디 없이, 말 한마디 없이 저를 따라오실 겁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기이했던 점은 두 적수가 보인 완벽한 침착함이었다. 두 강한 의지가 맞부딪치는 가차 없는 결투라기보다는, 그들의 태도와 말투로 보면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예의 바르게 토론을 벌이는 모습에 가까웠다.

원형 홀 안, 활짝 열린 큰 유리문 너머로 데스탕 씨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신중하고 절제된 손길로 책을 다루고 있었다.

클로틸드가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헐록이 시계를 꺼냈다.

"10시 반이군요. 5분 뒤면 떠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그러지 않으면, 데스탕 씨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진실을요. 막심 베르몽의 거짓된 삶과, 그 여자 공범의 이중생활을 들려드리지요."

"공범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금발 여인이라 부르는 여자, 한때 금발이었던 그 여자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께 무슨 증거를 대실 건가요?"

"샬그랭 거리로 모셔가서, 아르센 뤼팽이 자신이 감독을 맡은 공사를 틈타 부하들을 시켜 40번지와 42번지 사이에 뚫게 한 통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저께 밤 두 분이 함께 이용한 바로 그 통로 말입니다."

"그다음은요?"

"그다음에는 데스탕 씨를 데티낭 씨 댁으로 모셔가서, 당신이 아르센 뤼팽과 함께 가니마르를 피해 내려갔던 그 뒷계단을 같이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웃집으로 통하는, 아마도 비슷한 연결 통로를 함께 찾아볼 겁니다. 그 집 출구는 클라페롱 거리가 아니라 바티뇰 대로로 나 있거든요."

"그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데스탕 씨를 크로존 성으로 데려갈 겁니다. 뤼팽이 그 성을 보수할 때 어떤 공사를 했는지 아시는 그분이라면, 뤼팽이 부하들에게 시켜 만든 비밀 통로를 찾아내는 건 쉬울 겁니다.

그분은 그 통로들이 금발 여인이 밤마다 백작부인의 침실에 숨어들어 벽난로 위에 놓인 푸른 다이아몬드를 훔쳐내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주일 뒤, 그 여인이 블리엔 고문관의 침실에 숨어들어 푸른 다이아몬드를 병 바닥에 숨겼다는 사실도요.

사실 꽤 이상한 행동이죠. 솔직히 말해서. 어쩌면 여자의 작은 복수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다음," 헐록이 한층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데스탕 씨를 앙리 마르탱 대로 134번지로 모셔가서, 오트렉 남작이 어쩌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젊은 여인이 갑작스러운 공포에 사로잡혀 더듬거렸다.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감히 그게 저라고…… 저를 고발하는 건가요……"

"저는 당신이 오트렉 남작을 죽였다고 고발하는 겁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이건 모함이에요!"

"당신이 오트렉 남작을 죽였습니다, 미스. 당신은 안투아네트 브레아라는 이름으로 그의 집에 들어가 일했습니다. 파란 다이아몬드를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지요.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무너진 듯 애원하듯 중얼거렸다.

"제발 그만하세요, 선생님, 간청합니다! 그토록 많은 걸 알고 계신다면, 제가 남작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실 텐데요."

"저는 당신이 그를 살해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미스. 오트렉 남작은 정신 착란 증상을 자주 겪었고, 그 증상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이는 오직 오귀스트 수녀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수녀 본인이 직접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작이 당신에게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목숨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웠고, 그 과정에서 그를 때렸겠죠.

그런 충동적인 행동에 놀라 당신은 종을 울리고는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당신이 가져오려 했던 파란 다이아몬드도 빼앗지 못했죠.

잠시 후, 당신은 뤼팽의 공범자이자 이웃집 하인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남작을 침대로 옮기고 방 안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파란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으려던 시도는 끝내 하지 못했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은 오트렉 남작을 살해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를 때린 것은 맞습니다."

그녀는 그 손가락들을 자신의 이마에 얹었다. 길고 가늘며 창백한 손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했다.

마침내 그녀는 손가락을 풀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게 아버님께 하실 말씀의 전부입니까?"

"네. 그리고 그분께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내게는 증인들이 있다고요. 금발의 여인을 알아볼 제르부아 씨, 안투아네트 브레아를 알아볼 오귀스트 수녀, 레알 씨를 알아볼 크로종 백작 부인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감히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당장 닥친 위협 앞에서 다시 침착함을 되찾으며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서관 쪽으로 한 발짝 내딛었다. 클로틸드가 그를 막아섰다.

"잠깐만요, 선생."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제야 자신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었고, 매우 차분한 어조로 물었다.

"당신이 헐록 숌즈 맞습니까?"

"무슨 용건이오?"

"내가 뤼팽과 결투를 벌이고 있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지. 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당신 같은 귀중한 인질 하나만 있으면 상대에게 큰 이점이 생기겠소. 그러니 따라오시게, 미스. 내 친구에게 맡기겠소. 내 목적이 달성되면 곧 풀어주겠소."

"그게 다요?"

"그게 다요. 나는 당신 나라 경찰이 아니오. 따라서 누군가를 심판할… 그런 권리는 내게 전혀 없다고 느끼오."

그녀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잠시 더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눈을 감은 그녀는, 갑자기 평온해져 주변을 감싸는 위험에도 거의 무관심한 듯 보였다. 숌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영국인은 생각했다. 그녀는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고 있는 걸까? 아니, 그렇지 않다. 뤼팽이 그녀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뤼팽이 함께라면 아무도 그녀를 해칠 수 없다. 뤼팽은 전능하다. 뤼팽은 실수하지 않는다.

"미스, 제가 5분이라고 했죠. 벌써 30분도 더 지났습니다."

"제 방에 올라가서 짐을 챙길 수 있을까요, 선생님?"

"원하시면 됩니다, 미스. 저는 몽샤랭 거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문지기 자니오 씨와 아주 친분이 있습니다."

"아! … 당신은 그걸 …" 그녀는 뚜렷한 공포를 드러내며 말했다.

"저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초인종을 누르겠어요!"

그녀에게 모자와 외투가 가져다졌다. 그리고 숌즈가 그녀에게 말했다.

"데스탕 씨에게 우리가 떠나는 이유를 대야 합니다. 필요하면 며칠간 자리를 비우는 것까지 설명할 수 있는 이유여야 하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곧 돌아와 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서로를 눈으로 떠보았다. 둘 다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냉소가 서려 있었다.

"그를 참 굳게 믿으시는군요!" 숌즈가 말했다.

"맹목적으로요."

"그가 하는 일은 다 옳고, 그가 원하는 일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걸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고요!"

"나는 그를 사랑해요." 그녀가 열정에 떨며 말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구해 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일러두었다.

"스틱만 씨를 데려갈게, 아버지. 우리 국립도서관에 갈 거야."

"점심은 들어와서 먹니?"

"아마… 아니, 그보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녀는 숌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선생님."

"다른 뜻은 없습니까?"

"눈을 감고도 믿으실 수 있습니다."

"도망치려 들면 소리 지를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올 테고, 감옥행이 될 거예요. 금발의 여사가 이미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는 걸 잊지 마세요."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도망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갑시다."

그가 미리 예언했던 대로, 두 사람은 함께 호텔을 나섰다.

광장에는 자동차가 서 있었다. 차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운전사의 뒷모습과 모자가 보였다. 모자는 거의 털깃털 달린 재킷의 높은 목에 가려져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숌즈는 엔진이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문을 열고 클로틸드를 타게 한 뒤, 그 옆에 앉았다.

차가 갑자기 출발해 외곽 대로로, 오슈 대로, 그랑드아메 대로로 향했다.

헐록은 생각에 잠겨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가니마르는 집에 있군. 나는 그 소녀를 그의 손에 맡기겠지. 내가 그 소녀가 누구인지 그에게 말하겠는가? 아니, 그러면 그는 그녀를 곧장 경찰서로 데려갈 테고, 그러면 모든 계획이 어그러져 버릴 거야. 혼자 남으면 나는 M. B. 사건의 파일 목록을 확인하고 사냥에 나설 거야. 그리고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나는 약속대로 가니마르를 찾아가 그에게 아르센 뤼팽과 그의 무리를 넘기겠지."

그는 마침내 목표가 눈앞에 다가왔고, 그것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도 없음을 느끼며 기뻐하며 손바닥을 비볐다. 그리고 그의 본성과는 대조적으로 무언가를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낀 그는 이렇게 외쳤다.

"미안합니다, 마들모아젤. 이렇게 기뻐하는 제가 실례였나요? 싸움은 고단했고, 그 승리는 저에게 특히나 기쁜 일이니까요."

"당연한 승리지요, monsieur. 기뻐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운전사가 제 말을 못 들었나요?"

그때 차는 누이유 문을 지나 파리 시외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페르골레즈 거리는 성벽 안쪽에 있는 거리였다.

숌즈는 차창을 내렸다.

"이봐요, 운전사님. 길을 잘못 들었어요. 페르골레즈 거리로 가야 하는데…"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숌즈는 목소리를 높여 다시 말했다.

"페르골레즈 거리로 가라고 했잖아요!"

남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아, 친구, 귀가 안 들리나 보군. 아니면 고의로 무시하는 걸까? 우리 여기서 할 일이 없어. 페르골레즈 거리로 돌아가자. 당장 발길을 돌리라고 명령하네."

하지만 답은 없다. 여전히 침묵만 흐른다. 영국인은 불안에 떨었다. 그는 클로틸드를 바라보았다. 소녀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왜 웃느냐?" 그가 투덜거렸다. "이 일은 아무 상관없어. 상황은 변한 게 없어."

"전혀 아무 상관없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그를 뒤집어놓았다. 그는 반쯤 몸을 일으켜, 좌석에 앉아 있는 남자를 더 자세히 살폈다. 어깨선이 더 날씬했고, 태도가 한결 여유로워 보였다.

찬 식은땀이 그의 온몸을 적셨다. 손이 굳어 쥐어짜졌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확신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이 남자는 아르센 뤼팽이었다.

"자, 숌즈 씨, 이 작은 산책은 어땠습니까?"

"정말 훌륭했습니다, 친애하는 선생님. 정말로 훌륭하죠." 숌즈가 대답했다.

아마도 그에게 있어 자기 자신에게 가한 그토록 끔찍한 노력은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을 뱉어낼 때, 그의 목소리는 떨림조차 없었고, 그의 온몸이 격렬하게 격동하고 있음을 드러낼 만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곧이어 거대한 반동이 찾아왔다. 분노와 증오의 물결이 제방을 무너뜨리며 그의 의지를 휩쓸어 갔다. 그는 급작스러운 동작으로 권총을 꺼내, 데스탕에게 겨눴다.

"당장, 지금 이 순간 차를 멈추시오, 뤼팽. 안 그러면 미스에게 총을 쏘겠소."

"관자놀이를 맞히려면 뺨을 노리시길 권합니다." 뤼팽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클로틸드가 말했다.

"막심, 너무 빨리 달리지 마세요. 보도가 미끄러운 데다 저는 겁이 아주 많거든요."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은 차 앞 도로에 깔린 자갈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멈추게 하라! 당장 멈추게 하라고!" 숌즈가 분노로 제정신이 아닌 채 외쳤다. "내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셨잖습니까!"

리볼버의 총구가 그녀의 곱슬머리 곁을 스쳤다.

클로틸드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막심은 정말 무모해. 이대로 가다간 분명 미끄러지고 말 거야."

숌즈는 총을 주머니에 넣고는 문손잡이를 움켜쥐었다. 비현실적인 행동이었지만, 밖으로 뛰쳐나갈 준비를 했다.

클로틸드가 경고했다.

"조심하십시오, 선생님. 우리 뒤에 자동차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가 몸을 굽혀 뒤를 돌아보았다. 정말로 거대한 자동차가 뒤따르고 있었다. 핏빛의 날카로운 앞부분과 가죽 옷을 입은 네 명의 사내들이 탄 그 차는 무시무시한 기운을 풍겼다.

'좋아, 내가 잘 감시받고 있는군. 참아보자.'

그는 팔을 가슴에 겹쳐 쥐었다. 운명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때, 고개를 숙이면서도 기다리는 자들이 지닌 그 자존심 어린 순종처럼.

센강을 건너 쉬렌, 뤼에유, 샤투를 지날 때, 그는 움직이지도 않고 체념한 채로, 분노를 다스리며 쓴맛 없이 앉아 있었다. 이제 그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로 집중되었다. 아르센 뤼팽이 어떻게 기적처럼 운전기사 자리를 차지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는 일이었다.

그가 아침에 큰길에서 고른 그 착한 청년이, 미리 배치된 공범일 리가 없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뤼팽은 분명히 사전에 통보를 받았어야 했다. 그리고 그 통보는 그가, 숌즈가 클로틸드를 협박한 순간 이후에야 가능했다. 그전까지는 그의 계획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순간 이후로, 클로틸드와 그는 단 한 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스쳤다. 그 소녀가 요청한 전화 통화, 그리고 재봉사와의 대화였다.

그는 즉시 깨달았다.

아직 말하기도 전에, 그가 데스탕의 새 비서로 면담을 요청했다는 소식만으로도 그녀는 위기를 감지했다. 방문객의 이름과 목적을 알아챈 것이다. 그녀는 차갑고도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마치 자신이 하는 일이 진짜인 양, 혹은 진짜로 그 일을 수행하는 양 말이다.

그녀는 공급업체라는 구실로, 자신들 사이에 미리 정해진 암호를 사용해 뤼팽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아르센 뤼팽이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 엔진이 덜덜 떨리는 저 자동차가 왜 의심스러워 보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기관사를 뇌물로 매수했는지.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숌즈를 분노 대신 열정으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그 순간의 상황이었다.

한 여인이 있었다. 연인이긴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경을 다스리고 본능을 억누른 채 얼굴 표정을 굳혔다. 눈빛의 표현까지 조종하며, 노년의 헐록 숌즈를 속이는 데 성공했다.

이런 조력자를 앞세운 남자에게 어찌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권위라는 힘만으로, 한 여인에게 그토록 막대한 용기와 기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센 강을 건너 생제르맹 언덕을 올랐다. 하지만 그 마을을 지나 500미터쯤 갔을 때, 삯마차의 속도가 느려졌다. 다른 차가 그 옆으로 나란히 다가왔고, 두 차는 모두 멈춰 섰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숌즈 씨, 제발 차를 바꿔 주십시오. 우리 차는 정말 느려서요……"

"당연하지!" 숌즈가 외쳤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더 급하게 응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모피도 빌려 드리죠. 우리가 꽤 빨리 갈 테니까요. 그리고 이 샌드위치 두 개도 드세요…… 네, 네, 받으세요. 언제 저녁을 먹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사람은 내려섰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가리던 안경을 벗었고, 숌즈는 그가 바로 헝가리 식당에서 보았던 프록코트 차림의 신사임을 알아봤다.

뤼팽이 그에게 말했다.

"이 삯마차를 제가 빌린 마부에게 돌려주시오. 마부는 르장드르 거리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와인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요. 약속했던 두 번째 분할금, 천 프랑을 건네주시오. 아, 잠깐! 안경을 숌즈 씨에게 건네주시오."

그는 데스탕주 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운전석에 앉았다. 숌즈가 그 옆에 앉고, 뒷좌석에는 그의 부하 한 명이 탔다. 그리고 차는 출발했다.

뤼팽이 "꽤 빨리 갈 거야"라고 말한 건 과장이 아니었다. 시작하자마자 속도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빨랐다.

지평선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듯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린 듯, 지평선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나무들, 집들, 평야와 숲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절벽으로 떨어지는 급류를 연상케 할 만큼 소란스럽고 분주한 속도로.

숌즈와 뤼팽은 서로 단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머리 위, 포플러나무 잎사귀들이 파도 소리를 내듯 크게 요동쳤다.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어, 그 소리는 마치 규칙적인 리듬을 타는 듯했다.

도시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망트, 베르농, 가이용.

언덕에서 언덕으로, 봉스쿠르에서 캉틀뢰까지. 루앙과 그 교외, 항구, 몇 킬로미터씩 이어진 부두까지. 루앙은 이제 작은 마을의 한 거리처럼 보였다.

그리고 뒤이어 뒤클레르, 코드벡, 코 지방이 지나갔다. 힘찬 질주로 그 지형의 물결을 살짝 스쳐 지나갔고, 릴본과 키유뵈프도 지나쳤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센 강변에 도착했다. 작은 부두 끝에 서 있던, 선이 간결하고 튼튼한 요트 한 척이 강가에 늘어져 있었다.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구불구불 피어올랐다.

차량이 멈췄다. 두 시간 만에 그들은 40리외(약 16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달렸다.

푸른 재킷에 금박이 달린 모자를 쓴 한 남자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완벽합니다, 선장님!" 뤼팽이 외쳤다. "전보 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

"히롱델호는 준비됐습니까?"

"히롱델호는 준비됐습니다."

"그렇다면, 숌즈 씨?"

영국인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카페 테라스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있는 또 다른 무리들이 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사람이 개입하기 전에 자신이 붙잡혀 선창으로 끌려갈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데크를 가로질러 건너가 선장의 선실로 들어갔다.

방은 넓었다. 꼼꼼할 정도로 청결했고, 벽의 광택 나는 목재와 빛나는 구리 제품들 덕분에 환했다.

뤼팽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서두름 없이, 오히려 다소 거칠게 숌즈에게 물었다.

"정확히 무엇을 아십니까?"

"모두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영국인에 대해 짓던, 살짝 비꼬는 듯한 예의가 사라져 있었다. 대신 명령하는 주인다운 위엄이 담겨 있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데 익숙한, 헐록 숌즈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는 그 위엄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응시했다. 이제 그들은 적이었다. 공개된 적이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약간 초조해진 뤼팽이 다시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제가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당신을 마주치네요. 너무 자주 만나서 피곤합니다. 당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 시간을 낭비하는 게 지겹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대답에 따라 제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요.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모두요, 선생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르센 뤼팽은 참아왔던 감정을 억누르며, 끊어지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해 주마. 당신은 내가 '막심 베르몽'이라는 가명으로, 데스탕주 씨가 지은 열다섯 채의 집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열다섯 채 중 네 채는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열한 채의 목록도 가지고 있죠."

"당신은 아마도 오늘 밤 데스탕주 씨 집에서 그 목록을 훔쳤겠죠."

"자네는 이 열한 채의 건물 중 내가 내 용도나 친구들을 위해 꼭 하나 남겨두었을 거라고 보네. 그래서 가니마르 형사를 시켜 내 은신처를 찾아오게 한 거지."

"그게 무슨 뜻인가?"

"내가 혼자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도 곧 혼자 출동할 참이었어."

"그럼 나는 두려울 게 없군. 자네가 내 손안에 있으니까."

"내가 자네 손안에 있는 한, 자네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즉, 자네는 여기서 오래 머물지 않겠군."

"맞아."

아르센 뤼팽이 영국인 쪽으로 몸을 더 기울였다. 그리고는 어깨에 아주 부드럽게 손을 얹으며 말했다.

"들어 보시오, 선생님. 저는 논쟁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자네는 저를 막을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니 이만 끝내죠."

"네, 끝냅시다."

"배가 영국 해역에 닿기 전까지, 여기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명예를 걸고 약속해 주시오."

"도망칠 방법을 강구하겠노라고,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숌즈는 굴하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제기랄!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오? 이 남자들 모두 내 명령에 맹종하오. 내가 눈짓만 해도, 그들은 당신 목에 사슬을 채울 테니."

"사슬은 부러뜨릴 수 있는 법."

"그리고 당신을 바다 한가운데, 해안에서 열 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던져 넣을 수도 있소."

"수영은 잘합니다."

"훌륭한 답변이오!"

뤼팽이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미안하오, 화가 나서 말이 거칠어졌소. 용서해주시오, 선생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제가 취하는 조치가 나와 제 친구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것임을 인정하시겠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소용없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원망하지는 않겠지요?"

"당신의 의무입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뤼팽이 문을 열고 선장과 선원 두 명을 불렀다. 그들은 영국인을 붙잡아 몸을 뒤졌다가, 그의 다리를 묶어 선장의 침대에 고정했다.

"그만!" 뤼팽이 명령했다. "진실로, 당신의 고집과 특별한 상황의 중대함이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무례를 무릅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선원들이 물러갔다. 뤼팽이 선장에게 말했다.

"선장님, 승무원 한 명을 여기 남기겠습니다. 숌즈 씨의 지시를 받게 하죠. 선장님도 가능한 한 그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에게는 모든 예우를 갖추게 하세요. 그는 죄수가 아니라 손님입니다. 선장님 시계로는 몇 시입니까?"

"두 시 오 분입니다."

뤼팽은 자신의 시계를 본 뒤, 선실 벽에 걸린 시계도 확인했다.

"두 시 오 분… 일치하군요. 사우스햄튼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서두르지 않으면 아홉 시간입니다."

"열한 시간이 걸리게 하시오. 여객선이 출항하기 전에는 절대 육지에 닿지 마십시오. 그 여객선은 자정에 사우스햄튼을 떠나, 아침 여덟 시에 르아브르에 도착하오. 알겠소, 선장님? 다시 말하지만, 그분이 그

배를 타고 프랑스로 돌아온다면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위험할 테니, 새벽 한 시 전에는 사우스햄튼에 도착해서는 안 되오."

"이해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선장님! 내년에 다시 만납시다.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내일 봐요!"

몇 분 후, 숌즈는 자동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히롱델'호의 깊은 곳에서 증기가 더 격렬하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세 시쯤, 배는 센 강 하구를 지나 완전히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이때 헐록 숌즈는 묶인 채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두 거대 라이벌이 벌인 전쟁의 열흘째이자 마지막 날, 『에코 드 프랑스』지는 아주 재미있는 짧은 기사를 실었다.

"어제 아르센 뤼팽이 영국인 탐정 헐록 숌즈에게 추방령을 내렸다. 정오에 통보된 추방령은 그날 바로 집행되었다. 오전 한 시, 숌즈는 사우스햄튼에 하선되었다."

제6장

여덟 시가 되자 크레보 거리에는 이삿짐 마차 열두 대가 몰려들어 길을 메웠다. 부아드부아뉴 아베뉴와 뷔조 아베뉴 사이였다.

펠릭스 다베이 씨는 8번지 4층에서 살던 아파트를 떠났다.

동시에, 전문가 뒤브뢰유 씨도 이삿짐을 보냈다. 그는 같은 건물 5층과 이웃한 두 건물의 5층을 합쳐 하나의 아파트로 만든 사람이었다. 이 역시 순전한 우연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지 못했으니까.

뒤브뢰유 씨는 그날, 수많은 외국인 거래처가 매일같이 그를 찾아오게 만들던 그 가구 컬렉션을 실어 보냈다.

이 일은 동네에서 눈에 띄었지만, 사람들 입에 오른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 열두 대의 마차 가운데 어느 것에도 이삿짐 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고, 마차를 따라다니던 사내들 중 누구도 근처 술집에 들러 한참 머무는 일이 없었다.

그들은 일을 어찌나 잘 처리했는지, 열한 시가 되자 모든 작업이 끝나 있었다. 빈 방 구석구석에 남은 것이라곤 떠난 자리에 으레 남기 마련인 종이 더미와 헝겊 조각들뿐이었다.

펠릭스 다베이 씨. 옷차림은 가장 세련된 유행을 따랐지만, 손에 든 훈련용 지팡이의 무게가 그 주인에게 남다른 이두근이 있음을 말해 주었다. 펠릭스 다베이 씨는 평온하게 걸어가서, 부아 아베뉴를 가로지르는 샛길의 벤치에 앉았다. 그곳은 페르골레즈 거리 맞은편이었다.

그 옆에는 자그마한 부르주아 차림의 여자가 신문을 읽고 있었고, 아이 하나가 삽으로 모래 더미를 파며 놀고 있었다. 잠시 후, 펠릭스 다베이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여자에게 물었다.

"가니마르는?"

"오늘 아침 아홉 시에 떠났습니다."

"경찰청에요."

"혼자서?"

"어젯밤에 전보 같은 건 없었나?"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여전히 자네를 믿고 있고?"

"물론이죠! 저는 가니마르 부인께 자잘한 도움을 드리고, 부인은 남편이 하는 일을 죄다 제게 얘기해 준답니다… 오늘도 오전 내내 함께 있었어요."

"좋아.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매일 오전 열한 시에 여기로 오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팽 문 근처의 '중국정자'로 가서 간단히 끼니를 때웠다. 계란 두 개와 채소, 과일뿐이었다.

그리고 크레보 거리로 돌아와 관리인에게 말했다.

"위층을 한번 둘러보고 열쇠를 돌려드리지요."

그는 자신의 서재로 쓰던 방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곳에서 그는 벽난로를 따라 늘어져 있는, 팔꿈치처럼 꺾이는 가스관 끝을 잡았다. 그러고는 관을 막고 있던 놋쇠 마개를 떼어내고 작은 깔때기 모양의 장치를 끼운 뒤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자 짧은 호각 소리가 응답으로 돌아왔다. 그는 관을 입에 대고 속삭였다.

"뒤브뢰유, 아무도 없나?"

"아무도 없습니다."

"올라가도 되나?"

"네."

그는 관을 제자리에 놓으며 혼잣말을 했다.

"진보는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 우리 시대는 삶을 참으로 매혹적이고 멋스럽게 만들어 주는 자잘한 발명품들로 넘쳐난다. 게다가 어찌나 재미있는지!… 특히 나처럼 삶을 유희처럼 다룰 줄 아는 자에게는 더더욱."

그는 벽난로의 대리석 장식 하나를 돌렸다. 대리석 판 자체가 움직였고, 그 위에 얹혀 있던 거울이 보이지 않는 홈을 따라 미끄러지며 휑하니 입을 벌린 구멍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벽난로 몸체 안에 만들어진 계단의 첫 단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모두가 깔끔했고, 정성껏 광을 낸 주철과 흰색 도자기 타일로 되어 있었다.

그는 위로 올라갔다. 5층에도 벽난로 위에 똑같은 구멍이 나 있었다. 뒤브뢰유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쪽은 다 끝났나?"

"끝났습니다."

"전부 치웠고?"

"완전히요."

"사람들은?"

"경비 서는 세 명만 남았습니다."

"그럼 가세."

그들은 한 명씩 같은 길을 따라 하인들이 쓰는 층까지 올라가, 다락방으로 나왔다. 그곳에는 세 남자가 있었고, 그중 하나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새로운 건 없나?"

"없습니다, 두목."

"거리는 조용하고?"

"아주 조용합니다!"

"십 분만 더 있다가 나는 완전히 떠난다… 자네들도 그때 떠나게. 그때까지 거리에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곧바로 알려라!"

"손가락을 늘 경보 벨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두목."

"뒤브뢰유, 이사 일꾼들한테 이 경보벨 선은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지?"

"물론입니다.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놓이는군."

두 사람은 다시 펠릭스 다베이의 아파트로 내려갔다. 다베이는 대리석 장식을 제자리에 맞춰 놓고는 신이 나서 외쳤다.

"뒤브뢰유, 이 멋진 장치들을 발견할 사람들의 표정을 꼭 보고 싶군. 경보 종, 전선과 음향관 그물망, 보이지 않는 통로, 미끄러지는 마룻장, 숨은 계단까지… 이건 정말 요정극을 위한 무대 장치 같지 않나!"

"아르센 뤼팽을 위한 기막힌 선전이겠죠!"

"굳이 없어도 좋았을 선전이지. 이런 시설을 떠나려니 아깝군. 전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 뒤브뢰유… 물론 다른 방식으로 말이야. 같은 수를 두 번 써선 안 되니까. 숌즈 그 망할 놈 같으니!"

"숌즈는 아직 안 돌아왔겠죠…"

"돌아왔을 리가. 사우샘프턴에서 오는 배는 자정 배 한 척뿐이고, 르아브르에서 오는 기차는 아침 여덟 시에 떠나 열한 시 십일 분에 닿는 것 하나뿐이야. 그가 자정 배를 타지 않은 이상—선장에게 단단히 지시해 뒀으니 타지 못했지—프랑스에 닿을 수 있는 건 오늘 밤, 뉴헤이븐과 디에프를 거쳐서뿐이지."

"정말 돌아온다면요!"

"숌즈는 절대 승부를 포기하지 않아. 돌아오겠지. 하지만 너무 늦을 거야. 우리는 이미 멀리 가 있을 테니."

"데스탕주 양은요?"

"한 시간 뒤에 만나기로 했어."

"그녀의 집에서요?"

"아니, 그녀는 며칠 뒤, 이 소동이 다 가라앉고 내가 오로지 그녀만 신경 쓰면 될 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자네는, 뒤브뢰유, 서둘러야 해. 짐을 전부 싣자면 오래 걸릴 테고, 부두에는 자네가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십니까?"

"누구한테? 내가 두려워한 건 숌즈뿐이었어."

뒤브뢰유가 물러갔다. 펠릭스 다베이는 마지막으로 한 바퀴 둘러보며 찢어진 편지 두세 장을 주워 들었다. 그러다 분필 한 조각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집어, 식당의 어두운 벽지에 큰 액자 모양을 그린 뒤, 기념패에 새기듯 이렇게 적었다.

"20세기 초, 신사 강도 아르센 뤼팽이 이곳에서 5년간 살았다."

이 장난은 그에게 큰 만족을 안겨 준 듯했다. 그는 기쁨에 찬 곡조를 휘파람으로 불며 그것을 바라보더니 외쳤다.

"이제 미래 세대의 역사가들에게 떳떳해졌으니, 줄행랑을 치자. 서두르시오, 헐록 숌즈 선생. 삼 분 안에 나는 이 보금자리를 떠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의 패배는 완전해지지요… 아직 이 분 남았소! 선생, 나를 기다리게 하는구려!… 이제 일 분! 안 오시오? 좋소, 그렇다면 당

신의 몰락과 나의 영광을 선포하겠소. 그러고서 나는 사라지겠소. 잘 있거라, 아르센 뤼팽의 왕국이여! 다시는 너를 보지 못하리. 잘 있거라, 내가 군림하던 여섯 채 아파트의 쉰다섯 개 방이여! 잘 있거라, 나의 작은 방, 검소한 나의 작은 방이여!"

날카롭고 빠르고 째지는 듯한 경보음이 그의 격정을 단숨에 끊어 버렸다. 두 번 멎었다가 두 번 다시 울리고는 그쳤다. 경보벨이었다.

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뜻밖의 위험이? 가니마르? 아니, 그건 아닐 텐데……

그는 서재로 돌아가 달아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먼저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적이 벌써 집 안에 들어온 걸까? 귀를 기울이자 어수선한 웅성거림이 들리는 듯했다. 그는 더 망설이지 않고 서재로 달려갔다. 그리고 문턱을 넘는 순간, 현관문에 열쇠를 꽂으려 애쓰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이런,' 그가 중얼거렸다. '이제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군. 집이 포위됐는지도 몰라… 뒷계단은 안 돼! 다행히 벽난로가 있지…'

그는 장식을 힘껏 밀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더 거칠게 힘을 주었지만,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저쪽에서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제기랄," 그가 욕설을 내뱉었다. "이 빌어먹을 장치가 말을 안 들으면 난 끝장이야…"

그의 손가락이 장식을 부여잡고 경련하듯 떨렸다. 온몸의 무게를 실어 눌렀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전혀! 믿을 수 없는 불운으로, 운명의 정말이지 소름 끼치는 심술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작동하던 장치가 이제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악착같이 매달려 몸을 비틀었다. 대리석 덩어리는 죽은 듯 꼼짝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빌어먹을! 이런 멍청한 장애물이 자기 앞길을 막다니, 말이 되는가? 그는 대리석을 쳤다. 분노에 찬 주먹으로 내리쳤다. 두들겼다. 욕을 퍼부었다……

"이런, 뤼팽 씨, 무언가 당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군요?"

뤼팽은 공포에 휩싸여 뒤를 돌아보았다. 헐록 숌즈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헐록 숌즈! 그는 잔혹한 환영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헐록 숌즈가 파리에 있다니! 어제 위험한 소포처럼 영국으로 부쳐 버린 그 헐록 숌즈가, 승리한 채 자유로운 몸으로 자기 앞에 버티고 서 있다니! 아! 아르센 뤼팽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한 기적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자연 법칙이 뒤집히고, 비논리적이고 비정상적인 모든 것이 승리했다는 뜻이었다! 헐록 숌즈가 자기 앞에 있다니!

영국인이 이번에는 자기 차례로 비꼬듯, 상대가 그토록 자주 자신을 후려치던 그 경멸 어린 정중함을 가득 담아 말을 이었다.

"뤼팽 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당신이 오트렉 남작의 저택에서 제게 떠넘긴 그 밤도, 제 친구 윌슨이 겪은 불운들도, 자동차로 납치당한 일도, 방금 당신 지시로 불편한 침상에 묶인 채 끝낸 그 여행도 두 번 다시 떠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지워버립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는 보상받았습니다. 왕에게나 어울릴 만큼 후하게 보상받았습니다."

뤼팽은 침묵을 지켰다. 영국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마치 과거에 대한 동의를, 일종의 면죄부를 요구하듯, 고집스레 확답을 구하는 기색이었다.

잠시 생각에 잠기는 동안, 영국인은 자신이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리고 샅샅이 파헤쳐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윽고 뤼팽이 입을 열었다.

"선생님, 지금 보이시는 행동에는 분명 중대한 이유가 있겠지요?"

"매우 중대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제 선장과 선원들을 따돌린 것은 우리 싸움의 부수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혼자서, 아, 잘 들으시오, 아르센 뤼

팽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당신의 복수가 더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믿게 만듭니다."

"더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집은?"

"포위했습니다."

"옆집 두 채는?"

"포위했습니다."

"바로 위층 아파트는?"

"듀브뢰유 씨가 쓰던 5층의 세 아파트, 모두 포위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당신은 잡히셨습니다, 뤼팽 씨. 빠져나갈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달릴 때 숌즈를 뒤흔들었던 그 감정들을, 이제 뤼팽이 똑같이 느꼈다. 똑같이 응축된 분노, 똑같은 반항심. 그러나 결국은 똑같은 정정당당함이 상황의 힘 앞에서 뤼팽마저 고개 숙이게 만들었다.

둘 다 똑같이 강했기에, 둘 다 똑같이 패배를 체념할 수밖에 없는 일시적 불운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우리는 이제 비긴 셈입니다, 선생."

그가 또렷하게 말했다.

영국인은 이 고백에 만족한 듯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뤼팽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미 마음을 가다듬고 미소를 띤 채였다.

"저도 그게 싫지는 않습니다! 매번 이기기만 하니 슬슬 지루해지던 참이었거든요. 당신 가슴 한복판을 치려면 그저 팔만 뻗으면 됐었지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당했습니다. 한 방 먹었어요, 선생님!"

그는 진심으로 폭소했다.

"드디어 재미있는 일이 시작되군! 뤼팽이 함정에 빠졌다니… 정말 놀라운 사건이야! 아, 선생님, 덕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삶이죠!"

그는 주먹을 쥐고 양쪽 관자놀이를 눌렀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흥분을 억누르려는 동작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체력을 넘어설 만큼 신나게 노는 아이처럼 손짓을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영국인 쪽으로 다가가 말했다.

"이제부터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기다린다고?"

"네, 가니마르 형사가 거기 있습니다. 형사대도 함께요. 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동의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의 도움을 받을 때,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가 제 지시를 따르겠다는 것이었죠. 더구나 그는 펠릭스 데이비 씨가 뤼팽의 공범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왜 혼자 들어왔습니까?"

"일단 당신과 대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당신과 대화하고 싶다고요."

이 말은 뤼팽에게 무척이나 기뻐 보이는 반응이었다. 때때로 행동보다 말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숌즈 씨, 의자를 드릴 수 없어 유감입니다. 이 반쯤 망가진 낡은 상자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창가 좌석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맥주 한 잔 어떨까요? 진한 것일까요, 옅은 것일까요? … 어쨌든 앉으시죠, 제발."

"앉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합시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온 목적은 당신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쫓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제가 진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였습니까?"

"파란 다이아몬드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파란 다이아몬드라니?"

"당연하죠. 블리셩 영사의 병에서 발견된 것은 진짜가 아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진짜는 금발 여자가 보내줬죠. 저는 그것을 완벽하게 복제했습니다. 당시 저는 백작부인의 다른 보석들도 노리고 있었고, 블리셩 영사는 이미 의심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발 여자는 자기도 의심받지 않으려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영사의 짐 속에 슬쩍 넣은 거죠."

"그럼 당신은 진짜를 손에 쥐고 있었던 셈이군요."

"물론이죠."

"그 다이아몬드는 제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크로존 백작부인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가져갈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데 어떻게 가져가시겠소?"

"바로 그것이 당신 손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걸 당신에게 돌려드린다는 말입니까?"

"자발적으로?"

"제가 사겠습니다."

뤼팽이 갑자기 큰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참으로 당신 나라 사람답군요. 이런 것도 일종의 거래로 여기시네요."

"물론 거래죠."

"그렇다면 무엇을 내시겠소?"

"데스당그 씨의 자유입니다."

"그녀의 자유라니? 하지만 그녀가 감금되어 있다는 소문은 들은 적이 없소."

"가니마르 형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보호를 잃은 그녀도 곧 잡히게 될 테니까요."

뤼팽은 또 한 번 크게 웃었다.

"친애하는 선생, 당신은 가지지도 않은 것을 제게 제안하고 있군요. 데스당그 씨는 안전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원하오."

영국인은 망설였다. 분명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광대뼈가 붉게 달아올랐다. 그러다 갑자기 상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만약 제가 제안한다면…"

"내 자유?"

"아니요… 하지만 저는 이 방에서 나가 가니마르 씨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단 말씀이오?"

"하느님, 그게 제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 저주할 장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뤼팽이 난로 주변의 장식을 성가신 듯 밀쳤다.

그 순간, 그는 놀람에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 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 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 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 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
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 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질 질

"가니마르가 너를 붙잡으면, 끝이야.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야."

"누가 알겠어요?"

"제발, 미친 소리 그만하세요. 모든 출구는 이미 막혔습니다."

"하나 남았죠."

"어디요?"

"제가 고를 수 있는 곳입니다."

"말장난이군요. 이미 체포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셈이오?"

"그럼, 저는 블루 다이아몬드를 지킬 겁니다."

숌즈가 시계를 꺼내 들었다.

"세 시 십 분 전이군. 세 시가 되면 가니마르를 부르겠소."

"그러면 우리는 수다를 떨 시간이 십 분 있다는 뜻이오. 숌즈 씨, 저를 태우는 호기심을 풀어주십시오. 어떻게 제 주소와 '펠릭스 데이비'라는 가명을 알아냈소?"

숌즈는 뤼팽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뤼팽의 좋은 기분이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작은 설명에 그는 흔쾌히 응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의 주소요? 그건 금발의 여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클로틸드!"

"바로 그 여인입니다. 기억나시죠? 어제 아침, 제가 그녀를 자동차로 납치하려 했을 때요. 그녀는 바로 재단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맞아요."

"아, 나중에야 그 재봉사가 바로 당신이었다는 걸 알았지. 그리고 간밤에 배 안에서, 어쩌면 내가 좀 으스대도 좋을 만한 기억력을 발휘해서 당신의 전화번호 마지막 두 자리, 73을 복원해냈어. 그렇게 '손질'한 집들의 목록을 손에 쥔 나는, 오늘 오전 11시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번호부에서 펠릭스 데이비 씨의 이름과 주소를 쉽게 찾아냈지. 그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고는 가니마르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훌륭해! 일품이야. 나는 그저 고개 숙여 감탄할 뿐이야.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왜 르아브르행 열차를 탔느냐는 거지. 어떻게 하롱델 호에서 빠져나온 거야?"

"저는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당신은 선장에게 새벽 한 시에야 사우샘프턴에 도착하라고 지시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정에 내려졌죠. 그래서 르아브르행 여객선을 탈 수 있었던 겁니다."

"선장이 저를 배신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장이 당신을 배신한 건 아닙니다."

"그럼 대체?"

"그건 그의 시계 때문이에요."

"시계요?"

"네, 시계 말이에요. 제가 한 시간 앞당겨 놓았거든요."

"어떻게요?"

"시계를 앞당기듯, 태엽 꼭지를 돌려서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그가 흥미로워할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니까… 정말이지,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훌륭하군요, 훌륭해. 아주 교묘한 술수입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런데 선실 벽에 걸려 있던 괘종시계는 어떻게 된 거죠?"

"시계는 좀 까다로웠지. 다리가 묶여 있었으니까. 하지만 선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나를 감시하던 선원 한 명이 기꺼이 시곗바늘을 슬쩍 밀어줬어."

"그 녀석이? 설마 동의했다는 거야?"

"응. 그는 자기 행동의 중대성을 전혀 몰랐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런던행 첫 기차를 타야 한다고 말했더니… 순순히 넘어가더군."

"대가로……?"

"작은 선물 하나. 게다가 그 착한 친구는 그 선물을 너에게 정직하게 전해줄 생각이라더군."

"무슨 선물?"

"별것 아니야."

"그래도 뭔데?"

"블루 다이아몬드지."

"블루 다이아몬드!"

"응. 가짜야. 네가 백작부인의 다이아몬드와 바꿔치기해 둔 그 가짜,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맡긴 거지."

그때 갑자기 폭소 같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르센 뤼팽은 눈에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까무러칠 듯 웃어댔다.

"세상에, 너무 웃겨! 내 가짜 다이아몬드를 선원에게 슬쩍 넘기고! 선장의 시계까지! 그리고 괘종시계 바늘까지!"

헐록 숌즈는 뤼팽과의 싸움이 이토록 격렬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놀라운 직감으로 그는 그 과도해 보이는 웃음 뒤에 거대한 집중력이 숨어 있음을 알아챘다. 마치 모든 능력이 한곳으로 끌어모이는 듯한 기세였다.

조금씩 뤼팽이 다가왔다. 영국인은 뒤로 물러나며 무심코 조끼 시계 주머니에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

"세 시입니다, 뤼팽 씨."

"벌써 세 시라고요? 정말 아쉽군요! 이렇게 재미있는데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대답이요? 맙소사, 당신 참 욕심도 많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게임도 끝이군요. 그리고 그 판돈은 바로 내 자유고요!"

"아니면 파란 다이아몬드죠."

"좋아요… 당신이 먼저 두세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킹을 찍습니다." 숌즈가 총을 쏘며 말했다.

"나는 포인트를 따죠." 아르센이 영국인을 향해 주먹을 날리며 받아쳤다.

숌즈는 공중을 향해 총을 쏘아 가니마르를 불렀다. 그의 개입이 시급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르센의 주먹은 정확히 숌즈의 명

치에 꽂혔다. 숌즈는 창백해지며 비틀거렸다. 뤼팽은 단번에 벽난로까지 도약했고, 이미 대리석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문이 열렸다.

"항복하시오, 뤼팽. 그렇지 않으면…"

가니마르는 뤼팽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숨어 있었다. 총구를 그에게 겨눈 채였다. 가니마르 뒤로는 열 명, 스무 명이 뒤엉켜 몰려들었다. 단단하고 거리낌 없는 사내들로, 조금만 저항해도 그를 개처럼 쏘아 죽일 놈들이었다.

뤼팽은 아주 차분하게 손짓을 했다.

"손 치워, 항복한다."

그러고는 두 팔을 가슴 위로 교차했다.

방 안이 잠시 멍해졌다. 가구가 없고 커튼도 없는 빈 방에서, 아르센 뤼팽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항복한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바닥 구멍으로 사라지거나, 벽이 무너져 내려 다시 한 번 적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는 정말 항복하고 있었다!

가니마르가 다가왔다. 그는 깊이 감격한 채, 그 어떤 행동보다도 엄숙한 태도로 천천히 상대에게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토록 기다려 온 말을 더없는 기쁨 속에 내뱉었다.

"당신, 체포합니다, 뤼팽."

"으악, 소름 끼치네요, 가니마르. 당신이 저를 얼마나 위압하는지 알겠소.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둡소? 친구의 무덤 앞에서 말하는 것 같구려. 자, 그런 장례식 같은 표정은 짓지 마시오."

"당신, 체포합니다."

"그게 그리도 감격스럽소? 법의 이름으로, 그 충실한 집행자인 수석 형사 가니마르가 악당 뤼팽을 체포한다, 이거요. 역사적인 순간이요. 당신이 그 중요성을 얼마나 잘 깨닫고 있는지 알겠소. 그리고 이건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지. 잘했소, 가니마르. 당신의 경력은 더 멀리 갈 것이오."

그리고 그는 강철 수갑에 두 손목을 내밀었다.

이 일은 어느 정도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평소처럼 거칠고 뤼팽에 대한 원한이 깊었던 형사들조차도 조심스러웠다. 손댈 수 없을 것 같던 존재를 실제로 만질 수 있다니, 그들 스스로도 놀라움에 휩싸여 있었다.

"가엾은 뤼팽." 그가 한숨지었다. "귀족들이 모여 사는 그 고귀한 동네의 친구들이 자네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꼴을 본다면 뭐라고들 할까!"

그는 온몸의 근육에 점점 더 꾸준히 힘을 주며 두 손목을 벌렸다. 이마의 정맥이 부풀어 올랐다. 사슬 고리가 그의 살을 파고들었다.

"자, 가 볼까." 그가 말했다.

사슬이 끊어지며 튀어 올랐다.

"다른 걸 가져와라, 동무. 이건 쓸모가 없군."

형사들이 그에게 사슬 두 개를 채웠다. 그가 수긍했다.

"좋아!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지."

그리고는 형사들의 수를 세었다.

"여러분, 몇 명이나 됩니까? 스물다섯? 서른? 정말 많군요…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아, 만약 열다섯 명뿐이었다면요!"

그는 정말로 풍채가 좋았다. 마치 본능과 열정으로, 거침없이 가볍게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는 위대한 배우 같은 자태였다.

숌즈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공연을 감상하듯, 그 아름다움과 미묘한 뉘앙스 하나까지 제대로 알아차리는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한쪽에는 사법의 거대한 장치를 모두 동원해 지지받는 서른 명의 사내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무기도 없이 사슬에 묶인 채 홀로 선 그가 있었다. 그런데도 양쪽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두 진영은 정말로 막상막하였다.

"자, 선생님." 뤼팽이 말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작품입니다. 덕분에 뤼팽은 감옥의 축축한 짚 위에서 썩어갈 판입니다. 인정하시죠, 당신의 양심이 그리 편치만은 않다는 것을, 그리고 후회가 당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영국인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였다. 그 표정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 하기 나름이었는데……'

"절대로요! 절대요!" 뤼팽이 외쳤다. "파란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라니? 아, 안 됩니다, 이미 그걸 얻느라 너무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저는 그걸 소중히 여깁니다. 다음 달쯤, 제가 영광스럽게도 런던으로 당신을 처음 찾아뵐 때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그런데 다음 달에 런던에 계실까요? 아니면 빈이 더 좋으신가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요?"

그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천장 쪽에서 갑자기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그것은 경보음이 아니었다. 전화기에서 걸려온 신호였다. 전화선은 두 창문 사이의 책상으로 이어져 있었고, 기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전화다!

도대체 누가 이 끔찍한 우연이 놓아둔 함정에 걸려들게 될까? 아르센 뤼팽은 격분한 듯 전화기 쪽으로 몸을 내밀었다. 기계를 부수고 산산조각 내고, 자기에게 말을 걸려는 그 수수께끼의 목소리를 끊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가니마르가 이미 수화기를 들어 올리고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48-73번… 네, 여기 맞습니다."

숌즈가 재빨리 그를 밀쳐내고 두 개의 수화기를 모두 잡았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덜 들리게 하려고 손수건을 기판 위에 대었다.

그때 그가 눈을 들어 뤼팽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눈빛은, 같은 생각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떠올랐음을, 그리고 가능하고 개연성 높으며 거의 확실한 이 가설의 끝단까지 둘이 함께 예견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은 바로 금발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펠릭스 다베, 아니 더 정확히는 막심 베르몽에게 전화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숌즈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려는 참이었다!

영국인이 또박또박 말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숌즈가 말했다.

"그래, 나야, 막심일세."

드라마가 비극적인 정밀함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불굴의, 조롱기 가득한 뤼팽조차 자신의 불안감을 숨길 생각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불안으로 창백해진 채, 그는 귀를 기울이고 짐작해 내려 애썼다. 그리고 숌즈는 신비로운 목소리에 답하며 계속 말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다 끝났어요. 약속대로 막 합류하려던 참이었어요…… 어디서요? 당신이 계신 그곳에서요. 거기가 아직 제일 낫지 않을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며 단어를 찾다가 말을 멈췄다. 그가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녀에게 슬쩍 캐물으려 애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가니마르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를 거북하게 하는 듯했다…… 아,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나 이 악마 같은 통화를 끊어 줄 수 있다면! 뤼팽은 긴장한 온 신경을 다해 그 기적을 간절히 빌었다!

그리고 숌즈가 입을 열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저도요… 아주 잘 안 들려요… 거의 분간도 안 가요… 듣고 계세요? 자,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무슨 위험이냐고요?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은 영국에 있으니까요! 사우스햄튼에서 그가 도착했다는 전보를 받았거든요."

이 말에 담긴 아이러니라니! 숌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흡족함에 잠겨 그 말을 또박또박 내뱉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러니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친애하는 벗이여, 곧 가겠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가니마르 형사, 당신 부하 세 명을 빌리겠습니다."

"금발의 여인 때문이죠?"

"당신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군요?"

"이런! 멋진 포획이군요. 뤼팽에다가… 오늘 하루가 완벽해지겠네요. 폴랑팡, 부하 두 명을 데리고 가서 이분을 모셔 가게."

영국인은 세 명의 형사를 거느리고 자리를 떴다.

끝이 났다. 금발의 여인마저 이제 숌즈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되었다. 놀라운 집념과 행운이 어우러진 사건들의 도움으로, 그에게는 이 싸움이 승리로, 뤼팽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끝나 가고 있었다.

"숌즈 씨."

영국인이 걸음을 멈췄다.

"뤼팽 씨?"

마지막 타격에 뤼팽은 깊이 흔들린 듯했다.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얼굴에는 피로와 어둠이 감돌았다. 그래도 그는 불끈 기운을

차려 몸을 일으켰고, 그럼에도 쾌활하고 거리낌 없는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도 인정하시겠죠, 운명이 저를 집요하게 괴롭힌다는 것을. 방금 전엔 그 운명이 이 굴뚝으로 탈출하는 걸 막아 당신에게 저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전화기를 이용해 금발의 여인을 당신에게 선물하더군요. 당신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제가 다시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숌즈는 가니마르 형사를 따로 불러내, 거절할 여지가 전혀 없는 어조로 뤼팽과 몇 마디 나눌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다. 그러고는 다시 뤼팽 쪽으로 돌아왔다. 최후의 회담이었다! 그는 단호하고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꺼냈다.

"무엇을 원하시오?"

"데스탕주 씨의 석방입니다."

"대가가 무엇인지 아시오?"

"그리고 당신은 수락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아!" 영국인이 놀라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거절했잖소…"

"바로 저였습니다, 숌즈 씨. 이제 문제는 한 여성을 둘러싼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여성이죠. 프랑스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런 일들에 대해 아주 특별한 관념이 있거든요. 비록 제 이름이 뤼팽이라고 해서 행동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그는 매우 평범한 어조로 그렇게 말했다. 숌즈는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그럼 파란 다이아몬드 말인가?"

"그쪽 벽난로 구석에 있는 지팡이를 가져가세요. 손잡이를 한 손으로 꽉 쥐고, 다른 손으로 지팡이 끝을 덮고 있는 철환을 돌리세요."

숌즈는 지팡이를 들어 철환을 돌렸다. 돌리자마자 손잡이가 풀리며 분리되는 것을 깨달았다. 그 손잡이 안쪽에는 마스틱으로 만든 공이 들어 있었다. 그 공 속에는 다이아몬드가 있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바로 파란 다이아몬드였다.

"데스탕주 양은 자유롭습니다, 뤼팽 씨."

"앞으로도 자유로운 건가요? 지금도요? 그분은 당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인가요?"

"누구에게도요."

"만약 무슨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생겨도요. 저는 이미 그분의 이름도 주소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다시 만나게 되겠죠, 숌즈 씨?"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인과 가니마르 사이에는 꽤 격앙된 언쟁이 오갔다. 숌즈는 다소 거칠게 그 대화를 끊었다.

"가니마르 씨, 제 의견에 동의하지 못해 매우 유감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설득할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한 시간 후 영국으로 떠납니다."

"그렇다면… 금발의 여인은요?"

"그런 사람은 모릅니다."

"방금 전까지…

"받거나 말거나입니다. 이미 뤼팽을 당신에게 넘겼으니까요. 여기 파란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자, 직접 크로종 백작부인에게 건네시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불만 따위는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금발의 여인은요?"

"찾아보시죠."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는, 일이 끝난 뒤에 오래 머무는 법이 없는 신사처럼 빠르게 자리를 떴다.

"잘 가시게, 선생님! 우리가 맺은 우호적인 관계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윌슨 씨에게 안부 전하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뤼팽은 비웃듯 피식 웃었다.

"이게 바로 영국식 퇴장이지. 아, 저 점잖은 섬나라 사람은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우아한 예의라는 꽃을 지니고 있지 않군. 생각 좀 해봐, 가니마르. 만약 프랑스인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자신의 승리를 얼마나 정교하고 세련된 예의로 감쌌겠어!… 하지만, 맙소사, 가니마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시작이군, 수색이라니. 하지만 이미 다 끝났어, 내 친구. 종잇장 하나 남지 않았어. 내 자료들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거든."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뤼팽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두 형사에게 잡힌 채 나머지 형사들 모두에게 둘러싸인 그는 인내심 있게 수색의 매 단계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20분이 지나자 그는 한숨을 쉬었다.

"빨리 끝내요, 가니마르.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급한가요?"

"물론이죠. 아주 긴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유치장에?”

“아니, 시내에.”

“그래, 몇 시에?”

“두 시에.”

“지금 세 시잖아.”

“그래서 늦을 거야. 나는 지각하는 게 제일 싫어.”

“5분만 줄 수 있어?”

“그 이상은 안 돼.”

“정말 친절하군… 내가 애써 보겠어…”

“그렇게 수다 떨지 마… 또 이 찬장? 하지만 비어 있잖아!”

“그런데 여기 편지들이 있어.”

“낡은 영수증 같은 건데!”

“아니, 리본으로 묶인 한 뭉치야.”

“분홍색 리본? 오, 가니마르, 제발 풀지 마!”

“여자의 것?”

"상류 사회 여자의?"

"그것도 최상류 출신이지."

"이름이 뭐야?"

"가니마르 부인."

"정말 재밌군! 정말 재밌어!" 형사가 새침한 어조로 외쳤다.

그때 다른 방을 수색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뤼팽이 웃음을 터뜨렸다.

"당연하지! 내 동지들의 명단이나 독일 황제와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라도 찾을 줄 알았나, 가니마르?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이 아파트의 작은 비밀들이야. 이 가스관은 음향 통로야. 이 벽난로 안에는 계단이 있고, 이 벽은 속이 비어 있어. 그리고 이 복잡한 초인종 회로를 봐라. 가니마르, 이 버튼을 눌러봐."

가니마르가 따라 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뤼팽이 물었다.

"네,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내 기구 단지에 명령을 내려, 곧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dirigible(방향성 풍선)을 준비하라고 했잖소."

"자." 감시를 마친 가니마르가 말했다. "이쯤에서 멍청한 짓은 그만두고 출발하자."

그는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형사들도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뤼팽은 발끝도 움직이지 않았다. 감시인들이 그를 밀었지만 소용없었다.

"그래." 가니마르가 물었다. "걷지 않겠다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당신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유치장으로 가는 거지."

"그럼 걷지 않겠습니다. 유치장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당신 미친 거야?"

"제가 이미 급한 약속이 있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뤼팽!"

"가니마르, 금발의 여인이 제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녀를 불안하게 내버려 둘 만큼 무례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신사다운 행동이 아니죠."

"들으시오, 뤼팽." 가니마르 형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이 배어 있었다. "당신을 위해 지나친 배려를 했소. 하지만 무엇이든 한계가 있는 법이지. 따라오시오."

"불가능합니다. 저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반드시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는데?"

"불-가-능."

가니마르 형사가 손짓했다. 두 명의 형사가 뤼팽의 양팔을 붙잡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들은 곧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손을 놓았다. 아르센 뤼팽이 두 손으로 긴 바늘 두 개를 그들의 살에 깊숙이 박아 넣었기 때문이다.

분노에 사로잡힌 나머지 형사들이 달려들었다. 마침내 증오가 터져 나왔고, 동료들의 원수를 갚고 자신들이 당한 숱한 모욕을 되갚으려 그들은 앞다투어 마구 때렸다. 한 방이 더 세게 뤼팽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그는 쓰러졌다.

"그를 망가뜨리면." 가니마르가 분노에 차 으르렁댔다. "나와 상대해야 할 거야."

그는 몸을 굽혀 뤼팽을 돌볼 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뤼팽이 편하게 숨 쉬고 있는 걸 확인하자 곧장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발과 머리를 잡아 들어. 나는 허리를 받칠 테니."

"무엇보다 살살! …흔들지 말고… 아, 이 짐승 같은 놈들, 하마터면 죽일 뻔했잖아. 어이, 뤼팽, 좀 어때?"

뤼팽이 눈을 떴다. 그는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점잖지 못하군, 가니마르… 나를 이렇게 두들겨 맞게 내버려 두다니."

"네 고집 때문이야, 젠장. 다 네 탓이지." 가니마르가 안타까운 듯 대답했다. "그런데 아픈 데는 없어?"

그들은 층계참에 다다랐다. 뤼팽이 신음했다.

"가니마르… 엘리베이터를 타자… 이대로 가면 내 뼈가 부러질 거야."

"좋은 생각, 아주 좋은 생각이군." 가니마르가 찬성했다. "게다가 계단이 너무 좁아서… 달리 방법이 없었어."

그가 엘리베이터를 불렀다. 그들은 온갖 주의를 기울여 뤼팽을 좌석에 앉혔다. 가니마르가 그 곁에 자리를 잡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우리랑 같이 내려가. 관리인실 앞에서 기다려. 알았지?"

그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외침이 터져 나왔다. 엘리베이터가 케이블이 끊긴 풍선처럼 단숨에 솟구쳐 올랐다. 조롱하듯 비웃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기랄…!" 가니마르가 소리쳤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내려가는 버튼을 미친 듯이 더듬었다.

하지만 버튼을 찾지 못하자 그는 외쳤다. "5층! 5층 문을 지켜!"

형사들이 계단을 네 칸씩 뛰어올랐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엘리베이터가 마치 최상층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듯 형사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곧바로 그 위층, 즉 하인층에 나타나 멈춰 섰다. 세 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었다.

그중 두 명이 가니마르를 제압했다. 가니마르는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데다 얼이 빠져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나머지 한 명이 뤼팽을 데리고 나갔다.

"경감, 내가 미리 말했지. 풍선으로 탈출한다고. 그것도 경감 덕분에 말이야! 다음번엔 동정심을 좀 줄이게. 그리고 기억해 둬. 아르센 뤼팽은 그럴 만한 이유 없이는 두들겨 맞고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걸. 잘 있게!"

승강기 문은 이미 닫혔고, 가니마르가 탄 승강기는 아래층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노경의 형사는 경비실 근처에서 순경들을 다시 따라잡았다.

그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해도 충분했다. 그들은 서둘러 안마당을 가로질러, 그리고 하인용 계단을 올랐다. 그곳이 바로 하인층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였고, 그곳이 바로 도주가 이루어진 곳이었다.

길고 여러 번 꺾인 복도가 이어졌다. 양옆으로는 번호가 매겨진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복도는 그냥 밀어 닫아 둔 문 하나로 이어졌다.

그 문을 지나자 다른 쪽, 말 그대로 다른 집 안이었다. 그곳에도 또 다른 복도가 이어졌다. 역시 꺾이고 꺾이며 양옆으로는 똑같은 작은 방들이 늘어서 있었다. 복도 끝자락에는 하인용 계단이 있었다.

가니마르는 그 계단을 내려갔다. 안마당을 지나 현관을 통과해 거리로 뛰쳐나왔다. 피코 거리였다.

그때야 그는 깨달았다. 두 집은 깊숙이 들어선 구조로 서로 맞닿아 있었고, 정면은 서로 다른 두 거리를 향해 있었다. 그 두 거리는 직각이 아니라 평행했고, 서로 60미터가 넘게 떨어져 있었다.

가니마르는 관리인실로 들어갔다. 명함을 내밀며 물었다.

"네 명이 방금 지나갔지?"

"네, 사층과 오층의 하인 두 명, 그리고 친구 두 명이었죠."

"사층과 오층에는 누가 살고 있었나요?"

"파벨 씨와 그 사촌 프로스트 씨요. 오늘 이사 갔습니다. 하인 두 명만 남았었는데, 그들도 방금 떠났어요."

"아!" 가니마르 형사가 수위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생각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기회를 놓쳤는가! 그 일당이 이 일대 건물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야."

사십 분 뒤, 두 신사가 마차를 타고 노르 역에 도착해, 가방을 든 짐꾼 한 명을 뒤세우고 칼레행 급행열차 쪽으로 서둘러 갔다.

그중 한 사람은 팔을 팔걸이 붕대로 매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건강해 보이지 않았다. 다른 한 사람은 즐거워 보였다.

"서둘러, 윌슨. 기차 놓치면 안 돼…… 아, 윌슨, 그 열흘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 아름다운 전투들을 말이야.

정말 훌륭했지.

거기저기 약간의 작은 번거로움 정도 있었을 뿐이야……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

결국 전체적인 승리라니, 뤼팽이 체포되고! 파란 다이아몬드가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왔어!

내 부러진 팔이 문제라고?

그런 보람 있는 결과라면 팔 하나쯤 뭐가 중요해!

특히 내 팔이잖아.

그렇지! 기억해, 윌슨. 네가 약국에 들어갔을 때, 영웅처럼 고통을 겪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실마리를 발견했거든.

정말 운이 좋았어!"

차문들이 닫혔다.

"타십시오, 부디. 서두르시죠, 여러분."

짐꾼 한 명이 빈 객실 계단을 올라가 가방들을 선반에 올렸고, 그동안 숌즈는 가엾은 윌슨을 끌어 올렸다.

"도대체 왜 그래, 윌슨? 왜 이렇게 꾸물대! 기운 내, 친구."

"기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지?"

"쓸 수 있는 손이 하나뿐이라서요."

"그게 어때서!" 숌즈가 신이 나서 외쳤다. "별일을 다 말하는군. 자네만 그런 줄 알아? 외팔이들은 어떻고? 진짜 외팔이들 말이야! 자, 됐지, 그만하면 됐잖아."

그는 짐꾼에게 50상팀짜리 동전을 건넸다.

"수고했네, 친구. 이거 받게."

"감사합니다, 숌즈 씨."

영국인이 고개를 들었다. 아르센 뤼팽이었다.

"당신!… 당신!…" 그가 어리둥절해 더듬거렸다.

윌슨은 하나뿐인 손을 휘저으며,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 사람의 몸짓으로 더듬더듬 말했다.

"당신!… 당신!… 하지만 당신은 체포됐잖아요! 숌즈가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당신을 떠날 때, 가니마르 형사와 그의 요원 서른 명이 당신을 에워싸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작별 인사도 없이 두 분을 떠나보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끊은 적 없는 그 돈독한 우정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건 더없는 결례가 될 텐데요. 저를 대체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까?"

기차가 기적을 울렸다.

“마침내,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건 챙기셨나요? 담배 성냥… 네… 저녁 신문은요? 거기 내 체포 기사와 당신의 마지막 활약상이 실려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이제 작별인사 올립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정말로요… 만약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시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그는 플랫폼으로 뛰어내려 차 문을 닫았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가 손수건을 흔들며 다시 말했다. “안녕히… 편지 쓸게요… 당신도 그러죠? 그리고 부러진 팔, 윌슨 씨? 둘 다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가끔 엽서 한 장씩 보내주세요… 주소는 이렇습니다. ‘뤼팽, 파리’… 충분합니다… 우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안녕히… 곧 봐요…”

제7장

헐록 숌즈와 윌슨은 큰 벽난로 양옆에 앉아, 안락하게 타오르는 코크스 불 쪽으로 발을 뻗고 있었다.

숌즈의 파이프가 꺼졌다. 은 테가 둘린 짧은 브라이어 파이프였다. 그는 재를 털어내고 다시 담배를 채워 불을 붙인 뒤, 가운 자락을 무릎 위로 끌어모으고는, 파이프에서 긴 연기를 뿜어 작은 고리 모양으로 천장을 향해 날려 보내려 애썼다.

윌슨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벽난로 앞 카펫 위에 둥글게 웅크린 개가 주인을 바라보듯, 눈동자를 깜빡이지도 않고 동그랗게 부릅뜬 채로. 그 눈에는 오직 주인이 내밀 손짓을 하기를 바라는 간절함뿐이었다.

주인이 침묵을 깨뜨릴까? 지금의 깊은 사색의 비밀을 털어놓을까? 아니면 자신의 마음속 명상의 세계로 자신을 받아들여 줄까? 윌슨은 그 세계의 문이 자신에게 닫혀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숌즈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용기를 낸 윌슨이 말을 건넸다.

"요즘은 일이 없군요. 우리 손에 잡힐 만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숌즈는 점점 더 격렬하게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고리들은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었다. 윌슨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숌즈가 거기서 깊은 만족감을 끌어내고 있음을 알아챘을 것이다. 그것은 머리가 온갖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비어 있을 때, 자존심을 채워 주는 그런 사소한 성공이 주는 만족감이었다.

낙담한 윌슨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칙칙한 건물들의 우중충한 정면 사이로 슬픈 거리가 뻗어 있었고, 검은 하늘에서는 짓궂고 사나운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또 한 대가 지나갔다. 윌슨은 그 번호들을 수첩에 적었다. 혹시 또 모르니까.

"어라," 그가 외쳤다. "우편배달부다."

하인의 안내를 받아 그 남자가 들어왔다.

"등기 우편 두 통입니다, 선생님…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숌즈는 장부에 서명하고, 그 남자를 문까지 배웅한 뒤 돌아오면서 편지 한 통의 봉투를 뜯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보군요." 잠시 후 윌슨이 말했다.

"이 편지에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 담겨 있소. 사건 하나를 원하던 당신, 여기 하나 있소. 읽어 보시오."

윌슨이 읽었다.

"당신의 경험에서 우러난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는 큰 도난 사건의 피해자인데, 지금까지의 수사로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할 듯합니다.

"이 편지와 함께 이 사건을 알려 줄 신문 몇 부를 보내 드립니다. 만약 사건을 맡아 주시겠다면, 제 저택을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봉한, 제가 서명해 둔 수표에는 출장 비용으로 당신이 정하고 싶은 금액을 직접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장은 전보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저의 깊은 경의를 받아 주십시오."

"허허!" 숌즈가 말했다. "이거 출발이 아주 좋군… 파리로 짧은 여행이라, 좋지! 안 될 게 뭐람. 아르센 뤼팽과의 그 유명한 결투 이후로 그곳에 다시 가 볼 기회가 없었지. 좀 더 평온한 상황에서 세계의 수도를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그는 수표를 네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 팔이 예전의 유연함을 되찾지 못한 윌슨이 파리를 향해 쓴소리를 늘어놓는 동안, 그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는 순간 참지 못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혔고, 종이를 구겨 공처럼 만든 뒤 바닥에 힘껏 내던졌다.

"뭐야? 무슨 일이야?" 윌슨이 놀라 소리쳤다.

그는 종이를 주워 펼쳤다. 읽을수록 놀라움이 커졌다.

"당신에 대한 나의 존경심과 당신의 명성에 대한 나의 관심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말만 믿으십시오. 당신에게 요청한 사건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개입하면 오히려 큰 해를 끼칠 뿐입니다. 당신의 모든 노력이 가져올 결과는 처참할 것이고, 결국 당신은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할 처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치욕을 겪지 않도록 진심으로 바라기에, 우리를 잇는 우정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벽난로 한구석에서 아주 조용히 계시기를.

"윌슨 씨에게도 안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친애하는 선생님, 당신께는 충실한 벗이 올리는 정중한 경의를 바칩니다.

"아르센 뤼팽!" 윌슨이 어리둥절해하며 되뇌었다.

숌즈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아! 이 녀석이 슬슬 나를 짜증나게 하는군! 나를 어린애처럼 가지고 노는군. 내 실패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라고! 내가 그놈에게 푸른 다이아몬드를 돌려주게 만들지 않았던가?"

"두려운 거예요." 윌슨이 넌지시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아르센 뤼팽은 결코 겁먹는 법이 없어. 그 증거가 바로 나를 도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하지만 그는 댕블르발 남작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겠소? 당신,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군, 이 친구야!"

"저는… 그저 이런 상상을 했을 뿐입니다…"

"무엇을? 내가 마법사라도 된다고?"

"아니요, 하지만 당신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걸 봤으니까요!"

"누구도 기적 같은 건 일으키지 않아… 나도 남들과 다를 바 없지. 나는 생각하고, 추론하고, 결론을 내릴 뿐, 알아맞히지는 않아. 알아맞히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지."

윌슨은 매 맞은 개처럼 풀죽은 자세를 취하고는, 바보가 되지 않으려고, 숌즈가 왜 짜증스러운 큰 걸음으로 방 안을 서성이는지 알아맞히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숌즈가 하인을 불러 가방을 챙기라고 명하자, 윌슨은 이제 명백한 물증이 있으니 생각하고 추론하여 결론 내릴 권리가 있다고 여겼다. 주인이 여행을 떠난다는 결론이었다.

그는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단호하게 말했다.

"헐록, 당신은 파리로 가겠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임블발 남작의 부탁보다도 뤼팽의 도발에 응하기 위해 가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헐록,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아, 아! 옛 친구여." 숌즈는 거닐던 발걸음을 멈추며 외쳤다. "자네는 왼팔도 오른팔 신세가 될까 봐 무섭지 않은가?"

"제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당신이 곁에 계시잖아요."

"좋아, 자네는 정말 용감한 친구야! 자, 그 신사에게 보여주세. 그렇게 뻔뻔스럽게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진 것이 어쩌면 잘못이었음을 말일세. 서둘러, 윌슨. 다음 첫 기차를 타러 가세."

"남작이 보내드린다는 신문을 기다리지 않으시겠어요?"

"기다려서 뭐 하게?"

"전보를 보낼까요?"

"필요 없다. 아르센 뤼팽이 내 도착을 눈치챌 테니까. 나는 그걸 원치 않아. 이번엔 윌슨,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오후, 두 친구는 두브르에서 배를 탔다. 항해는 순조로웠다. 칼레에서 파리로 가는 급행열차 안에서 숌즈는 세 시간 동안 깊은 잠에 빠졌고, 윌슨은 객실 문 앞에서 경계를 서며 멍한 눈으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숌즈는 개운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아르센 뤼팽과의 새로운 대결을 떠올리니 마음이 들떴고, 그는 풍성한 즐거움을 맛볼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비볐다.

"드디어, 우리도 몸 좀 풀게 됐군!" 윌슨이 외쳤다.

그도 똑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비볐다.

역에서 숌즈는 무릎담요를 챙겼고, 짐 가방을 든 윌슨이 그 뒤를 따랐다. 각자 자기 짐을 진 셈이었다. 그는 표를 내고 경쾌하게 밖으로 나섰다.

"날씨 참 좋군, 윌슨. 해까지 쨍쨍해! 파리가 우리를 맞이하려고 축제 분위기야."

"사람이 정말 많네요!"

"그게 더 좋지, 윌슨! 눈에 띌 염려가 없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틈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숌즈 씨, 맞으시죠?"

숌즈는 잠시 당황하며 발걸음을 멈췄다. 도대체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걸까? 그의 곁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차림새가 아주 소박한 젊은 여자였는데, 그 소박함이 오히려 그녀의 기품 있는 자태를 돋보이게 했다. 예쁜 얼굴에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이 서려 있었다.

여자는 다시 물었다.

"당신이 바로 숌즈 씨 맞으세요?"

그가 당황한 탓도 있고 신중한 습관 탓도 있어 입을 다물고 있자, 그녀는 세 번째로 다시 말했다.

"제가 말씀 나누는 영광을 누리는 분이 정말 숌즈 씨가 맞나요?"

"무슨 용건이오?" 그는 수상한 만남이라고 생각하며 다소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그의 앞을 딱 가로막고 섰다.

"제발 들어주세요, 선생님.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알기로 숌즈 씨는 뮈리요 거리로 가시죠."

"무슨 말씀이오?"

"알고 있습니다. 뮈리요 거리, 18번지. 그런데 거기에 가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가셔서는 안 됩니다. 가시면 후회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게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

서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이치에 따라, 양심에 따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 제발 부탁드려요. 고집부리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설득할 수 있을지 알 수만 있다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제 눈동자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제 눈은 진실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간절하게 두 눈을 들어 보였다. 영혼 그 자체가 비치는 듯한, 진지하고 맑은 아름다운 눈이었다. 윌슨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씨 말이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녀가 애원했다. "믿어주셔야 해요…."

"믿습니다, 아가씨." 윌슨이 대답했다.

"오, 정말 기뻐요! 당신 친구분도 그러시겠죠, 그렇죠? 느낌으로 알아요… 확신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 잘 풀릴 거예요!… 아, 제가 참 좋은 생각을 했네요!… 보세요, 선생님, 20분 뒤에 칼레행 열차가 있어요… 자, 그 열차를 타세요…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길은 이쪽이에요. 시간이 빠듯해요."

그녀는 그를 끌고 가려 했다. 숌즈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최대한 부드럽게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부탁을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번 맡은 일을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제발요… 제발 부탁이에요… 아, 당신이 이해해 주실 수만 있다면!"

그는 그녀의 청을 뿌리치고 빠르게 멀어졌다.

윌슨이 젊은 여자에게 말했다.

"희망을 가지세요. 그는 이 일을 끝까지 해낼 겁니다. 그가 실패한 전례는 아직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러고는 달음박질로 숌즈를 따라잡았다.

굵은 검은 글씨로 도드라진 그 문구들이, 두 사람이 발을 내딛자마자 눈에 확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샌드위치맨들이 줄지어 앞뒤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끝에 쇠를 박은 무거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박자에 맞춰 보도를 두드렸으며, 등에는 이렇게 적힌 거대한 포스터를 짊어지고 있었다.

"헐록 숌즈 대 아르센 뤼팽 대결, 영국 챔피언 도착. 명탐정, 뮈리요 거리의 미스터리에 도전하다. 자세한 내용은 '에코 드 프랑스'지에서."

윌슨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봐요, 헐록. 우리는 정체를 숨기고 일한다고 우쭐했었잖아요! 공화국 근위대가 뭐리요 거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건배와 샴페인까지 곁들인 공식 영접이 펼쳐진다 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윌슨, 자네가 재치를 부리기 시작하면 한 사람 몫의 두 배는 한다니까." 숌즈가 이를 갈며 내뱉었다.

그는 그 사내들 중 하나에게 다가갔다. 강력한 두 손으로 그를 붙잡아 그 사내와 그가 멘 벽보를 함께 산산조각 내버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군중은 이미 포스터 주위로 몰려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어댔다.

숌즈는 격렬하게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 사내에게 물었다.

"언제 고용됐나?"

"오늘 아침입니다."

"순회를 시작한 건…?"

"한 시간 전부터요."

"그런데 포스터는 이미 준비돼 있었고?"

"아, 그럼요. 오늘 아침 저희가 사무소에 갔을 때 이미 거기 있던걸요."

이렇게 보니, 아르센 뤼팽은 자신, 곧 숌즈가 이 싸움을 받아들이리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뤼팽이 쓴 편지는, 그가 이 싸움을 원했으며 라이벌과 다시 한번 겨루는 것이 그의 계획에 들어 있었음을 증명했다.

왜일까? 어떤 동기가 그를 다시 싸움으로 내몰았을까?

헐록은 다시 한번 망설였다. 뤼팽이 이토록 오만하게 구는 것은 틀림없이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일 터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첫 부름에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함정에 빠지는 일이 아닐까?

"가세, 윌슨!" 그가 기운을 되찾으며 외쳤다. "마부, 뮈리요 거리 18번지로."

그리고 핏줄이 부풀고 권투 시합에라도 나서듯 주먹을 꽉 쥔 채, 그는 마차에 뛰어올랐다.

뮈리요 거리에는 호화로운 저택들이 늘어서 있고, 그 정면은 몽소 공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 저택들 가운데서도 특히 아름다운 한 채가 18번지에 서 있다. 부인과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 사는 임블발 남작은, 예술가이자 백만장자의 안목으로 집을 더없이 호사스럽게 꾸며놓았다. 저택 앞에는 널찍한 앞뜰이 있고, 좌우로 부속 건물이 늘어서 있다. 뒤편 정원은 나뭇가지들이 공원의 나무들과 어우러져 있다.

초인종을 누른 뒤, 두 영국인은 앞뜰을 가로질러 들어갔고, 한 하인의 영접을 받아 반대편에 자리한 작은 응접실로 안내받았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그 규방을 가득 채운 값진 물건들을 재빠르게 한눈에 살폈다.

"멋진 물건들이군요." 윌슨이 중얼거렸다. "안목도 있고 멋도 있어요…. 이런 물건들을 한가로이 찾아 모은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이겠죠… 한 쉰 살쯤 됐으려나…."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문이 열리고 임블발 씨가 들어왔으며, 그 뒤를 부인이 따랐다. 윌슨의 추리와는 달리 두 사람 다 젊었고, 차림새가 우아했으며, 말과 행동이 무척 활기찼다. 두 사람은 거듭 감사를 표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렇게까지 수고를 끼쳐드리다니! 저희에게 닥친 이 골칫거리가 도리어 반가울 지경입니다. 덕분에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됐으니까요…."

'프랑스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매력적일까.' 깊이 있는 관찰을 마다하지 않는 윌슨은 그렇게 생각했다.

"시간은 곧 돈입니다." 남작이 외쳤다. "특히 당신의 시간이 그렇죠, 숌즈 씨. 그러니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잘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해결하려면, 먼저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니 자초지종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난 사건입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지난 토요일입니다." 남작이 답했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이었죠."

"그럼 엿새 전이군요. 자,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부부는 처지에 걸맞은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바깥출입은 드뭅니다. 아이들 교육, 가끔의 접대, 그리고 집 안을 꾸미는 일, 이것이 저희 삶의 전부지요. 그래서 저녁 시간은 거의 다 이 방에서 보냅니다. 이 방은 아내의 규방이고, 예술품 몇 점을 모아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밤 열한 시쯤, 저는 전등을 끄고 아내와 함께 평소처럼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침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그 문이 있죠.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잔, 즉 제 아내가 아직 자고 있었기에, 깨우지 않으려 최대한 조용히 이 작은 서재로 들어갔죠.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밤 닫아 둔 그 창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인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종을 울리기 전에는 아침에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더구나 저는 늘 조심스럽게, 현관과 통하는 이 두 번째 문의 빗장을 걸어 둡니다. 그러니 창문은 분명 밖에서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도 있었습니다. 오른쪽 창문의 두 번째 유리판, 창문 잠금장치(에스파뇰레트) 근처 부분이 잘려 나간 채였거든요."

"그리고 그 창문은요…?"

"이 창문은 보시다시피 작은 테라스로 이어집니다. 테라스는 돌 발코니로 둘러싸여 있죠. 우리는 지금 2층에 있고, 뒤로 저택 정원과 그 정원을 몽소 공원으로부터 가르고 있는 철책이 보입니다. 그러니 그 남자가 몽소 공원에서 왔다는 건 확실합니다. 사다리를 이용해 철책을 넘고 테라스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확실하다고요?"

"철책 양쪽 화단의 부드러운 흙에서는 사다리 받침대가 남긴 구멍 두 개가 발견됐습니다. 테라스 바닥에도 똑같은 구멍이 있었죠. 게다가 돌 발코니에는 사다리 받침대가 닿아 긁힌 듯한 얕은 흠집 두 개가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몽소 공원은 밤에 폐쇄되지 않나요?"

"닫히냐고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14번지에는 공사 중인 저택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들어오는 건 쉬웠을 거예요."

헐록 숌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자, 이제 도난 사건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사건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방에서 일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12세기 성모 마리아 상과 은으로 세공한 성궤 사이에 작은 유대 등불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등불이 사라졌죠."

"그게 다예요?"

"네, 그게 전부예요."

"아… 그렇다면 유대 등불이란 게 대체 무엇인가요?"

"옛날에 쓰던 구리 등불이에요. 긴 막대기에 기름을 담는 용기를 달고, 그 용기에서 심지를 꽂는 두세 개의 주둥이가 뻗어 나오는 구조죠."

"결국 별다를 것 없는 물건들이라는 말씀이군요."

"사실 큰 가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등불 안에는 비밀 공간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멋진 고대 장신구를 넣어 두곤 했죠. 루비와 에메랄드가 박힌 금 키메라로, 값이 아주 많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까?"

"음,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의 비밀 공간을 써 보는 단순한 재미 때문이었겠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도둑은 알고 있었겠지요. 키메라를 훔친 사람이니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유대 등불을 훔치는 수고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숌즈가 지적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등불의 비밀 장치는 우연히 우리가 발견한 것이니까요."

"그 우연이 다른 이에게도 알려졌을 수 있습니다. 하인이나, 집안 일에 익숙한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계속해 봅시다.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물론입니다. 수사 판사가 조사를 했고, 각 주요 일간지 소속의 추리 전문 기자들도 제각기 수사를 벌였지요. 하지만 제가 편지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숌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창틀과 테라스, 발코니를 살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돌에 난 두 긁힌 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임블발 씨에게 정원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밖에서 숌즈는 그냥 라탄 의자에 앉았다. 그는 몽상가처럼 집 지붕을 바라보았다.

그가 갑자기 두 개의 작은 나무 상자 쪽으로 걸어갔다. 사다리의 받침대가 테라스 아래에 남긴 구멍의 자국을 정확히 보존하기 위해 그 구멍들을 덮어둔 상자였다. 그는 상자를 치우고 무릎을 꿇었다. 등을 구

부리고 코를 지면에서 스칠 듯이 낮추고서, 그는 땅을 샅샅이 살폈다. 재기도 했다.

철책을 따라 같은 작업을 했지만, 그쪽은 훨씬 짧았다.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작은 서재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임블발 남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숌즈는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러고는 이런 말을 꺼냈다.

"남작님, 이야기 초반부터 저는 이 사건이 너무 단순하게 처리된 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사다리를 올리고, 창문을 깨고, 물건을 훔쳐서 사라지는 식으로 일이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사건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명확하고, 너무 깔끔하죠."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유대 등불 도난 사건은 아르센 뤼팽의 지휘 아래 자행된 것입니다."

"아르센 뤼팽!" 남작이 외쳤다.

"하지만 그 일은 뤼팽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이 저택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다락방에서 내려온 하인일 것입니다. 그는 정원에서 보았던 배수관을 타고 테라스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아르센 뤼팽이 빈손으로 작은 서재를 나갔을 리가 없습니다."

"빈손이라고요? 그런데 등불은요?"

"등불을 가져갔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박힌 이 코담뱃갑이나 오래된 오팔 목걸이를 못 가져갔을 리는 없습니다. 손만 두 번 더 뻗으면 됐으니까요. 그러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남은 흔적들은요?"

"모두 연극입니다. 의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꾸민 수작이죠!"

"난간의 긁힌 자국들은요?"

"거짓입니다. 사포로 만든 자국이거든요. 보세요, 제가 주워 온 사포 부스러기 몇 개입니다."

"사다리 받침대가 남긴 자국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군요. 테라스 아래쪽의 직사각형 구멍 두 개와 울타리 근처 구멍 두 개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모양은 비슷하지만, 한쪽에서는 평행하던 것이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구멍 사이의 거리를 재 보시면, 장소에 따라 간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라스 밑에서는 23센티미터, 울타리 옆에서는 28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양이 똑같으니, 이 네 개의 구멍은 모두 적절히 다듬은 나무 한 조각으로 뚫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그 나무 조각 자체겠죠."

"여기 있습니다." 숌즈가 말했다. "정원의 월계수 화분 밑에서 주웠습니다."

남작은 고개를 숙였다. 영국인이 이 문을 지나온 지 사십 분이나 지났건만, 겉으로 보이는 사실들조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 드러난 것은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다. 그 기반에는 헐록 숌즈의 논리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신이 우리 하인들에게 던지는 비난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선생님." 남작 부인이 말했다. "우리 하인들은 대대로 이 집안을 섬겨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우리를 배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들 중 누구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편지가 당신이 보낸 편지와 같은 날, 같은 우편으로 제게 도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아르센 뤼팽이 보낸 편지를 남작 부인에게 건넸다.

임블발 부인은 깜짝 놀랐다.

"아르센 뤼팽…… 그가 어떻게 알았죠?"

"그 편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은 없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전 저녁 식탁에서 우리끼리 떠올린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인들 앞에서도요?"

"우리 아이들 둘만 있었죠. 그것도 아니에요…… 소피와 앙리에트도 그때는 식탁에 없었잖아요, 수잔?"

임블발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분명히 말했다.

"맞아요. 두 아이는 마드무아젤에게 가 있었죠."

"마드무아젤?" 숌즈가 물었다.

"가정교사인 알리스 드묑 양이요."

"그분은 당신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방에서 따로 식사합니다."

윌슨이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제 친구 헐록 숌즈에게 쓴 편지는 우체통에 넣었죠."

"물론이죠."

"그 편지는 누가 부쳤습니까?"

"도미니크입니다. 스무 해째 저를 모시는 시종이지요. 그쪽을 찾는 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남작이 대답했다.

"수사를 할 때 시간을 낭비하는 법은 없지." 윌슨이 단정적으로 말했다.

첫 번째 수사는 여기서 끝났다. 숌즈는 물러나도 된다는 허락을 구했다.

한 시간 뒤, 저녁 식사 자리였다. 숌즈는 드임블발 가의 두 아이, 여덟 살 소피와 여섯 살 앙리에트를 보았다. 둘은 예쁜 소녀들이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숌즈는 남작과 그의 아내의 친절한 말투에 답했지만, 태도가 너무 딱딱해서 그들은 이내 침묵을 지키기로 했다.

커피가 나왔다. 숌즈는 잔에 담긴 커피를 들이키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한 하인이 들어와, 숌즈 앞으로 온 전화 전언을 건넸다. 숌즈는 그것을 열어 내용을 읽었다.

"저의 열렬한 찬사를 보냅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거두신 성과는 경이롭습니다. 저는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그가 짜증 섞인 제스처를 취하며 전보를 남작에게 내밀었다.

"자, 이제 벽이 눈과 귀를 가졌다고 믿으시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블발 남작이 멍하니 중얼거렸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그가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입에서 새어나오는 말 한마디도 그의 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윌슨은 할 일을 다 끝냈으니 이제 잠들기만 하면 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다. 그래서 그는 금세 잠들었고, 아름다운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뤼팽을 혼자서 쫓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그를 체포하려던 참이었다. 그 추격의 감각이 너무나 생생해서 그는 깨어났다.

누군가가 그의 침대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곧장 권총을 집어 들었다.

"한 번 더 움직이면, 뤼팽. 쏠 거야."

"이런, 너무 거칠게 나오시는군요, 친구."

"뭐, 당신이군요, 숌즈! 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내겐 당신의 눈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는 윌슨을 창가 쪽으로 이끌었다.

"저기 보시오. 울타리 너머를요."

"정원에요?"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닙니다. 무언가 보입니다."

"아, 정말로 그림자가 있군. 두 개나."

"그렇지 않습니까? 울타리 쪽에요. 보시죠, 움직이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손으로 난간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간 그들은, 정원의 현관으로 이어지는 방에 도착했다. 유리문 너머로 두 개의 실루엣이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상하군요." 숌즈가 말했다. "집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요."

"집 안에서요? 불가능해요! 모두 자고 있어요."

"그래도 들어보세요."

그때 울타리 쪽에서 가느다란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졌고, 호텔 쪽에서 희미한 빛이 비치는 것이 보였다.

"임블발 가가 불을 켠 모양이군요." 숌즈가 속삭였다. "우리 방 바로 위에 그들의 방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가 들은 게 저들이겠군. 어쩌면 담장 쪽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 윌슨이 말했다.

그때 또다시 휘파람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훨씬 더 은밀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 숌즈가 성이 나서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윌슨이 고백했다.

숌즈가 문에 꽂힌 열쇠를 돌리고 빗장을 풀더니, 천천히 문을 밀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휘파람 소리가 울렸다. 전보다 약간 더 크게, 그리고 음률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서 소리가 점점 커지며 급박하게 다가왔다.

"저 소리는 오히려 안락방 테라스 위쪽에서 나는 것 같아." 숌즈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그는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곧바로 뒤로 물러나 욕설을 삼켰다. 바로 옆 벽에는 사다리가 기대어져 있었고, 그것은 테라스 발코니에 닿아 있었다.

"아, 제기랄!" 숌즈가 말했다. "안락방에 누군가 있어! 우리가 들은 게 바로 이거였군. 빨리, 사다리를 치우자."

하지만 그 순간, 한 사내가 위에서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왔다. 사다리는 이미 치워졌고, 사다리를 들고 있던 남자는 서둘러 울타리 쪽으로 달아났다. 그곳에서 그의 동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숌즈와 윌슨은 즉시 덤벼들었다. 남자가 울타리에 사다리를 기대 세울 때, 그들은 그를 따라잡았다.

그때 울타리 너머에서 총성 두 방이 터졌다.

"부상당했나?" 숌즈가 비명을 질렀다.

"아니오." 윌슨이 대답했다.

윌슨은 남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남자는 몸을 틀어 윌슨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는 다른 한 손으로 칼을 그의 가슴 깊이 꽂아 넣었다. 윌슨은 한숨을 내쉬고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제기랄!" 숌즈가 고함을 질렀다. "저들이 내 동료를 죽였다면, 나도 죽여버리겠다!"

숌즈는 윌슨을 잔디밭에 눕히고 사다리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 남자는 이미 사다리를 다 올라가, 공범들의 부축을 받으며 덤불 사이로 달아나고 있었다.

"윌슨, 윌슨, 심각한 건 아니지, 응? 그냥 살짝 긁힌 정도지?"

호텔 문이 갑자기 열렸다. 먼저 임블발 남작이 나타나더니, 이어 촛불을 든 하인들이 따라 나왔다.

"무슨 일인가? 윌슨 씨가 다쳤다고?" 남작이 소리쳤다.

"아니에요, 그냥 살짝 긁힌 거예요." 숌즈는 스스로를 속이려 하며 거듭 말했다.

하지만 피는 철철 흐르고 있었고, 윌슨의 얼굴은 창백했다.

스무 분 후, 의사가 칼끝이 심장에서 딱 4밀리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고 확인했다.

"심장에서 4밀리미터라니! 윌슨은 늘 운이 좋단 말이야." 숌즈가 부러움 섞인 어조로 결론을 내렸다.

"운이 좋았군…… 운이." 의사가 중얼거렸다.

"음! 튼튼한 체격이니 이 정도로 끝나겠지……"

"병상에서 여섯 주, 회복기에 두 달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상은 아니고요?"

"네. 합병증이 없다면요."

"도대체 왜 합병증이 생기겠어요?"

완전히 안심한 숌즈는 안락방에서 남작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그 수수께끼의 방문자가 전처럼 신중하지 않았다. 거리낌 없이 다이아몬드가 박힌 코담뱃갑을, 오팔 목걸이를, 그리고 정직한 도둑의 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모든 것을 털어갔다.

창문은 아직 열려 있었다. 유리창 한 장은 깔끔하게 잘려 나갔고, 새 벽녘에 이루어진 간단한 수사는 사다리가 공사 중인 호텔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혀, 범인이 따라간 경로를 알려 주었다.

"결국," 임블발 씨가 약간 비꼬는 투로 말했다. "유대인의 램프 도난 사건과 똑같은 수법이 되풀이된 거군요."

"네, 법원이 처음 채택한 그 견해를 받아들인다면요."

"그럼 당신은 아직도 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요? 이번 두 번째 도난 사건도 첫 번째 사건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흔들지 못했단 말이오?"

"오히려 그 견해를 확고히 해줍니다, 각하."

"믿기 어렵군요. 당신은 이번 밤의 침입이 외부에서 온 누군가의 소행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의 램프는 우리 주변 누군가가 훔쳤다고 고집하는군요."

"이 호텔에 사는 누군가가 한 짓입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각하. 겉보기에만 서로 관련 있어 보일 뿐인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둘을 따로따로 판단하고, 두 사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확신은 너무나 깊었고, 그 행동의 근거는 너무나 강력해서, 남작은 고개를 숙였다.

"좋습니다. 그럼 경찰서장에게 알리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영국인이 급히 외쳤다. "절대로요! 저는 필요할 때가 아니면 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총격 사건은요?"

"상관없습니다!"

"당신 친구는요?"

"친구는 부상만 입었을 뿐입니다. 의사가 입을 다물게 해 주십시오. 사법 당국 쪽 일은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이틀이 흘렀다.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숌즈는 자신의 일을 꼼꼼하게 이어 갔다. 그는 자기 눈앞에서, 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막지 못한 채 성공해 버린 그 대담한 침입의 기억 때문에 자존심이 잔뜩 상해 있었다.

그는 지치지 않고 호텔을 뒤졌고, 정원을 샅샅이 살폈다. 하인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부엌과 마구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았다.

'찾아내겠어. 그리고 바로 여기서 찾아낼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번에는 금발 여자 사건 때처럼 무작정 헤매거나, 알지도 못하는 길을 따라 알지도 못하는 목적지로 향하는 게 아니다. 이번에 나는 바로 전투의 현장 한복판에 서 있다.

적은 이제 더 이상 잡을 수도 볼 수도 없는 뤼팽만이 아니다. 이 호텔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 숨 쉬며 움직이는, 살과 뼈를 가진 공범이다. 아주 사소한 단서 하나만 잡으면, 나는 모든 것을 알아낼 것이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단서는, 그가 무슨 기교를 부려 찾아낸 것이 아니라 우연이 그에게 건네준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단서에서 그토록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냈고, 그 솜씨가 어찌나 비범했던지 '유대인의 램프' 사건은 그의 탐정으로서의 천재성이 가장 눈부시게 빛난 사건 중 하나로 꼽히게 된다.

셋째 날 오후, 그는 안락방 바로 위에 있는 방에 들어섰다. 아이들의 공부방으로 쓰이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매 중 막내인 앙리에트를 만났다. 그녀는 가위를 찾고 있었다.

"있잖아요, 나도 저번 밤에 아저씨가 받은 것 같은 종이를 만들어요."

앙리에트가 숌즈에게 말했다.

"저번 밤?"

"네, 저녁 식사 끝날 때요. 위에 띠들이 붙은 종이를 받으셨잖아요…… 그 왜, 전보 말이에요…… 나도 그런 거 만든다고요."

그녀는 나갔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 말을 아무 의미 없는 아이의 수다로 흘려보냈을 것이다. 숌즈 역시 무심한 귀로 듣고는 검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아이를 뒤쫓아 달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마지막 말이 불현듯 그의 마음을 찌른 것이다. 그는 계단 위에서 아이를 따라잡고 물었다.

"그래, 너도 종이에 띠를 붙이니?"

앙리에트는 매우 자랑스럽게 말했다.

"네, 저는 단어를 오려서 붙여요."

"누가 그 놀이를 가르쳐 줬니?"

"마드무아젤요…… 제 가정교사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신문에서 단어를 잘라서 붙여요……"

"그걸로 뭘 하는데?"

"전보랑 편지요. 그걸 부쳐요."

헐록 숌즈는 이 이야기에 유난히 흥미를 느끼며 공부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 말에서 끌어낼 수 있는 추론들을 짜내려 애썼다.

벽난로 위에는 신문이 한 무더기 쌓여 있었다. 그는 신문을 펼쳐 보았다. 과연 단어 무리나 줄들이 규칙적이고 깔끔하게 잘려 나간 자국이 보였다.

하지만 잘려 나간 부분의 앞뒤 단어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빠진 단어들이 가위가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잘린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분명 앙리에트의 짓이었다.

물론 그 신문 더미 속에 가정교사가 직접 잘라낸 신문이 한 부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가?

헐록은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에 쌓인 교과서들을 넘겨보았다. 이어 옷장 선반 위에 놓인 다른 책들도 뒤졌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기쁨에 찬 비명을 지른 것이다.

옷장 구석, 쌓여 있는 낡은 노트들 아래에서 그는 어린이용 앨범을 하나 발견했다. 그림이 곁들인 알파벳 책이었다. 그 앨범의 한 페이지를 보니, 그곳에 빈 공간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헐록은 다시 확인했다.

그 빈 공간은 요일의 목록 자리였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런데 토요일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 램프 도난 사건은 바로 토요일 밤에 일어났다.

헐록은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그 느낌은 늘 그랬듯, 그가 사건의 핵심에 마침내 도달했음을 가장 또렷이 알려주는 신호였다.

진실을 붙잡는 그 떨림, 확실함에 대한 그 감동은 결코 그를 속인 적이 없었다.

열과 기대에 부푼 그는 앨범을 재빨리 넘겨들었다. 조금 더 뒤쪽에서 또 다른 놀라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대문자들로 이루어진 줄과 그 아래 숫자들로 이루어진 줄이 나란히 있는 페이지였다.

그중 아홉 개의 글자와 세 개의 숫자가 조심스럽게 잘려 나갔다. 숌즈는 그 빈자리에 원래 들어갔을 순서대로 노트에 적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젠장, 일단 보기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군."

이 글자와 숫자들을 섞어서 모두 사용해 완전한 단어 하나, 혹은 두 개, 세 개를 만들 수 있을까?

숌즈는 그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헛수고였다.

그에게 유일한 해법은 하나뿐이었다. 그 해법은 연필 끝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었고, 시간이 지나며 그는 그것이 진정한 답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사건의 논리에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정황과도 일치했기 때문이다.

앨범 페이지에는 알파벳 각 글자가 단 한 번씩만 등장했다. 따라서 우리는 불완전한 단어들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 단어들은 다른 페이지에서 가져온 글자로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거의 확실했다.

그렇다면 수수께끼는 이렇게 설정된다.

첫 번째 단어는 명확했다. 'répondez'였다. 단, E가 빠져 있었다. E는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반쯤 잘려 나간 단어는 숫자 '237'과 함께,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알려준 주소였다. 먼저 토요일에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 답장은 'CH.237'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CH.237'이 사서함 번호였을까, 아니면 'CH'가 잘려 나간 단어의 일부였을까. 숌즈는 앨범을 넘겨봤다. 그 뒤쪽 페이지에는 다른 잘린 흔적이 없었다. 그러니 당분간은 이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재미있지 않나요?"

앙리엣트가 다시 돌아왔다. 숌즈가 대답했다.

"당연하지! 그런데 다른 종이는 없나? 아니면 이미 잘려서 붙일 수 있는 글자라도?"

"종이요? 없어요. 그리고 미스님은 기분이 안 좋아하실 거예요."

"미스?"

"네, 이미 꾸지람을 들었어요."

"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스님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너무나도 옳은 말이야."

앙리엣트는 그 칭찬에 정말 기뻐했다. 너무 기뻐한 나머지, 치마에 핀 작은 천 주머니에서 헝겊 조각 몇 개, 단추 세 개, 설탕 조각 두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을 꺼내 숌즈에게 건넸다.

"그래도 이거, 드릴게요."

그것은 삯마차 번호표였다. 8279번.

"이 번호표가 어디에서 나온 거지?"

"지갑에서 떨어졌어요."

"언제?"

"일요일 미사 때요.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려고 할 때였죠."

"완벽해! 이제 너를 꾸짖지 않도록 해줄게. 미스님한테 내가 여기 있었다는 말은 하지 마."

숌즈는 임블발 남작을 찾아갔다. 그리고 단호하게 마드무아젤에 대해 물었다. 남작은 깜짝 놀랐다.

"알리스 드뮌!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요?… 불가능해요."

"그녀가 당신 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소?"

"딱 일 년뿐이에요. 하지만 그녀보다 더 온순하고, 제가 더 신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내가 아직 그녀를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오?"

"그녀가 이틀 동안 자리를 비웠거든요."

"지금은요?"

"돌아온 직후부터, 그녀는 당신 친구의 병상을 지키겠다고 나섰어요. 완벽한 간병인의 자질을 갖췄죠… 부드럽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윌슨 씨도 그녀에게 매우 만족해하고 있어요."

"아!" 숌즈가 말했다. 그는 오랜 친구의 안부를 전혀 묻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그녀가 외출했소?"

"도난 사건 다음 날?"

"네."

남작은 아내를 불러 같은 질문을 했다.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마드무아젤은 평소처럼 열한 시 미사에 가려고 아이들과 함께 나갔어요."

"그 전에는요?"

"그 전에? 아니요… 아니, 좀 그렇긴 한데… 그 도난 사건 때문에 제가 너무 당황해서요! 그래도 기억나네요. 마드무아젤이 전날 일요일 아침에 외출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파리에 들른 사촌을 만나러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형사님께서 그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겠죠?"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만나고 싶습니다."

윌슨의 방으로 올라갔다. 간호사들처럼 회색의 긴 천 옷을 입은 한 여자가 환자 곁에 몸을 굽힌 채 그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서자, 숌즈는 북역 앞에서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 젊은 여자를 알아봤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설명도 오가지 않았다. 알리스 드뮌은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고 매력적인 눈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영국인은 말을 걸려다 몇 음절만 뱉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놀란 숌즈의 시선을 받으며 평온하게 움직였다. 병들을 옮기고, 천 붕대를 풀었다 감았다. 그러곤 다시 한 번 맑은 미소를 건넸다.

그는 발길을 돌려 다시 내려갔다. 마당에 멈춰 있는 드임블발의 자동차를 보고는 바로 올라탔다. 그러고는 아이가 건네준 삯마차 번호표에 적힌 주소를 따라 레발루아의 자동차 차고로 향했다.

일요일 아침 8279호를 몰았던 두프레 마부는 자리에 없었다. 숌즈는 자동차를 돌려보내고, 교대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두프레 마부는 이렇게 증언했다.

"네, 맞습니다. 몽소 공원 근처에서 한 여자를 태웠어요. 검은 옷을 입은 젊은 부인이었죠. 얼굴을 가리는 큰 베일을 쓰고 있었어요. 아주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짐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꽤 긴 꾸러미를 들고 있었죠."

"그리고 어디로 모셨나요?"

"테른 대로, 생페르디난 광장 모퉁이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곳에서 10분쯤 머물렀다가, 다시 몽소 공원으로 돌아왔죠."

"테른 대로에 있는 그 집을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지."

"그곳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잠깐만. 먼저 오르페브르 가 36번지로 가주게."

경찰청에 도착한 그는 운이 좋게도 곧장 가니마르 경수를 만났다.

"가니마르 경수, 시간 되십니까?"

"뤼팽 일이라면 안 됩니다."

"바로 그 뤼팽입니다."

"그럼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포기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불가능한 건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지쳤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진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싸우는 건 무의미하죠. 비겁하다니, 터무니없다니, 원하시는 대로 부르세요. 제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뤼팽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고개 숙일 수밖에요."

"저는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결국 다른 사람들처럼 고개 숙이게 될 겁니다."

"자, 분명 당신을 즐겁게 해 줄 구경거리가 있을 겁니다!"

"아, 그건 그렇군요." 가니마르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아직 얻어맞을 매가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 가 봅시다."

두 사람은 삯마차에 올랐다. 두 사람의 지시에 따라 마부는 그 집 바로 앞이 아니라, 거리 건너편 작은 카페 앞에 마차를 세웠다. 그들은 월

계수와 회양목 사이, 카페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봐요, 종업원." 숌즈가 말했다. "필기도구 좀 가져다주게."

숌즈는 무언가를 쓰고는, 종업원을 다시 불렀다.

"이 편지를 맞은편 건물 관리인에게 전해 주시오. 분명 차양 모자를 쓰고 현관문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내일 겁니다."

관리인이 나타났다. 가니마르가 자신이 수석 형사임을 밝히자, 숌즈는 일요일 아침에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왔었는지 물었다.

"검은 옷이요? 네, 아홉 시쯤 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그분이요."

"자주 보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더 자주 봤습니다. 지난 보름 동안은 거의 매일 왔죠."

"그리고 일요일 이후로는?"

"오늘을 빼면 딱 한 번이요."

"뭐라고요? 그 여자가 왔다고요?"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와 있다니!"

"온 지 십 분쯤 됐습니다. 마차는 평소처럼 생페르디난 광장에 대기 중이죠. 그 여자와는 제가 문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2층 세입자가 누구죠?"

"두 분입니다. 한 분은 모자 가게 여주인 랑제이 부인이고요. 다른 한 분은 한 달 전부터 방 두 개를 세낸, 브레송이라는 이름을 쓰는 신사입니다."

"왜 '가명'이라고 하죠?"

"제 생각엔 가명일 것 같아서요. 제 아내가 집안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의 속옷에 같은 이니셜이 달린 셔츠가 두 벌도 없더랍니다."

"그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합니까?"

"아, 거의 외박을 해요. 사흘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지도 않죠."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 사이에 집에 돌아왔습니까?"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 사이라니요. 잠깐만요,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토요일 저녁에 들어와서는 그다음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럼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음, 잘 모르겠군요. 정말 변덕이 심해요. 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살이 찌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죠. 갈색 머리도 있고 금발도 있고요. 저는 늘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니마르와 숌즈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입니다." 형사가 속삭였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노련한 형사 가니마르에게도 순간적인 동요가 찾아왔다. 그는 하품을 하며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숌즈도, 가니마르보다는 더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있었지만,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조심하십시오. 그 젊은 여자가 나옵니다."

정말 그 여자가 문턱에 모습을 드러내고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브레송 씨도 보입니다."

"브레송 씨?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팔 아래에 소포를 끼고 가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신경 쓰지 않네요. 그녀가 혼자 차를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군요."

두 경찰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들은 뤼팽의 실루엣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광장과 반대 방향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

"누구를 따라갈 겁니까?" 가니마르가 물었다.

"그 녀석? 당연히 그래. 바로 그놈이 주요 사냥감이지."

"그럼 저는 아가씨를 따라가겠습니다." 가니마르가 제안했다.

"아니, 안 됩니다." 영국인이 급히 말했다. 가니마르에게 이 사건의 내막을 조금도 털어놓지 않으려던 터였다. "아가씨는 제가 다시 만날 곳을 알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행인과 가판대가 잠시 가려 주는 틈을 이용해 거리를 두고 뤼팽을 쫓아갔다. 추격은 쉬웠다. 뤼팽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오른쪽 다리에 아주 미세한 절름발이 증세를 보이며 빠르게 걸었기 때문이다. 그 절름거림은 너무도 가벼워, 예리한 관찰자의 눈이 아니면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였다.

가니마르가 말했다.

"저놈은 절름발이인 척하는 거야."

그가 다시 덧붙였다.

"아, 만약 우리 쪽 형사 두세 명을 더 불러들여 그 자에게 덤벼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놈을 놓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테른 문 앞에는 어떤 경찰도 나타나지 않았다. 성벽을 넘어서자,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다.

"따로 움직입시다." 숌즈가 말했다. "이곳은 한적하니까."

바로 빅토르 위고 대로였다. 그들은 각자 보도를 하나씩 맡고, 나무 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스무 분 동안 그렇게 걸었다. 그러다 뤼팽이 왼쪽으로 꺾어 센 강변을 따라 걸었다. 이때 그들은 뤼팽이 강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곳에서 몇 초간 머물렀지만, 그들이 그의 행동을 분간할 수는 없었다. 곧 그는 강둑을 다시 올라와 되돌아왔다. 그들은 철책 기둥에 몸을 숨겼다. 뤼팽이 그들 앞을 지나갔다. 그는 더 이상 소포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가 물러서자, 집 모퉁이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 나무들 사이로 슬그머니 숨어들었다.

숌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녀석도 뒤를 밟고 있는 것 같군."

"네, 가는 길에 이미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냥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 낯선 남자의 존재로 인해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뤼팽은 같은 길을 되짚어 테른 문으로 다시 들어갔고, 생

페르디난드 광장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가니마르가 도착했을 때, 문지기는 막 문을 닫고 있었다.

"그 사람 봤죠? 안 그래요?"

"네, 계단 가스등을 끄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방문의 빗장을 질렀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없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인도 없고…… 그는 여기서 절대 식사를 하지 않아요."

"하인용 뒷계단 같은 건 없나요?"

"없습니다."

가니마르가 숌즈에게 말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가 뤼팽 집 문 앞에 대기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당신은 드무르 거리의 경찰서장을 부르러 가세요. 제가 전할 말을 일러 드릴 테니까요."

숌즈가 반대했다.

"그 사이에 그가 탈출하면 어쩌죠?"

"제가 여기서 지키고 있는데요."

"일대일로는 그와의 싸움이 너무 불리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의 집을 강제로 침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어요. 특히 밤에는 더더욱."

숌즈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이 뤼팽을 체포하고 나면, 체포 방식을 두고 따져 묻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어차피 할 일이라곤 그냥 초인종을 누르는 게 전부예요.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죠."

그들은 계단을 올랐다. 층계참 왼쪽으로 양쪽으로 여닫는 문이 나타났다. 가니마르가 초인종을 눌렀다.

소리는 없었다. 다시 눌렀다. 아무도 없었다.

"들어갑시다." 숌즈가 속삭였다.

"네, 가봅시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못했다.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결정적인 행동을 앞두고 주저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행동하기를 두려워했다.

아르센 뤼팽이 바로 그 근처, 두들기면 무너질 듯한 얇은 벽 뒤에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들은 그 악마 같은 인물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뤼팽이 그렇게 우습게 잡힐 리가 없었다.

아니, 아니, 천 번이라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인접한 집들을 지나 지붕을 넘어, 혹은 적절히 준비해 둔 다른 탈출구를 통해 그는 이미 도망쳤을 것이다. 또다시 그들이 잡으려는 것은 뤼팽의 그림자뿐이었다.

그들은 오싹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온 아주 작은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살짝 스치듯 울렸다. 그리고 그들은 확신했다. 그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얇은 나무 벽 하나로 그들을 가르고 있지만, 그는 지금 이들을 지켜보고 있고, 이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상황은 비참할 정도였다. 베테랑 형사다운 차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은 너무도 격동되어 심장이 뛰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가니마르가 눈짓으로 숌즈를 살폈다. 그러고는 문득 주먹으로 문을 세게 내리쳤다.

이제 발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숨으려 하지 않는, 뚜렷한 발소리였다.

가니마르가 문을 흔들었다. 숌즈가 어깨를 내밀며 무너지는 문틈으로 돌진했고, 두 사람은 거침없이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발걸음을 뚝 멈췄다. 옆방에서 총성이 울렸다. 이어 한 발 더, 그리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남자는 벽난로의 대리석에 얼굴을 댄 채 엎드려 있었다. 그는 경련을 일으켰고, 손에서 권총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가니마르가 몸을 굽혀 시신의 머리를 돌렸다.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볼과 관자놀이의 큼직한 두 상처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정체조차 알아보기 어렵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물론이지." 숌즈가 말했다. "저 사람은 그가 아니야."

"어떻게 알았소? 아직 살펴보지도 않았잖소."

영국인은 코웃음을 쳤다.

"아르센 뤼팽이 자살할 남자인 줄 아나?"

"하지만 밖에서 그를 본 것 같았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었을 뿐이야. 그 남자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거든."

"그러면 그건 그의 공범 중 한 명인가?"

"아르센 뤼팽의 공범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다."

"그럼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들은 시신을 뒤졌다. 한쪽 주머니에서 헐록 숌즈가 빈 지갑을 꺼냈고, 다른 주머니에서는 가니마르 형사가 몇 개의 루이 주화를 찾아냈다. 속옷에도, 옷에도 아무런 표식이 없었다.

짐 속에는—큰 트렁크 하나와 여행가방 두 개—옷가지뿐이었다. 벽난로 위에는 신문 더미가 놓여 있었다. 가니마르 형사가 그것을 펼쳤다. 모든 신문이 '유대인의 램프 도난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한 시간 뒤, 가니마르 형사와 숌즈가 물러났을 때, 그들이 자살로 몰아넣었던 이 기이한 인물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는 대체 누구인가? 왜 자살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그와 유대인 램프 사건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가 산책 중 뒤를 밟힌 것은 누구의 짓이었을까?

이 모든 질문은 서로 얽혀 풀기 어려웠다. 그야말로 미궁 속의 미궁이었다.

헐록 숌즈는 성이 나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침대에 드러누웠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눈을 뜨자마자 한 통의 우편물이 날아들었다. 내용은 이랬다.

"아르센 뤼팽은 브레송 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자신도 함께 세상을 떠났음을 알리며, 장례식과 매장 의식에 참석해 주시기를 청합니

다. 이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며, 행사는 6월 25일 목요일에 치러집니다."

제8장

"보십시오, 나의 오랜 동지여." 숌즈는 아르센 뤼팽의 서신을 휘두르며 윌슨에게 말했다. "이 사건에서 나를 격분시키는 건, 이 빌어먹을 신사가 끊임없이 내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제 가장 비밀스러운 생각 하나도 그의 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엄격한 연출에 따라 모든 발걸음이 정해진 배우와 같습니다. 그곳으로 가고, 저렇게 말하지요. 더 높은 의지가 그렇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합니까, 윌슨?"

윌슨은 분명히 이해했을 것이다. 만약 그가 사십 도에서 사십일 도 사이를 오르내리는 고열로 깊은 잠에 빠져들지 않았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가 들었든 말든, 숌즈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는 계속했다.

"나는 좌절하지 않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고, 가진 수단을 총동원해야 해. 다행히도 내게는 이런 작은 장난들이 바늘로 콕콕 찌르는 자극이 되어 오히려 나를 분발하게 한다. 그 따가운 통증이 가시고 자존심의 상처가 아물고 나면, 나는 늘 이렇게 되뇐다. '실컷 놀아라, 친구. 언젠가는 네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고 말 테니까.'"

"그러니까 윌슨, 생각해 보게. 뤼팽 아니었나? 그의 첫 전보, 그리고 그 전보가 어린 앙리에트에게 불러일으킨 한마디 덕분에, 바로 그 뤼팽이 알리스 드몽과 주고받던 편지의 비밀을 내게 넘겨준 것 아닌가? 자네는 그 사실을 잊고 있군, 오랜 친구."

그는 발소리도 요란하게 방 안을 거닐었다. 오랜 친구를 깨울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였다.

"드디어 해답이 보인다. 길은 아직 어둡지만, 어느새 그 속에서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먼저 브레송이라는 자에 대한 단서를 확보해야 해. 가니마르와 나는 브레송이 소포를 던진 세느강 변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곳에서 '그 분'의 정체가 드러날 테니까.

나머지는 알리스 드몽과 나의 대결이야. 상대는 그리 큰 존재가 아니지, 윌슨? 곧 앨범 속의 문장과 두 글자, 'C'와 'H'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어, 윌슨."

그때 미스 드몽이 들어왔다. 그녀는 숌즈가 손짓하며 떠드는 모습을 보고는 다정하게 말했다.

"숌즈 씨, 제 환자를 깨우시면 혼내드릴게요. 그렇게 방해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의사가 절대적인 정숙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녀의 불가해할 정도로 평온한 태도에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다.

"왜 그렇게 저를 보고 계십니까, 숌즈 씨? 별일 아닌가요? 아니죠… 당신은 늘 숨은 의도를 품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무슨 뜻이죠?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는 맑은 얼굴로, 순진한 눈빛으로, 미소 짓는 입술로, 그리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인 온몸으로 그에게 물음을 던졌다. 두 손을 모은 자세까지 더해져, 그녀의 태도 전체에서 순수함이 묻어났다. 그 순수함이 너무도 강렬해서 영국인 남자는 도리어 분노를 느꼈다. 그는 다가가 낮게 말했다.

"브레송이 어젯밤 자살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 말을 되풀이했다.

"브레송이 어제 자살을……"

실제로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경련도 일어나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느라 애쓰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군요." 그가 짜증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적어도 흠칫 놀라기라도 했을 텐데……. 아,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만만찮은 여자군요. 한데 왜 시치미를 떼는 겁니까?"

그는 옆 탁자에 막 내려놓았던 사진 앨범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잘려 나간 페이지를 펼쳤다.

"여기 빠져 있는 글자들을 어떤 순서로 배열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야 유대인 램프 절도 나흘 전에 당신이 브레송에게 보낸 쪽지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떤 순서요?… 브레송?… 유대인 램프 절도?…"

그녀는 천천히 그 단어들을 되뇌었다. 마치 그 단어들이 지닌 의미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려는 듯했다.

그가 다그쳤다.

"네. 여기, 이 작은 종이조각에 적힌 글자들이 쓰인 곳이 있군요. 브레송에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글자들이 쓰인 곳이라니… 내가 브레송에게 한 말이라니…"

그녀가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다.

"알았어요! 내가 이해했어요! 내가 바로 절도 사건의 공범이죠! 브레송이라는 분이 유대인의 램프를 훔쳐갔고, 그 과정에서 자살했군요. 그리고 저는 그 분의 친구였다고요. 오, 정말 재미있어요!"

"어제 저녁, 테른 대로에 있는 집 2층에서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까?"

"누구요? 제 모자 장수인랑제이 씨를요. 제 모자 장수와 제 친구 브레송 씨가 사실은 같은 사람일까요?"

숌즈는 여전히 의심했다. 사람은 위장해서 공포나 기쁨, 불안 같은 감정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무관심이나, 가볍고도 행복한 웃음까지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그가 한마디 더 물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요전날 저녁, 노르 역에서 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 도난 사건에는 신경 쓰지 말고 즉시 떠나 달라고 그토록 간곡히 부탁하셨죠?"

"아, 당신 정말 호기심이 많으시네요, 숌즈 씨." 그녀가 여전히 더없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답했다. "벌로, 당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할 거예요. 게다가 제가 약국에 다녀오는 동안 이 환자를 봐 주셔야겠어요. 급한 처방전이 있어서요.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그녀는 나가 버렸다.

"당했군." 숌즈가 중얼거렸다.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캐내지 못한 데다, 오히려 내가 내 속을 다 드러내고 말았어."

그는 푸른 다이아몬드 사건과 클로틸드 데상즈를 심문했던 일을 떠올렸다. 금발의 부인이 그에게 내보였던 그 침착함, 바로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아르센 뤼팽의 보호를 받으며 그의 영향력이 직접 미치는 가운데 위기의 순간조차 놀라우리만큼 차분함을 잃지 않는 인물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숌즈…… 숌즈……"

그는 자신을 부르는 윌슨 쪽으로 다가가 몸을 숙였다.

"무슨 일인가, 오래된 동지? 고통스럽나?"

윌슨은 입을 움직였으나 말은 나오지 않았다. 간신히 힘을 모아 그는 더듬거렸다.

"아니…… 숌즈…… 그 여자가 아니야. 그 여자일 리가 없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잖습니까, 바로 그녀라고요! 뤼팽이 키워 내고 조종하는 여자와 마주하면, 저는 늘 정신을 잃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거든요. 이제 저 여자가 앨범에 얽힌 이야기를 죄다 알아 버렸군요. 장담하건대, 한 시간도 안 되어 뤼팽이 이 사실을 전해 들을 겁니다. 한 시간? 무슨 소리! 당장이지! 약제사? 급한 처방전?…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는 재빨리 자리를 피해 메스나 대로(Avenue de Messine)를 내려갔다. 그러다 한 약국으로 들어가는 여자를 발견했다. 10분 뒤, 그녀는 흰 종이에 싼 작은 약병 몇 개와 큰 병 하나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그런데 대로를 거슬러 올라가던 그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모자를 손에 쥔 채, 동냥하듯 비굴한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붙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동전을 건넸다. 그러곤 다시 길을 재촉했다.

'그녀가 그에게 말을 걸었군.'

영국인은 그렇게 생각했다. 확신이라기보다 직관에 가까웠지만, 그 느낌은 강렬했다. 그는 전술을 바꾸기로 했다. 소녀의 행방은 잊은 채, 가짜 거지 뒤를 쫓아 나섰다.

그렇게 둘은 한 줄로 이어져 생페르디난 광장까지 따라갔다. 남자는 브레송의 집 주변을 한참 동안 맴돌았다. 때로는 2층 창문 쪽으로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기도 했고, 또 다른 때는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주시했다.

한 시간 뒤, 그 남자는 뉘이로 향하는 트램의 지붕 위 자리에 올랐다. 숌즈도 따라 탔다. 그는 그 남자의 바로 뒤, 조금 떨어진 곳에, 펼친 신문지로 얼굴을 가린 한 신사 옆에 앉았다.

성벽 부근에 다다르자 신문이 내려갔다. 숌즈는 가니마르를 알아보았고, 가니마르는 그 남자를 가리키며 숌즈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어젯밤 우리가 쫓던 그 남자입니다. 브레송을 미행하던 자요. 한 시간째 광장을 배회하고 있어요."

"브레송 쪽에서는 새로 나온 게 없나요?" 숌즈가 물었다.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의 주소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침? 그렇다면 발신자가 브레송의 죽음을 알기 전인 어제 부친 거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편지는 예심판사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내용을 외워 두었지요."

그는 어떤 타협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원한다. 첫 번째 사건의 물건뿐 아니라 두 번째 사건의 물건까지도. 그러지 않으면 실력 행사에 나선다.

"게다가 서명도 없습니다." 가니마르가 덧붙였다. "보시다시피 이 몇 줄로는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니마르 씨. 오히려 이 몇 줄이 무척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아니, 도대체 왜요?"

"제 나름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숌즈가 동료에게 늘 보이던 거리낌 없는 태도로 대답했다.

트램이 샤토 거리 종점에서 멈춰 섰다. 그 남자는 내려서 유유히 걸어갔다.

숌즈가 그를 바짝 뒤따랐다. 어찌나 가까이 붙었던지 가니마르가 겁을 낼 정도였다.

"그가 돌아보면 우리는 들통납니다."

"지금은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르센 뤼팽의 공범입니다. 뤼팽의 동료가 이렇게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태연히 걷는다는 건, 첫째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음을 안다는 뜻이고, 둘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바짝 따라붙고 있잖습니까!"

"아직 부족합니다. 그가 1분도 안 되어 우리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을 정도는 아니에요.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있거든요."

"제발, 사람 좀 놀리지 마세요. 저기 카페 문 앞에 자전거 순경 두 명이 있잖아요. 제가 저들을 불러서 저 인물을 직접 막아서겠다고 하면, 그가 대체 어떻게 우리 손아귀에서 빠져나간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 인물은 그런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데에 별로 동요하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그 자신이 순경들을 불러 세웠다!

"제기랄." 가니마르가 내뱉었다. "저 녀석, 배짱 한번 두둑하군!"

사실 그 남자는 순경 두 명이 자전거에 올라타려던 순간, 그들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순경들에게 몇 마디 건넨 뒤, 갑자기 카페 벽에 기대어 있던 세 번째 자전거에 올라타 순경들과 함께 재빨리 자리를 떴다.

영국인이 웃음을 터뜨렸다.

"보셨습니까? 제가 말했죠. 하나, 둘, 셋, 끝! 그리고 그들을 데려간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 동료들입니다, 가니마르 씨. 아, 뤼팽이 자전거 순경들을 자신의 돈으로 고용하다니, 정말 잘도 하네요. 제가 그 인물이 너무 차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가니마르가 모욕감을 느껴 외쳤다. "웃기만 하시면 편하시겠군요!"

"어이쿠, 화내지 마시오. 나중에 갚아주겠소. 지금은 당장 지원이 필요하오."

"폴랑방이 뉘이 대로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소."

"좋소. 그 길에서 그를 만나서 오게. 내가 있는 곳으로."

가니마르는 물러났고, 숌즈는 자전거 자국을 쫓았다. 도로의 먼지 위에는 자국이 또렷이 남았다. 두 대의 자전거에 홈이 파진 타이어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곧 숌즈는 그 자국이 센 강변으로 이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세 남자가 전날 밤 브레송이 갔던 방향과 같은 쪽으로 향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는 가니마르와 함께 숨어 있던 철문에 다다랐다. 조금 더 나아가자 홈이 파진 자국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곳에서 누군가 멈춰 섰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정면에는 센 강으로 길게 뻗어 나온 작은 토지가 있었다. 그 끝에는 낡은 배가 하나 묶여 있었다.

브레송이 그 소포를 던졌거나, 더 정확히 말해 떨어뜨린 곳이 바로 여기다. 숌즈는 비탈을 내려가 보았다. 강둑은 완만한 경사로 이어졌고 강물도 낮아져 있어서, 그는 소포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단, 세 남자가 먼저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아니, 아니. 그들은 시간이 없었을 거야. 고작 십오 분 남짓이잖아. 그런데 왜 그쪽으로 향했을까?'

배에 앉아 낚시를 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숌즈가 그에게 물었다.

"자전거를 탄 세 남자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낚시꾼은 고개를 저었다.

영국인은 재차 물었다.

"아니요, 분명 보셨을 텐데요… 세 남자 말입니다… 방금 당신 코앞에서 멈췄으니까요…"

어부가 낚싯대를 팔 아래로 끼고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는 한 페이지에 무언가를 적더니, 찢어내어 숌즈에게 건넸다.

영국인은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손에 쥔 종이를 한눈에 훑었다. 그 페이지 한가운데에는, 앨범에서 찢겨 나간 그 글자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다.

무거운 햇살이 강물 위로 내리눌렀다. 남자는 다시 일에 몰두했다. 큰 짚모자의 챙 아래로 몸을 가린 채, 재킷과 조끼는 옆에 개어 두고 있었다. 그는 주의 깊게 낚시를 했고, 낚시찌는 물살을 따라 유유히 떠다녔다.

1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이 흘렀다. 그 침묵은 장엄하면서도 끔찍했다.

'저자가 그인가?'

숌즈의 마음속에 거의 고통스러울 만큼의 불안이 일었다.

그때 진실이 그를 비췄다.

"바로 그 녀석이다! 바로 그 녀석이야! 저 사람만이 불안에 떠는 기색 하나 없이, 앞으로 벌어질 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이 앨범 이야기를 달리 누가 알겠는가? 알리스가 심부름꾼을 통해 그에게 미리 알린 것이다."

갑자기 영국인은 깨달았다. 자신의 손이, 바로 자신의 손이 권총의 손잡이를 쥐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시선이 그 낯선 자의 등, 목덜미 바로 아래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의 동작이면 모든 것이 끝나고, 그 기묘한 모험가의 목숨이 비참하게 끝장날 터였다.

낚시꾼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숌즈는 손에 쥔 무기를 신경질적으로 움켜쥐었다. 당장 쏘아 끝장내고 싶은 사나운 충동과, 동시에 자기 본성에 맞지 않는 그 행위에 대한 혐오가 함께 치밀었다. 죽음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아, 일어나라. 저항하라. 그러지 않으면… 그땐 그의 탓이다. 단 일초만 더… 그러면 쏜다.'

그때 발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자, 가니마르 형사가 다른 형사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자 숌즈는 생각을 바꿔, 힘껏 도약해 단숨에 배 안으로 뛰어들었다. 너무 세게 밀치는 바람에 밧줄이 끊어졌다. 그는 그 남자 위로 떨어지며 두 팔로 그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배 바닥으로 함께 굴러떨어졌다.

"그래서요?" 뤼팽이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그게 뭘 증명한다는 겁니까? 우리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무력하게 만든다 한들, 그래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당신도 나를 어쩌지 못하고, 나도 당신을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보 둘처럼 여기 이러고 있을 뿐이죠."

두 개의 노가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배는 표류하기 시작했다. 강둑을 따라 여기저기서 외침이 엇갈렸다.

뤼팽은 계속 말했다.

"맙소사, 이게 무슨 소동이오! 당신, 분별을 잃은 거요? 그 나이에 그런 바보짓을 하다니! 게다가 당신처럼 다 큰 사내가! 이런, 정말 꼴사납구려!"

그는 간신히 몸을 빼냈다.

분노에 찬 헐록 숌즈는 모든 것을 각오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는 욕설을 내뱉었다. 뤼팽이 그의 권총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그때 숌즈는 무릎을 꿇고 한쪽 노를 잡으려 애썼다. 강가로 다가가기 위해서였다. 반면 뤼팽은 넓은 물 한가운데로 빠져나가려고 다른 쪽 노에 매달렸다.

"손에 넣을까… 못 넣을까…" 뤼팽이 말했다. "게다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소. 당신이 노를 쥐어도 내가 쓰지 못하게 막을 거고, 당신도 마찬가지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소,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애

쓰는 거지. 결국 결정하는 건 늘 운명이니까… 보시오, 운명이 보이지 않소… 자, 운명이 이 늙은 뤼팽 편을 들어주는군… 승리다! 물살이 내 편이오!"

과연 배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조심하시오!" 뤼팽이 외쳤다.

강둑에서 누군가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뤼팽이 고개를 숙이자 총성이 울려 퍼졌다. 그들 옆으로 물이 조금 튀어 올랐고, 뤼팽은 폭소를 터뜨렸다.

"맙소사, 가니마르 친구잖아!… 하지만 그건 정말 나쁜 짓이야, 가니마르. 정당방위일 때만 쏠 수 있는 거잖아… 그 불쌍한 아르센이 너를 이렇게 사납게 만들어서 네 본분을 죄다 잊게 한 거야?… 이런, 또 시작이군!… 이런 딱한 사람, 네가 맞히려는 건 내 소중한 선생님이라고."

그는 자기 몸으로 숌즈를 가리는 방패가 되어, 배 안에 선 채 가니마르를 마주 보고 말했다.

"좋아, 이제야 안심이군. 쏴봐, 가니마르, 심장 한복판을 노려!… 더 높이… 왼쪽으로… 빗나갔군… 형편없이 서투르긴… 한 발 더?… 그런데 너 떨고 있잖아, 가니마르… 구령에 맞춰서, 안 그래? 그리고 침착하게!… 하나, 둘, 셋, 발사!… 빗나갔어! 제기랄, 정부는 너희한테 권총이랍시고 애들 장난감이나 쥐여 주는 거야?"

그는 길고 단단하며 납작한 권총을 꺼내 들더니, 조준도 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다.

가니마르 형사가 재빨리 모자를 만졌다. 총알이 모자를 뚫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어때, 가니마르? 이 권총, 정말 좋은 공장에서 만든 거야. 여러분, 인사하세요. 이건 내 고결한 친구, 헐록 숌즈 선생의 권총이랍니다."

그리고 한 번 팔을 휘두르며 그 무기를 가니마르 형사 발치에 던져 넣었다.

숌즈는 웃음을 참지 못했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지! 얼마나 청춘과 순수한 기쁨이 느껴지는지! 그는 정말로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위기의 감각이 그에게 육체적인 쾌감을 안겨주는 듯했고, 이 놀라운 남자에게 인생의 다른 목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는 단지 위험을 찾아내어, 그것을 재미로 무마할 뿐이었다.

그렇지만 강 양쪽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가니마르와 그의 부하들은 멀리서 흔들리는 보트를 따라갔다. 보트는 물살에 아주 부드럽게 밀려가고 있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포획이었다. 수학적으로 확실한 결과였다.

"인정하세요, 선생님." 뤼팽이 영국인을 돌아보며 외쳤다. "트란스발의 금을 다 준다 해도 그 자리만은 내주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지금 계신 곳은 단연 일등석이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서막부터 시작

합시다. 그런 다음 단숨에 제5막, 곧 아르센 뤼팽의 체포 또는 탈출로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니 친애하는 선생님, 한 가지 여쭐 것이 있는데, 오해가 없도록 예 아니면 아니오로만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손을 떼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고, 선생님이 저질러 놓은 일을 제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오."

뤼팽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고집이 그를 짜증나게 하는 것이 역력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거듭 청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보다 오히려 선생님을 위해서 더욱 그렇게 청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개입을 가장 먼저 후회하게 될 사람은 바로 선생님 자신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입니까, 아니오입니까?"

"아니오."

뤼팽은 쪼그려 앉아 바닥 판자 한 장을 들어냈다. 그러고는 몇 분 동안, 숌즈로서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업을 했다. 그런 다음 다시 일어나 영국인 옆에 앉더니, 이렇게 말을 건넸다.

"선생님, 우리 둘 다 같은 이유로 이 강가까지 온 것 같군요. 브레송이 버린 물건을 건져 올리려고 말입니다. 저로 말하면 동료 몇과 약속을 잡아 두었고, 보시다시피 이 간소한 차림이 말해 주듯 센 강 깊은 곳을 잠깐 살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선생님이 다

가온다고 알려 주더군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수사가 진척되는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쉬운 일이지요! 뭐리요 거리에서 제 흥미를 끌 만한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곧바로 전화 한 통이 오고 저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야 선생님도 이해하시겠지요…"

그가 멈춰 섰다. 그가 치워두었던 판자가 이제 들어올랐고, 그 주변으로 작은 물줄기들이 뿜어져 나오며 물이 스며들고 있었다.

"젠장! 내가 정확히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낡은 배 바닥에 물이 새는 구멍이 있는 것 같군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선생님?"

숌즈는 어깨를 으쓱였다. 뤼팽이 계속 말했다.

"그러니 이해하시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게다가 제가 싸움을 피하려 애쓸수록 당신이 더욱 맹렬히 싸움을 원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으니, 결과가 확실한 승부를 당신과 벌이는 것이 제겐 차라리 즐거웠습니다. 모든 패를 제가 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을 최대한 화려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패배가 온 세상에 알려지도록 말이죠. 그래야 또 다른 크로존 백작부인이나 또 다른 임블발 남작이 저에게 맞서 당신께 도움을 청하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요. 게다가 친애하는 선생님, 여기에 다른 뜻이 있다고는 보지 마십시오…"

그는 다시 말을 멈췄다. 반쯤 오므린 두 손을 망원경처럼 만들어 강가를 살폈다.

"젠장! 멋진 보트를 한 척 빌렸군. 진짜 군함처럼 힘차게 노를 저어 오는걸. 5분도 안 돼 우리 배에 닿을 테고, 그러면 난 끝장이다. 숌즈 씨, 조언 하나 하죠. 당신이 나에게 덤벼들어 나를 묶어서 제 나라 법정에 넘기는 겁니다… 이 계획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난파라도 한다면, 남은 건 유언장을 준비하는 일뿐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번에는 숌즈도 뤼팽의 속셈을 알아챘다. 뤼팽이 보트 바닥을 뚫어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물은 그들의 부츠 밑창까지 올라왔다. 발을 뒤덮었다.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물이 발목을 넘어섰다. 영국인은 담배쌈지를 꺼내 담배를 말아 불을 붙였다.

뤼팽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친애하는 선생님, 여기서 보실 것은 당신에 대한 제 무력함의 겸허한 고백뿐입니다. 오직 ……한 싸움만 받아들이는 것은 곧 당신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물은 그들이 앉아 있던 좌판까지 차올랐고, 배는 점점 더 가라앉고 있었다.

숌즈는 담배를 입에 문 채 태연히 하늘을 응시하는 듯했다. 온갖 위험에 둘러싸이고, 군중에 포위되고, 형사 무리에게 쫓기면서도 여전히 좋은 기분을 잃지 않는 이 남자 앞에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조금의 동요하는 기색조차 내비치려 하지 않았다.

«뭐라고! 이런 하찮은 일로 동요한단 말인가? 강물에 빠져 죽는 일이야 날마다 일어나지 않는가? 이게 과연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건이란 말인가?» 두 사람은 마치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한쪽은 떠들어 대고, 다른 한쪽은 멍하니 공상에 잠긴 채, 둘 다 똑같은 무심함의 가면 뒤에 두 자존심이 맞부딪치는 엄청난 충돌을 감추고 있었다.

이제 일 분만 더 지나면 두 사람은 가라앉을 참이었다.

"핵심은 우리가 정의의 투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가라앉느냐, 그 후에 가라앉느냐를 아는 거야. 그게 전부지. 난파 자체는 이제 따질 문제도 아니니까. 선생, 이제 엄숙한 유언의 시간입니다. 내 전 재산을 영국 시민 헐록 숌즈에게 물려주노라, 단 그에게 다음의 의무를 지우며… 한데 이런, 정의의 투사들이 정말 빨리도 오는군! 아, 훌륭한 분들! 보기만 해도 흐뭇해. 노 젓는 솜씨가 얼마나 정확한지! 어, 너 폴팡 아니냐? 잘했다! 군함이라는 발상은 일품이야. 폴팡 경사, 자네를 상관들에게 추천해 주지… 자네가 바라는 게 훈장인가? 알았네… 그렇게 됐어. 그런데 자네 동료 디외지는 어디 있나? 왼쪽 강변에, 원주민 백여 명 한가운데 있겠지?… 그러니 내가 난파를 면한다면, 왼쪽에서는 디외지와 그의 원주민들이, 오른쪽에서는 가니마르와 뉘이 주민들이 나를 건져 올리겠군. 곤란한 딜레마야…"

배 안이 술렁였다. 작은 배가 빙글 돌아 섰고, 숌즈는 노 고리를 꼭 붙잡고 균형을 잡아야 했다.

"선생님, 제발 재킷을 벗으세요. 수영하기 편할 겁니다. 아니요? 거부하시나요? 그럼 제가 제 재킷을 입겠습니다."

뤼팽은 재킷을 입더니 숌즈의 것처럼 꼭꼭 여밈을 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참으로 고집스러운 분이시군요. 정말 아깝습니다. 그 사건에 얽매여 계신 게 말이죠. 물론 그 일로 선생님의 실력을 보여주셨지만, 그 노력이 너무 헛되네요. 정말, 멋진 재능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뤼팽 씨," 숌즈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말했다.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신감과 경솔함이 흠입니다."

"그 비판은 가혹하군요."

"이렇게 해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방금 전 제가 찾던 단서를 저에게 건네주셨군요."

"뭐라고요? 단서를 찾고 있었다면서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소?"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세 시간 안에 임블발 부부에게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려 주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대답입니다…"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보트가 순식간에 가라앉으며 두 사람을 함께 끌고 들어갔다. 배는 곧바로 뒤집힌 채 선체를 위로 드러내며 다

시 떠올랐다. 양쪽 강가에서 큰 외침이 터졌고, 이어 불안한 침묵이 흘렀다가, 갑자기 새로운 탄성이 터졌다. 난파한 두 사람 중 하나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헐록 숌즈였다.

뛰어난 수영 실력으로 그는 큰 팔놀림으로 폴팡의 보트를 향해 헤엄쳐 갔다.

"힘내십시오, 숌즈 씨!" 경사가 외쳤다. "다 왔습니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저자는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았으니,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숌즈 씨… 밧줄을 잡으세요…"

영국인은 누군가 내미는 밧줄을 붙잡았다. 그러나 그가 배 위로 몸을 끌어올리는 사이, 등 뒤에서 한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수수께끼의 답이라, 친애하는 선생님, 물론 알게 되실 겁니다. 오히려 아직도 모르신다는 게 놀라울 정도지요… 하지만 그래서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승부에서 진 것이니까요…"

방금 떠벌리면서 선체 옆벽을 기어올라, 이제는 그 뒤집힌 배에 말 타듯 편안히 걸터앉은 아르센 뤼팽은, 마치 상대를 설득하려는 듯 엄숙한 몸짓을 섞어 가며 연설을 이어 갔다.

"잘 새겨들으십시오, 선생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요… 당신은 한 신사처럼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폴팡이 그를 겨누었다.

"항복해라, 뤼팽."

"자네는 무례하군, 폴팡 경사. 한창 말하는 도중에 끊다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길…"

"항복하시오, 뤼팽."

"이런 제기랄, 폴팡 경사, 항복이란 위험에 처했을 때나 하는 거야. 그런데 자네, 설마 내가 조금이라도 위험에 처했다고 믿는 건 아니겠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뤼팽. 항복하라."

"폴팡 경사, 자네는 나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어. 기껏해야 다치게 할 생각이지. 내가 도망칠까 봐 그토록 겁이 나니까. 그런데 혹시 그 상처가 치명적이기라도 하면? 안 되지, 자네의 후회를 생각해 보게, 가엾은 친구! 독으로 얼룩질 자네의 노년을 말이야!…"

총성이 울렸다.

뤼팽은 비틀거리다 잠시 뒤집힌 뱃전에 매달렸으나, 결국 손을 놓고 사라졌다.

이 사건들이 일어난 시각은 정확히 세 시였다. 그리고 그가 예고한 대로 정확히 여섯 시, 헐록 숌즈는 뇌이의 한 여관 주인에게서 빌린 너무 짧은 바지와 너무 좁은 상의를 입고, 챙 달린 모자를 쓰고, 비단 끈이 달린 플란넬 셔츠를 차려입은 차림으로, 임블발 부부에게 면담을 청한다고 미리 알린 뒤 뮈리요 거리의 작은 응접실로 들어섰다.

그들은 그가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니는 모습을 보았다. 기묘한 차림새가 어찌나 우스운지 그들은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꾹 눌러야 했다.

생각에 잠긴 듯 등을 구부린 채, 그는 마치 자동인형처럼 창문에서 문으로, 문에서 다시 창문으로 걸었다. 매번 똑같은 걸음 수를 떼고, 매번 똑같은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그가 멈춰 서서 장식품 하나를 집어 들더니, 무심코 그것을 살펴보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들 앞에 멈춰 서서 그가 물었다.

"아가씨는 여기 계십니까?"

"네, 정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남작님, 이제 우리가 나눌 대화는 최종적인 것이니, 데뮌 양도 그 자리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까지……?"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남작님. 제가 최대한 정확하게 펼쳐 보일 사실들 속에서 진실이 또렷이 드러날 것입니다."

"좋소. 수잔, 좀 불러다 주겠소?…"

임블발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곧 알리스 데뮌을 데리고 돌아왔다. 평소보다 조금 창백한 그녀는 왜 자신이 불려 왔는지 묻지도 않은 채 테이블에 기대어 서 있었다.

숌즈는 그녀를 보지 못한 듯, 갑자기 임블발 남작 쪽으로 돌아서서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어조로 또박또박 말했다.

"여러 날의 조사 끝에, 그리고 몇몇 사건이 한순간 제 견해를 바꾸어 놓기도 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등불은 이 저택에 사는 누군가가 훔친 것입니다."

"범인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증거는?"

"제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돌려주기까지 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램프 말입니까? 제 손에 있습니다."

"오팔 목걸이는요? 코담뱃갑은요?"

"오팔 목걸이, 코담뱃갑, 한마디로 두 번째에 도난당한 모든 물건이 제 손에 있습니다."

숌즈는 이런 극적인 반전과, 승리를 알릴 때의 다소 무뚝뚝하고 단호한 태도를 좋아했다.

사실 남작과 그의 부인은 깜짝 놀란 듯, 침묵 속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이야말로 최고의 찬사였다.

그는 이어 지난 사흘 동안 자신이 해온 일을 상세히 들려주었다. 앨범을 발견한 일, 잘려 나간 글자들을 조합해 만든 문장을 종이에 적어 보인 일, 브레송이 센 강변으로 떠난 일과 그 모험가의 자살, 그리고 바로 방금 전 뤼팽과 벌인 자신의 격투, 배의 침몰, 그리고 사라진 뤼팽의 행방까지.

말을 마쳤을 때 남작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남은 일은 범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뿐이오. 누구를 지목하시오?"

"저는 이 알파벳에서 글자를 잘라 낸 사람, 그리고 그 글자들을 통해 아르센 뤼팽과 교신했던 사람을 지목합니다."

"어떻게 그 상대가 뤼팽이라는 것을 아시오?"

"뤼팽 자신으로부터요."

그가 젖고 구겨진 종이 조각을 내밀었다. 뤼팽이 보트 안에서 노트에서 찢어낸 그 종이였다. 그 위에 그는 한 문구를 적어 놓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숌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가 이 종이를 내게 줄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이유도 없었죠. 단순한 장난이었지만, 그 행동이 저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어주었습니다."

"단서가 되었다고요……" 남작이 말했다. "그런데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숌즈가 연필로 글자와 숫자를 다시 따라 그었다.

CDEHNOPRZEO — 237.

"그래서요?" 임블발 씨가 물었다. "방금 우리에게 직접 보여준 그 공식이잖소."

"아닙니다. 만약 그 공식을 온갖 각도로 돌려가며 살펴봤다면, 저처럼 단번에 알아챘을 것입니다. 이 공식이 처음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요."

"그럼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두 글자가 더 들어갔어요. E와 O죠."

"정말요. 저는 그걸 놓쳤군요."

"남아 있던 C와 H에 그 두 글자를 더해 보세요. 'répondez'라는 단어 밖에 남은 글자들 말이에요. 그럼 유일하게 가능한 단어가 'ÉCHO'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프랑스의 에코', 뤼팽의 신문이자 그의 공식 기관지라는 뜻이에요. 뤼팽이 자신의 '공지'를 싣는 곳 말이죠. '프랑스의 에코, 개인 통신란, 237번'으로 답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수수께끼의 열쇠가 바로 그것이었고, 뤼팽이 그렇게도 선뜻 알려준 단서였죠. 방금 '프랑스의 에코' 편집국에서 오는 길입니다."

"무엇을 찾으셨나요?"

"아르센 뤼팽과 그의 공범, 그 둘의 관계에 대한 모든 상세한 내막을요."

숌즈가 펼친 일곱 신문을 내보였다. 네 번째 면에 실린 기사들에서 그는 일곱 줄을 떼어냈다.

1 ARS. LUP. Dam. impl. protect. 540. 2 540. Attends explications. A. L. 3 A. L. Sous domin. ennemi. Perdue. 4 540. Écrivez adresse. Ferai enquête. 5 A. L. Murillo. 6 540. Parc trois heures. Violettes. 7 237. Entendu sam. serai dim. mat. parc.

"이걸 상세한 기록이라고 부르시나요?" 임블발 씨가 외쳤다.

"원, 그럼요.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제 의견에 동의하실 겁니다.

먼저 540으로 서명한 한 부인이 '아르센 뤼팽'에게 보호를 호소합니다. 이에 뤼팽은 자초지종 설명을 요구하죠. 부인은 자신이 적, 다름 아닌 브레송의 손아귀에 잡혀 있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파멸이라고 답합니다.

의심이 많아 아직 이 미지의 여인과 직접 접촉하기를 주저한 뤼팽은, 주소를 요구하며 조사를 해 보겠다고 제안합니다. 부인은 나흘 동안 망설입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십시오. 결국 사건의 급박함과 브레송의 협박에 떠밀려, 그녀는 자신이 사는 거리 이름인 '뮈릴로'를 알려줍니다.

다음 날, 아르센 뤼팽은 오후 3시에 몽소 공원에 나가겠다고 알리며, 미지의 여인에게 서로를 알아볼 신호로 제비꽃 다발을 들고 오라고 청합니다. 그러고는 여드레 동안 신문 연락이 끊깁니다. 아르센 뤼팽과 부인은 더 이상 신문을 통해 편지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직접 만나거나 편지를 교환했으니까요.

계획이 짜였습니다. 브레송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부인이 유대인의 램프를 훔치기로 한 것이죠. 남은 일은 날짜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중을 기한 부인은 잘라 붙인 글자로 편지를 작성해, 토요일을 택하고 '에코 237로 답하라'고 덧붙입니다. 뤼팽은 알았다고, 게다가 일요일 아침에도 공원에 있겠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도둑질이 일어났습니다."

"맞소.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는군요. 이야기가 완성되었어요." 남작이 동의했다.

숌즈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자, 그렇게 절도가 일어납니다. 부인은 일요일 아침에 집을 나서서 자신이 한 일을 뤼팽에게 보고하고, 유대인의 램프를 브레송에게 가져다줍니다. 그런 다음 상황은 뤼팽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죠. 사법 당국은 열린 창문과 땅에 난 네 개의 구멍, 발코니의 긁힌 자국 두 개에 속아, 곧바로 강제 침입에 의한 절도라는 가설을 받아들입니다. 부인은 안심하게 되고요."

"좋소." 남작이 말했다. "매우 논리적인 설명이라고 인정하겠소. 하지만 두 번째 절도는…"

두 번째 절도는 첫 번째 절도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유대인의 램프가 사라진 사연이 신문에 실리자, 누군가가 같은 수법을 되풀이해 미처 가져가지 못한 물건을 노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번엔 가짜 절도가 아니라 진짜 절도였다. 실제로 문을 부수고 담을 타넘는, 진짜 침입이 있었다.

"물론 뤼팽이겠지."

"아니, 뤼팽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 뤼팽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쏘지 않지."

"그럼 누구란 말이야?"

"브레송이야. 의심할 여지 없이. 게다가 그가 협박하던 그 여자도 모르게 한 짓이지. 여기 침입한 것도 브레송이고, 내가 쫓아간 것도, 내 가엾은 윌슨을 다치게 한 것도 브레송이야."

"정말 그렇게 확신해?"

"물론입니다. 브레송이 자살하기 전인 어제, 그의 공범 중 한 명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 편지를 보면, 그 공범과 뤼팽 사이에 귀하의 저택에서 도난당한 모든 물건을 돌려받는 문제로 협상이 오갔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뤼팽은 전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물건(즉 유대인의 램프)은 물론, 두 번째 사건과 관련된 물건들까지도.' 게다가 그는 브레송을 감시하고 있었죠. 어제 저녁 브레송이 센 강변으로 갔을 때, 뤼팽의 부하 한 명이 우리와 동시에 그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송이 센 강변에서 무엇을 하려던 거죠?"

"제 수사가 진전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누구한테서요?"

"바로 그 부인입니다. 유대인의 램프가 발견되면 자신의 일까지 들통날까 봐, 그녀로서는 당연히 두려웠던 거죠. 그렇게 경고를 받은 브레송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것들을 한데 모아 보따리로 싸서, 위험이 지나면 다시 꺼낼 수 있는 곳에 던져 두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가니마르와 저에게 쫓기던 그는, 아마 양심에 걸리는 다른 범행도 있었던 탓인지, 정신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나요?"

"유대인의 램프와 당신의 다른 골동품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당신 손에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군요?"

"뤼팽이 사라진 직후, 그가 억지로 시킨 목욕을 틈타 브레송이 정해 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헝겊과 방수포에 싸인 채로 있던, 당신에게서 도난당한 물건을 찾아냈죠. 여기, 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남작은 말없이 끈을 잘랐다. 젖은 헝겊을 단번에 찢어내고 그 안에서 램프를 꺼냈다. 받침대 아래에 달린 나사를 돌리고, 두 손으로 몸체를 힘껏 비틀어 나사를 풀더니, 똑같이 두 쪽으로 갈라 열었다. 그러자 루비와 에메랄드로 장식된 황금 키마이라 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온전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단순한 사실 나열에 불과했던 이 장면 속에는, 끔찍할 만큼 비극적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숌즈가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아가씨를 향해 던지는,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반박할 수 없는 고발이었다. 그리고 알리스 드뮌의 인상적인 침묵 또한 그 비극을 더했다.

작은 증거들이 하나하나 더해지며 길고 잔인하게 쌓여 가는 동안, 그녀의 얼굴 근육은 단 하나도 움찔하지 않았고, 맑고 투명한 눈빛에는 반항이나 두려움의 빛조차 스치지 않았다. 그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

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대답해야 하고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며 헐록 숌즈가 그토록 교묘하게 둘러놓은 쇠고리를 깨뜨려야 할 그 엄숙한 순간이 오면, 그녀는 과연 무슨 말을 할까?

그 순간이 흘렀다. 소녀는 입을 다물었다.

"말하세요! 제발 말씀하세요!" 임블발 씨가 소리쳤다.

하지만 소녀는 침묵을 지켰다.

남작은 재촉했다.

"말 한마디면 당신의 무죄가 증명될 거예요. 반박하는 말만 하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남작은 방 안을 급히 오갔다. 다시 돌아서더니, 또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러더니 숌즈에게로 다가갔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범죄도 있는 법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제가 지난 일 년간 보고 듣고 알게 된 모든 것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는 영국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선생님, 당신 자신은 정말로, 단 한 번의 오해도 없다는 확신이 서십니까?"

숌즈는 잠시 주저했다. 뜻밖의 공격을 받아 곧바로 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같았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지목하는 사람만이, 댁에서 맡고 있는 위치 덕분에 유대인 램프 안에 그 훌륭한 보석이 들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믿고 싶지 않군요." 남작이 중얼거렸다.

"그분께 직접 물어보십시오."

사실 그것은, 그 아가씨가 불러일으킨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남작이 유일하게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명백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아가씨에게 다가가 눈을 똑바로 맞추며 물었다.

"당신인가요, 아가씨? 당신이 보석을 훔치고, 아르센 뤼팽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도난을 꾸민 게 당신입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네, 접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얼굴에는 수치심도 당황함도 드러나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임블발 씨가 중얼거렸다. "절대로 믿지 못하겠어. 당신을 의심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한 거야, 불쌍한 여인아?"

그녀가 말했다.

"숍즈 씨가 말한 그대로 했어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 그 작은 방으로 내려가 램프를 들고 아침에 그 남자에게 건네줬어요."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돼." 남작이 반박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니, 왜요?"

"아침에 그 작은 방의 문이 빗장으로 잠겨 있는 것을 내가 직접 확인했거든."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다. 숍즈를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는 눈빛이었다.

남작의 반론보다 더 강하게, 숍즈는 알리스 데몽의 당황한 태도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녀는 정말 대답할 말이 없었던 걸까? 숍즈 자신이 유대인 램프 도난에 관해 내놓은 설명을 뒷받침하는 이 자백이, 사실을 따져 보면 곧장 무너질 거짓말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남작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가 걸어 둔 그대로 빗장이 걸려 있는 걸 확인했다고 단언합니다. 만약 당신 말대로 이 문을 통해 들어왔다면, 누군가 안쪽에서, 그러니까 작은 응접실이나 우리 침실 쪽에

서 문을 열어 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 아내와 저밖에 없었습니다."

숌즈는 몸을 급히 굽혔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려 붉어지는 얼굴을 숨기려 했다. 마치 너무 강한 빛이 그를 때린 듯했다. 그는 눈이 부시고 당황한 상태였다.

어둠에 가려 있던 풍경이 갑자기 밤이 걷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의 앞에 드러나고 있었다.

알리스 데몽은 무죄였다. 이는 확실하고 눈부신 진실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그가 첫날부터 이 젊은 소녀에게 가했던 끔찍한 비난을 이끌면서 느꼈던 그 불편함의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가 손짓만 하면, 즉시 그의 앞에 논증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몇 초가 흐른 뒤,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임블발 부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창백했다. 인생의 냉혹한 순간에 엄습하는, 그 낯설도록 새파란 창백함이었다. 숨기려 애썼지만 그녀의 손은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정체를 드러내겠군.' 숌즈는 생각했다.

숌즈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 사이에 끼어들었다. 자신의 잘못 탓에 이 부부를 위협하게 된 끔찍한 위험을 떼어내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에 서였다. 하지만 남작을 본 순간, 그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흠칫 떨었다. 그를 눈부시게 밝히던 그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이제 임블발 씨마저 환히 비추고 있었다. 남편의 머릿속에서도 똑같은 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그가 깨달았다! 그가 본 것이다!

알리스 데몽은 냉혹한 진실에 맞서 필사적으로 버텼다.

"당신 말이 맞아요, 선생님. 제가 잘못 말했군요… 사실 저는 이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현관과 정원을 지나서, 사다리를 이용해…"

최후의 헌신적인 노력이었다. 하지만 헛수고였다. 그녀의 말은 거짓처럼 들렸다. 목소리는 흔들렸고, 그 다정한 여인에게는 더 이상 맑은 눈빛도 진정성 넘치는 태도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패배한 듯 고개를 숙였다.

침묵은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임블발 부인은 새파랗게 질린 채 기다렸다. 공포와 불안에 온몸이 굳어 있었다. 남작은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는 듯했다. 자신의 행복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듯했다.

마침내 그가 더듬거렸다.

"말해 봐! 설명해 보라고!…"

"당신에게 할 말이 없어요, 가엾은 여보." 그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럼… 아가씨…"

"아가씨가 저를 구해 주셨어요… 헌신적인 마음으로… 애정으로… 그러고는 자기가 한 일이라고 뒤집어썼죠…"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저 남자로부터요."

"브레송 말이오?"

"네, 협박으로 저를 옭아맨 사람이 바로 그자예요… 어느 친구 집에서 그를 알게 됐고… 어리석게도 그의 말에 넘어갔어요… 오, 당신이 용서 못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편지를 썼어요… 당신이 보게 될 편지들을요… 제가 그 편지를 도로 사들였죠… 어떻게 했는지는 당신도 아시잖아요… 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너! 너였어, 수잔!"

그가 주먹을 꽉 쥐고 그녀를 향해 들어 올렸다. 때릴 듯이, 죽일 듯이. 하지만 그의 팔은 다시 축 처졌고, 그는 또다시 속삭였다.

"너, 수잔!… 너라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짧고 끊긴 말투로 그녀는 비참하고도 평범한 사건을 털어놓았다. 그 남자의 추악한 본모습을 깨달은 순간의 놀람, 죄책감, 그리고 당황스러움까지 모두 말했다.

그녀는 알리스의 놀라운 행동도 전했다. 주인마님의 절망을 눈치챈 소녀는 자백을 받아내고, 뤼팽에게 편지를 쓰며, 브레송의 손아귀에서 그녀를 구하기 위해 도난 사건을 꾸몄던 것이다.

"수잔, 너라니, 너라니."

임블발 씨가 허리를 굽히고, 무너져 내린 듯 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같은 날 저녁, 칼레와 도버를 오가는 증기선 빌드롱드르가 고요한 바다 위를 천천히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밤은 캄캄했고 바람도 잔잔했다. 배 위로는 평온한 구름들이 흐릿하게 드리워졌고, 주위에는 연한 안개 막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 안개 너머로 달빛과 별빛이 퍼져나갈 무한한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미 객실과 살롱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몇몇 모험심 강한 이들은 갑판 위를 거닐거나, 두꺼운 담요를 덮고 넓은 흔들의자에 파묻혀 낮잠을 자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시가 불빛이 보였고, 부드러운 바람 소리 속에 나지막한 말소리가 섞여 들렸다. 그들은 장엄한 고요를 깨뜨릴 엄두가 나지 않아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다.

배를 거닐던 한 승객이 일정한 보폭으로 갑판을 걷다가 벤치에 누운 사람 곁에 멈춰 섰다. 그 사람이 살짝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가 말했다.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알리스 양."

"아니요, 숌즈 씨. 자고 싶지 않아요. 그냥 생각 중이에요."

"무슨 생각을요? 여쭤봐도 실례가 될까요?"

"드 임블발 부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슬프시겠죠! 인생이 무너졌으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가 얼른 말했다. "그분의 잘못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드 임블발 씨는 그 허물을 곧 잊을 겁니다. 우리가 떠나올 때 이미 그분을 덜 매섭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도요. 하지만 잊는 데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분을 무척 사랑하나 봐요?"

"많아요. 그 덕분에 무서워 몸이 떨릴 때에도 웃을 수 있었고, 당신의 시선을 피하고 싶을 때에도 똑바로 마주 볼 수 있었죠."

"그분을 떠나는 게 그렇게 슬픈가요?"

"정말 슬퍼요. 저는 부모도 친구도 없어요. 저에겐 그분뿐이었죠."

"친구가 생길 거예요." 영국인이 말했다. 그 슬픔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약속합니다. 저는 인맥도 많고 영향력도 있어요. 지금 처지를 후회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럴지도요. 하지만 드 임블발 부인은 더 이상 곁에 없을 테니까요."

그들은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다. 헐록 숌즈는 갑판 위를 두세 바퀴 더 돌다가 돌아와 여행 동반자 곁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안개 장막이 걷히고 구름이 하늘에서 갈라지는 듯했다.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숌즈는 맥팔레인 코트 안쪽에서 파이프를 꺼냈다. 파이프에 담배를 가득 채우고 성냥을 네 개나 차례로 그어 봤지만, 불은 붙지 않았다. 더 이상 성냥이 없자 그는 일어나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한 신사에게 말했다.

"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 신사는 성냥갑을 열어 성냥을 그었다. 곧바로 불꽃이 일었다. 그 불빛에 비친 숌즈의 눈앞에 아르센 뤼팽이 나타났다.

만약 영국인이 아주 미세한, 알아챌 수 없을 만큼의 뒷걸음질조차 보이지 않았다면, 뤼팽은 숌즈가 자신의 탑승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만큼 숌즈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적에게 손을 내미는 태도가 그만큼 자연스러웠다.

"여전히 건강하시군요, 뤼팽 씨?"

"잘했어!"

뤼팽이 외쳤다. 그토록 대단한 자제력에 그는 감탄의 탄성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잘했다니?… 왜요?"

"왜냐고요? 당신은 제가 유령처럼 당신 앞에 다시 나타나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센강에 뛰어드는 걸 지켜본 뒤에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존심에서인지, 제가 지극히 영국적이라 할 만한 기적 같은 자존심 때문인지, 당신은 놀라는 기색 하나, 놀랐다는 말 한마디 없으시는군요. 정말이지, 다시 말하지만, 잘했어요. 감탄스럽습니다!"

"감탄스러울 것 없소. 당신이 보트에서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고, 나는 당신이 일부러 떨어졌으며 병장의 총알에 맞지 않았다는 걸 잘 알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 채 떠나버렸군요?"

"당신이 어떻게 됐느냐고요? 다 알고 있었소. 5백 명이 1킬로미터에 걸쳐 양쪽 강기슭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당신이 죽음을 면했다 하더라도 붙잡히는 건 확실했지."

"하지만 이렇게 멀쩡히 와 있잖습니까."

"뤼팽 씨, 이 세상에는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놀라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둘 있소. 먼저 나 자신이고, 그다음이 당신이오."

평화가 찾아왔다.

숌즈가 아르센 뤼팽을 상대로 한 작전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뤼팽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특별한 적으로 남았다. 숌즈는 쫓는 내내 늘 열세였다.

하지만 영국인은 놀라운 집념으로 다시금 유대인의 램프를 찾아냈다. 파란 보석을 되찾았을 때와 같은 결과였다.

이번엔 결과가 그다지 화려하지 않았다. 특히 대중 앞에서는 더 그랬다. 숌즈는 램프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숨겨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범인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내 대 사내로, 뤼팽과 숌즈로, 경찰과 도둑으로 비교해 보자. 공평하게 따져보면 승자도 패자도 없다. 둘 다 동등한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정중한 적수처럼, 무기를 내려놓고 각자의 가치를 정확히 인정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숌즈의 요청으로 뤼팽은 탈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걸 탈출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지만, 정말 간단했죠. 제 친구들이 망을 보고 있었거든요. 유대인의 램프를 건져 올리기로 다 같이

약속이 돼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뒤집힌 보트 선체 밑에서 반 시간쯤 버티다가, 폴팡과 그 부하들이 강변을 따라 제 시체를 찾는 틈을 타 잔해 위로 다시 올라왔죠. 친구들은 모터보트를 몰고 지나가다 저를 슬쩍 건져 올리기만 하면 됐고, 가니마르와 폴팡을 비롯한 5백 명의 구경꾼이 어리둥절해하는 가운데 우리는 줄행랑을 쳤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군요!" 숌즈가 외쳤다.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 볼일이 있으신 겁니까?"

"네, 몇 가지 정산할 일이 있어서요… 아, 깜빡했군요… 임블발 씨는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친애하는 선생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저를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요? 하루 이틀만 더 있었으면 저는 브레송에게서 유대인의 램프와 골동품들을 되찾아 임블발 부부에게 돌려보냈을 테고, 그러면 그 선량한 두 사람은 서로 곁에서 평온하게 여생을 보냈을 텐데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그러기는커녕," 숌즈가 빈정거렸다. "내가 판을 헝클어 놓아, 당신이 보호하던 가정에 불화를 들여놓았다는 거군."

"맙소사, 그래요, 제가 보호하고 있었죠! 늘 훔치고 속이고 악을 저질러야만 하는 겁니까?"

"그래, 당신은 선행도 한다는 겁니까?"

"시간이 날 때요. 게다가 재미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얽힌 이 사건에서 제가 돕고 구해 주는 선한 정령이고, 당신이 절망과 눈물을 가져다주는 악한 정령이라니, 저는 그게 너무나 우습게 느껴집니다."

"눈물이라니! 눈물이라니!" 영국인이 항의했다.

"당연하죠! 임블발 부부의 가정이 무너졌고 알리스 드뮌은 울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소… 가니마르가 결국 그녀를 알아냈을 테고… 그녀를 통해 임블발 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테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선생님. 하지만 누구 탓일까요?"

두 남자가 그들 앞을 지나갔다. 숌즈가 음색이 살짝 변한 듯한 목소리로 뤼팽에게 말했다.

"저 신사들이 누구인지 아시오?"

"배의 선장은 알아본 것 같군요."

"다른 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오스틴 길레트 씨입니다. 오스틴 길레트 씨는 영국에서 당신네 치안국장 두두아 씨에 해당하는 자리를 맡고 있죠."

"아, 정말 잘됐군요! 저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두두아 씨는 제 좋은 친구 중 한 사람인데, 오스틴 길레트 씨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두 신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제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어쩌시겠소, 뤼팽 씨?" 숌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는 아르센 뤼팽의 손목을 붙잡아 쇠처럼 단단한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왜 그리 세게 쥐십니까, 선생님? 저는 얼마든지 따라갈 준비가 돼 있는데요."

실제로 그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끌려갔다. 두 신사는 멀어지고 있었다.

숌즈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손톱이 뤼팽의 살을 파고들었다.

"자… 자…" 그는 모든 것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는 열에 들뜬 조급함 속에서 낮게 중얼거렸다. "자, 더 빨리!"

하지만 그는 우뚝 멈춰 섰다. 알리스 드뮌이 그들을 따라온 것이다.

"무슨 짓이오, 아가씨! 소용없소… 따라오지 마시오!"

대답한 것은 뤼팽이었다.

"선생님, 이 점을 알아 두시죠. 아가씨는 제 발로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녀의 손목을 쥐고 있는데, 당신이 제게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힘으로 말입니다."

"대체 왜?"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 여인도 꼭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의 램프 사건에서 그녀의 역할은 제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르센 뤼팽의 공범이자 브레송의 공범인 그녀는 임블발 남작 부인의 사건도 들려줘야 할 겁니다. 그건 사법 당국의 흥미를 엄청나게 끌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너그러운 숌즈 님, 당신의 선한 개입은 그 극한까지 다다르게 되는 셈이죠."

영국인은 붙잡고 있던 죄수의 손목을 놓았다. 뤼팽도 아가씨를 풀어주었다.

그들은 몇 초 동안 서로를 마주한 채 꼼짝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숌즈는 자기 벤치로 돌아가 앉았다. 뤼팽과 젊은 여자도 제자리로 돌아갔다.

긴 침묵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그리고 뤼팽이 말했다.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결코 같은 편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도랑 한쪽에 서 있고, 저는 그 반대편에 있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손을 내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어도, 과거는 늘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나 탐정 헐록 숌즈일 테고, 저는 언제까지나 도둑 아르센 뤼팽일 테니까요.

그리고 헐록 숌즈는 언제나, 다소 자발적으로 또 다소 적절하게, 도둑을 끈질기게 쫓아 가능하면 '감옥에 처넣으려는' 탐정의 본능에 따를 겁니다. 반면 아르센 뤼팽은 언제나 도둑의 영혼에 충실하게, 탐정의 손아귀를 피하고 가능하면 그를 비웃을 테죠.

그리고 이번엔, 그게 가능합니다! 아! 아! 아!"

그는 비웃는 듯한, 잔인하고 역겨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갑자기 진지해지더니 젊은 여인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가씨, 이것만은 믿어 주십시오. 설령 막다른 궁지에 몰린다 해도 저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르센 뤼팽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들은 더더욱요. 그리고 한 말씀 드리는 걸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당신이라는 용감하고 사랑스러운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둘로 찢고는, 그 반쪽을 아가씨에게 내밀며 똑같이 감동 어리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만약 숌즈 씨가 자기 계획에 실패하거든, 스트롱버러 부인을 찾아가십시오. (현재 사시는 곳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명함 반쪽을 건네며 '변함없는 추억'이라는 두 마디만 전하십

시오. 그러면 스트롱버러 부인이 친자매처럼 당신을 보살펴 줄 겁니다."

"고마워요." 젊은 여인이 말했다. "내일 그 부인을 찾아뵙겠어요."

"자, 이제 선생님," 뤼팽이 할 일을 다 한 신사처럼 만족스러운 어조로 외쳤다. "편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 아직 항해가 한 시간 남았으니, 저는 그 시간을 누리겠습니다."

그는 몸을 쭉 뻗고 두 손을 머리 뒤로 깍지 꼈다.

달을 가리던 하늘이 열렸다. 별들 주위와 바다 표면 위로 그 찬란한 빛이 가득 퍼졌다. 빛은 물 위에 떠 있었고, 마지막 구름이 녹아드는 광막한 공간이 마치 그 빛의 것인 듯했다.

해안선이 어두운 지평선에서 떨어져 나와 드러났다. 승객들이 갑판으로 올라왔다. 갑판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오스틴 길레트 씨가 두 사람과 함께 지나갔는데, 숌즈는 그들이 영국 경찰 요원임을 알아보았다.

벤치에 누운 뤼팽은 잠들어 있었다…